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허라금 · 강선미 외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허라금 · 강선미 외

2010. 3

본 연구보고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연구용역으로 위탁, 작성되었으며,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 센터 허라금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동 센터 전문 연구위원인 강선미 교수 등이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용어집.....	10
요약.....	13
Abstract.....	20
제1장 서론	22
1. 연구 목표 및 필요성.....	22
2.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24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4
나. 연구 전략 및 방법.....	26
제2장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국제 동향	28
1.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 배경.....	29
가. 개발과 성 평등 관점의 통합과정	29
나. 21세기의 개발과 성 평등 이슈.....	31
2.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주요과제.....	36
가.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과정.....	36
나.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핵심과제.....	38
3.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 과제.....	43
가.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추진 역량강화의 필요성.....	44
나.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47
4. 성 주류화 수행역량과 국별 정책과제.....	53
가.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 도입 및 정착기.....	54
나.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실효성 강화기.....	55
다.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확립기.....	56
5. KOICA 사업 성 주류화 방안에 대한 함의.....	57
6. 소결.....	59

제3장 KOICA ODA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61
1. 제도와 정책	61
2. 사업집행	67
3. 사업평가	71
4. 조직구조	76
5. 교육훈련	80
6. 소결	85
 제4장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안).....	87
1.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평등 정책(안).....	88
가. KOICA의 성 평등 정책(안)의 추진배경	88
나. KOICA 성 평등 정책(안).....	91
2.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가이드라인.....	101
가.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의 필요성.....	101
나.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의 가이드라인.....	104
3.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119
가. 사업 절차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119
나. 사업 분야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130
다. 사업 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172
4. 조직체계 및 교육훈련방안	185
가. 조직체계.....	185
나. 교육훈련방안	188
5. 소결	199
 제5장 결론.....	201

표 목차

[표-1] OECD/DAC의 성 평등 실현 목표.....	41
[표-2]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정책영역과 핵심과제.....	41
[표-3] OECD/DAC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처음으로 성 평등 정책을 채택한 해	45
[표-4] OECD/DAC 수원국 원조기관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국가지원전략에서 성 평등 관련 활동들	46
[표-5] KOICA의 성 주류화 역량개발영역	47
[표-6]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 리더십 개발.....	48
[표-7]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49
[표-8] 성 주류화 추진체계.....	50
[표-9] 개발협력 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	50
[표-10] 성 주류화 종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51
[표-11] 성 주류화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52
[표-12] 성 주류화 교육 및 학습.....	52
[표-13] KOICA 제도 및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66
[표-14] 성 주류화 ODA 사업 현황.....	68
[표-15] KOICA ODA 사업 성 인지 예산(안).....	70
[표-16] KOICA 사업진행 현황 및 개선방안	71
[표-17] OECD/DAC의 평가 기준	72
[표-18] 단계별 성 주류화 고려사항	73
[표-19] 교육 분야 평가 항목의 구조.....	74
[표-20] 교육 분야 사업 성 주류화에 대한 평가 결과.....	75
[표-21] KOICA 사업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	76
[표-22] 본부 성 평등 부서 그리고/혹은 성 평등 정책자문관.....	79
[표-23] 현지의 성 평등 정책 자문관의 수(N=27)	79
[표-24] KOICA 조직구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80
[표-25]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실천.....	80
[표-26] KOICA 2009년도 주요 교육 계획.....	82
[표-27] KOICA 성 인지 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	85
[표-28] 본 장의 기본구조	87

[표-29] KOICA ODA 성 평등 정책(안)의 주요정책방향	92
[표-30]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전략적 사업목표	95
[표-31] CAS의 성 주류화 고려사항.....	104
[표-32] 성 인지적 분석 틀 형성 및 계획 수립시의 원칙.....	110
[표-33] 국가의 성 인지적 프로필 점검사항.....	112
[표-34] 평가단계의 지표 설정.....	118
[표-35] KOICA의 성 인지적 CAS 문서 개요 사례.....	118
[표-36] 사업수행 절차 및 성 주류화 적용 지점	120
[표-37] 사업발굴에서 사업선정까지의 성 인지적 점검 사항	121
[표-38] 성 인지적 사업설계 및 집행 요약문(The Generic Logical Framework Matrix).....	123
[표-39] 사업의 성 인지적 모니터링 점검 사항.....	124
[표-40] 모니터링의 사례 : 전형적인 농어촌개발 사업에 있어 젠더 통합.....	125
[표-41] KOICA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의 성 주류화.....	127
[표-42] 사업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의 효과, 과정 및 참여측정 지표.....	129
[표-43] KOICA 분야별 사업지원.....	130
[표-44] KOICA 보건의로 분야 목표.....	131
[표-45] 보건의로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138
[표-46] KOICA 교육 분야 목표.....	140
[표-47] 교육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143
[표-48] KOICA 행정제도 분야 목표.....	144
[표-49] 행정제도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151
[표-50] KOICA 정보통신 분야 목표.....	152
[표-51] 정보통신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156
[표-52] KOICA 농어촌개발 분야 목표.....	157
[표-53] 농어촌개발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161
[표-54] KOICA 산업에너지 분야 목표.....	163
[표-55] 산업에너지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166
[표-56] KOICA 환경 및 기타 분야 목표.....	167
[표-57]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171
[표-58] 사업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점검 포인트.....	172

[표-59] 분야별 배분계획(2009년).....	178
[표-60] 2009년도 사업지역 및 국가.....	179
[표-61] 프로젝트형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182
[표-62] 단계별 3가지 조직 유형 제안.....	187
[표-63] 대상별 교육 내용.....	192

그림 목차

[그림-1] 연구과정 단계별 목표.....	26
[그림-2] 연구 전략.....	27
[그림-3] OECD/DAC의 성 주류화 추진 방식.....	37
[그림-4]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40
[그림-5]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54
[그림-6] 여성 분야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체계도.....	64
[그림-7] KOICA 조직도.....	78
[그림-8] 국가지원전략의 성 주류화.....	105
[그림-9] CAS 계획 단계.....	115
[그림-10] 성 주류화를 위한 KOICA 사업 수행 체계.....	188
[그림-11] 교육 대상.....	189

부록

부록 1. KOICA의 대외무상원조(ODA) 정책개요.....	212
부록 2.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별 주요 현안.....	217
부록 3. OECD/DAC 고위급 회담의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결의문과 내용.....	222
부록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224

용어집

빈곤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빈곤화 과정의 다양한 지점에서 여성들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남성들에 비해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아동양육의 책임수행은 노동시장의 진입 및 연속성을 방해하며,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는 경향이 높음. 이와 같은 여성의 개인적/사회적 조건들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말함.
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자녀들의 수, 장소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생식에 대한 지식과 수단을 가질 개인 또는 커플의 권리, 그리고 성적이고 생식건강의 가장 높은 기준을 달성하려는 권리를 말함.
성 고정관념 (Gender stereotype)	어떤 행동이 남녀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또는 그 행동을 남성적이거나 여성적 행동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을 뜻함.
성별 격차 (Gender gap)	참여, 접근, 권리, 보수 또는 수혜 수준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말함.
성별분리통계 (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함. 통계나 자료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 조건, 상황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임.
성별분업 (Gender division of labour)	성별에 따라 역할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을 말함. 근대사회에서 성별분업은 사적,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보수, 무보수 노동이 분리됨.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이 성 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을 말함. 성별 분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됨.
성 인지 감수성 교육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감수성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말함. 감수성 훈련에서는 마음과 감정을 나누며 이론적으로 공부하거나 생각이나 견해 차이를 토론하는 식이 아니라 실험실적 특수상황 속에서 경험적인 체험학습을 위주로 실습하는 특수 교육임. 성 평등 교육이 성 인지 감수성 훈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 개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기 때문임.
성 인지 예산 (Gender budgeting)	모든 정책의 예산과정에 젠더관점을 통합하는 즉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며,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 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성 인지적 (Gender-sensitive)	젠더 차원을 고려하고 다루는 것을 말함.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과 기술적 능력을 말함.
성 분석 (Gender analysis)	정책이나 개발 프로젝트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함. 성(sex)에 따라 자원과 노동이 어떻게 배분되며 평가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요함.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함.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실행·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데 있음. 성 주류화의 과정은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perspective),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을 포함.
성 중립적 (Gender neutral)	여성이나 남성에 대하여 같은 절차, 기회,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성 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을 특별히 고려/언급하지 않는 것을 성 중립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성 불평등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성 평등 (Gender equality)	양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와 인간적 권리를 누리며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성 형평 (Gender equity)	양성이 평등해지는 과정으로서 이제까지 양성이 동일한 상황에서 활동하지 못했던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대한 보상조치가 취해질 때 진정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뜻함.
실제적 요구 (Practical need)	특정한 맥락 내에서 즉각적인 수요(식수, 주거, 음식, 소득 및 보건의료)로 정의함. 실제적 요구를 다루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생활환경에 대한 대응을 포함함.
여성역량강화 (Women's Empowerment)	정치적 세력이 부족한 여성 또는 소수집단이 자신을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을 증진/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정치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지원하는 과정을 뜻함.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사회적 조건에 집단적 영향력을 증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까지를 의미함.
이중전략 (Twin-track)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접근하는 성 주류화 접근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접근을 말함.
전략적 요구 (Strategic need)	사회 테두리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한 것임. 이러한 관심들은 각각의 맥락에서 다양하고, 노동/자원/권력에서의 성 구분 뿐만 아니라 역할과 기대와도 관련되어 있음. 이것은 법적 권리의 획득, 임금격차의 해소,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의사결정권의 증대 및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
젠더 (Gender)	가부장적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구성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 여성과 남성의 관계,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일련의 특징 및 행동 등을 뜻함.
젠더 관계 (Gender relations)	특정 젠더 시스템을 특성화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와 불평등한 권력 분배를 말함.
젠더 요구 (Gender needs)	사회와 조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도 다양함. 성 인지적 정책 형성을 위해서는 성별 요구에 민감해야 함. 성별 요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사회에 인식되어 있는 전통적 성 역할로 인하여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실제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실질적인 요구임.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여성과 남성은 생존 전략과 연결되는 요구라고 할 수 있음. 둘째는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요구임.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일컫는 말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함.
직종분리 (Occupational (job) segregation)	여성의 직종분포가 남성보다 좁은 범위(수평선상의 분리)의 낮은 등급의 노동(수직선상의 분리)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고용유형과 활동수준 상의 차이를 말함.
크로스커팅 이슈 (Cross-cutting issue)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을 언급할 때 그 자체가 하나의 분야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함. 분야 횡단적 과제 또는 크로스커팅 과제라고도 함. 전략 또는 프로그램 상에서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니라 미치는 효과와 관련됨.
GAD (Gender and Development)	WID가 여성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GAD는 여성과 남성의 젠더관계에 초점을 둬. 즉,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지위와 차이에 관심을 두고 사회조직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젠더 관계의 역동성과 구조를 중시하며, 생산적 활동 뿐 아니라 재생산 활동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평등지수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임. 남녀 각각의 교육수준, 기대여명, 소득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남녀간에 성취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줌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성별권한척도 :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그리고 남녀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뜻함.
WID (Women in Development)	여성이 사회발전의 주요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의식 아래, 개발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을 강조함. 즉, 발전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행을 강조함.

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부터 OECD/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이하 OECD/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한국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받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외원조공여를 받았던 수원국 위치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 위치로 전환한 유례없는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환의 역사가 짧은 만큼 정비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2010년 한국이 OECD/DAC의 정식회원국이 되면 정기적으로 동료검토(Peer review)를 받아야 하며 동료검토에서 제기된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08년 OECD/DAC이 한국에 대해 실시한 동료검토는 젠더를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한국의 개발원조 사업에 주류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KOICA는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성 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제도 및 정책, 집행과 평가 부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개발원조의 목표 설정부터 조직 시스템 구축과 도구 개발 등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ODA 사업의 성 주류화 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년 연구보고서인 “MDGs 달성을 위한 ODA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선진국 사례 비교연구”와 2008년도 연구보고서로 출간된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성 인지적 분석” 등이 있을 뿐이다. 위 연구보고서는 국내 정책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ODA의 성 주류화의 선진국 사례들을 연구하고, 한국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현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국의 개발원조의 질적 성장을 위해 성 주류화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고 있으나, KOICA의 성 주류화 정책 기조나 정책 도구를 개발한 연구는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KOICA의 ODA 정책과 사업모델의 선진화를 위한 성 주류화 정책기조를 마련하고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었던 OECD/DAC과 그 회원국들의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 및 정책실행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KOICA의 성 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국제 사례 등을 참고로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정책 기조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단계별, 사업 부문별, 사업 유형별 정책 가이드라인 및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본문의 2장에서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국내·외 동향을 분석한다. 이런 분석의 목표는 OECD/DAC 회원국으로서 ODA 사업의 성 주류화 과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 및 도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그 논리적 근거와 기본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원조 논의에서 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것은 성 평등 관점에서 원조가 계획되고 집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은 원조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여성에 대한 투자가 빈곤퇴치와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강조되어 왔던 성 인지적 접근(GAD, gender and development)은 개발원조에서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관점을 넘어서 불평등한 여성과 남성의 제반 사회 관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 아래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성 주류화라는 실천적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여성과 남성의 경험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OECD/DAC은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 인지적 개발원조를 위한 정책과 도구를 개발하여 왔다. OECD/DAC은 1995년 채택된 성 평등 정책문서인 “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Policy Statement)”와 1998년 채택된 성 평등 지침서인 “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을 통해서 개발원조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밝히고, 젠더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규정하며, 성 주류화와 여성중점 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전략을 도입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제 성 주류화는 개발원조에 있어서 국제적 규범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OECD/DAC은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여국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 평등 정책이 의례적인 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역량 수준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OECD/DAC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원조의 방향과 성 평등 지침을 고려하여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동력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성 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지식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비전을 수립하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3장에서는 개발원조 성 주류화의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KOICA ODA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하였다.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개발원조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한국 ODA 사업을 둘러싼 제도와 정책현황, 사업집행과 평가, 조직구조 및 교육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분석한다. 이것은 KOICA가 ODA 사업의 국제동향의 흐름에 따라서 성 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KOICA는 이미 성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진단하고 향후 더 나은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해 무엇이 더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OECD/DAC에서는 공여국의 성 평등 원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 평등 정책과 집행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대부분의 공여국은 성 평등을 개발원조의 목표로 표방하면서도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OECD/DAC은 2006년 경영진과 직원이 모두 책임감을 갖고 성 주류화를 추진할 것, 해외 사무소에 경력 있는 젠더 전문가를 파견할 것, 본부와 해외 공관 직원에 대한 성 인지 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이러한 권고사항을 당장 실천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사업을 성 주류화 한다는 것은 성 평등 목표를 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의 구축과 인적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발원조 방향의 흐름 속에서 KOICA의 ODA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KOICA의 제도와 정책, 사업집행, 사업평가, 조직구조,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도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KOICA는 현재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명기한 정책기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2008~2010)」을 수립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중기전략은 MDGs 및 파리선언의 원칙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추진전략에서 여성에 대한 집중 지

원전락을 명기하고 있다. 개발원조에서의 성 평등 비전은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에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개발원조의 비전이 양성에게 평등한 개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에서의 양성 평등, 여성의 정치·사회활동 참여 강화, 여성의 인권보호라는 3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KOICA는 ODA 사업을 성 주류화하기 위하여 사업선정 및 평가에서 성 인지적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KOICA 전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젠더가 자리 잡기 위해서 KOICA는 성 주류화에 대한 기본정신 및 목표, 원칙을 정책문서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시에도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사업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KOICA는 2007년 처음으로 젠더마커를 적용하여 KOICA 사업의 성 인지성을 평가하였다. 2008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프로젝트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0년 성 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성 주류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정책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수원국과의 관계 등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지표와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KOICA는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된 PDM(Program Design Metrix, 이하 PDM)이 개발되어야 한다. PDM은 프로젝트가 선정된 후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이다. 따라서 PDM은 프로젝트 계획과 평가의 일관성 및 결과중심의 원조형태를 이루는 주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특히 PDM은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 인지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작업은 PDM의 실시와 분리되어 적용될 수 없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PDM이 적용될 수 있다면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업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KOICA는 2008년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OECD/DAC의 5대 평가기준과 함께 크로스커팅 이슈인 환경과 젠더 관련 평가기준을 첨가하게 되었다. 평가기획, 실시, 종료 시 성 주류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평가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평가지침을 개정하여 성 주류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계획과 집행 그리고 종료 등 사업추진절차 단계별로 성 인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평가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담당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 개발이 요구된다.

조직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KOICA는 2009년 조직축소 과정에서 환경여성팀이 해체되었다. 이것은 조직 내에서 젠더 이슈를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KOICA는 2009년 12월 31일 직제개편을 하면서 ‘성 인지 담당관’ 직제를 신설하였다. 성 인지 담당관 직제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KOICA가 개발원조 정책의 모든 단계에 성 인지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성 인지 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조직 내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책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향후 새롭게 신설된 성 인지 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화 시킬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KOICA 성 주류화 교육은 2009년 해외파견봉사단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시한 1시간용 강의가 있다. 이는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외파견 봉사단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교육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향후 성 주류화 관련 교육은 사업수행자들을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임직원, 사업담당자, 사업관리자(PMC)와 건설용역업체(CM) 관계자, 봉사단과 장기파견 전문가, NGO, 연구원/연구기관 전문가의 주요 역할에 따라서 직무교육, 감수성교육,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다르게 구성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4장은 3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KOICA 대외무상원조 성 주류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KOICA 전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젠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원조의 철학과 규범, 원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확보 및 빈곤퇴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성 주류화에 대한 기본정신 및 목표, 원칙을 문서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KOICA 자체적으로 대외무상원조의 성 주류화 정책기조를 채택할 필요가 있

다. 또한 OECD에서는 입법화와 별도로 대외 원조의 주요 목적과 대상을 개괄하는 포괄적인 정책기조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책기조는 개발원조에 있어서 정부의 폭넓은 개입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개발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OECD/DAC 회원국 2/3 이상이 관련 법체제를 보완하는 높은 수준의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호주,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등은 성 평등 원조프로그램의 원칙과 전략, 주요 요소 등을 정책기조를 통해서 명료화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 1절에서는 관련자료를 통해 KOICA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현재의 KOICA 정책 기조에 통합되어야 할 성 평등 정책 기조를 제시함으로써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정책기조를 채택하는 것과 함께 국가지원전략(CAS)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국가지원전략(CAS)은 선진원조기관에서 원조효과 향상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개도국의 종합적 개발효과를 고려하고 개도국 스스로 개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문(sector)별 프로그램 단위로 원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지원전략(CAS)은 과거의 미시적 개발전략에서 종합적 개발전략으로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젠더와 같은 크로스커팅 이슈가 개발전략전반에 통합되도록 다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절차별, 사업부문별,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성 인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KOICA 사업을 성 주류화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와 국가지원전략이 실질적인 집행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사업절차별뿐만 아니라 사업 지원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유형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할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는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동 사업의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도구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KOICA ODA 사업에 기여하리라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성 주류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집행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KOICA 사업 전반에서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가 중요한 아젠다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KOICA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상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그 기초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이행, 평가, 환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 도구 개발에 연구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제공한 체크리스트 등 정책 도구들은 다소 포괄적인 것으로서 개별 사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본 연구는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동향을 검토하고 공여국 차원의 연구 보고서를 반영하여 정책들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향후 보다 효과적인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개별 수원국의 사정이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과 수원국의 필요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연구가 나와야 할 것으로, 이것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연구 핵심 찾아가기 (Busy Reader's Guide)

성 주류화 개념	제 2장. p.30
OECD/DAC의 성 평등 정책 구조	제 2장. p.40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 2장. p.47
KOICA 성 평등 정책 목표와 방향(안)	제 4장. p.99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 수립 가이드라인	제 4장. p.104
KOICA 사업 절차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19
KOICA 사업 분야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30
KOICA 사업 유형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72
KOICA 조직 체계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85
KOICA 성 인지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제 4장. p.188

Abstract

Gender Mainstreaming ODA Policies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s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DAC) from 2010, much attention is being paid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the ODA activities of Korea. In particular, peer reviews conducted by the OECD/DAC in 2008 recommended gender-mainstreaming of all ODA policies, among other things. Thus, gender as a cross-cutting issue needs to be integrated into the ODA policies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create gendered ODA policy principles for KOICA and to develop practical gender-sensitive guidelines and policy tools utilized by KOICA. To carry out the study, massive literatur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policy papers are reviewed. In addition, workshops and seminars with various stakeholders and policy makers are held in order to formulate and develop gender-mainstreamed policies.

The study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sections. In the first section, we analyzed trends and issues rais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gar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analysis helped us to understand major gender issu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result became the basis for developing gendered policy principles. Secondly, a gender-sensitive analysis of KOICA's ODA was conducted. Comparing the state of international ODA with that of KOICA's ODA brought out what should be improved to make KOICA's

ODA more gender-sensitive. In the final section, gendered ODA policy principle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policy guidelines and tools are developed. The gender equity policy principles of ODA guide gender-mainstreamed policies and the policy principles are integrated into every step of a country assistance strategy. We also suggested policy guidelines, practical policy tools and checkpoints in project procedures, seven project areas (Education, Health, Governance, Rural Developmen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 Energy and Environment) and four project types (Invitation of Trainees, Projects, Dispatching Professionals and Supporting NGOs). In addition, to realize gender-mainstreamed ODA policies in KOICA,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changes and the educational system are suggested.

The newly-created gendered ODA of KOICA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by actually applying the guidelines and policy tools. To bring about substantial changes in gender-mainstreamed ODA, the betterm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for all are essential.

제1장 서론

1. 연구 목표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표는 KOICA의 ODA 정책과 사업모델의 선진화를 위한 성 주류화 정책 수립 방향을 마련하고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다.

국제개발원조에서의 ‘성 주류화’는 UN기구나 OECD/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이하 OECD/DAC) 회원국들의 협력 증진 및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서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성 주류화의 핵심 목표인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는 지난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조속한 달성과 2005년 3월에 수립된 파리선언의 궁극적 목적인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 등의 실현에 없어서는 안 될 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된 후 2010년에는 OECD/DAC 회원국이 됨으로써 개발원조협력의 기본틀과 실행체계, 원조방식 등에 대한 선진화 작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대외무상원조를 집행하는 KOICA는 이러한 국제동향과 정부 정책의지에 맞춰 개발원조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목표, 실행방법 등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원조 전반에 대한 2008년 OECD/DAC의 특별동료평가보고서(DAC Special Review)는 한국의 개발원조는 앞으로 성 인지적 관점이 강화되고 또한 성 인지적 관점이 모든 영역과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젠더 섹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만한 예산을 배정할 것과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젠더 사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실행방식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OECD/DAC 동료검토 보고서의 젠더 관련 권고사항 요지

한국은 환경과 젠더로 명명된 집중 섹터를 두고 있긴 하지만, ODA의 단 2.5%를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할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젠더에는 무의미할 정도의 재정만 배정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보다 정교한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함과 더불어, 이들 섹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한국의 개발원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이들 이슈를 주류화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¹⁾

OECD/DAC의 특별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섹터로서의 젠더(gender)’와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는 현재의 개발 정책에 성 평등 목표가 통합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두 가지 정책 전략이다. 성 주류화를 흔히 ‘섹터로서의 젠더’ 정책을 없애고 대신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성 주류화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여성의 역량 강화는 하나의 섹터로서의 젠더 정책을 필요로 하며, 성 주류화의 또 하나의 목표인 성 평등은 모든 분야의 정책을 관통하는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 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²⁾

개발원조 사업에서의 ‘성 주류화’란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전략과 모든 하위 부문의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성 평등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개념이며, 국제사회와 OECD/DAC 회원국들은 다양한 협약을 통해 거듭 그 이행의 중요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원국의 여성과 남 성 수혜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원조협력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수원국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수혜자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동일비용 대비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ODA 사업의 성 주류화는 국제개발원조사업의 기본 규범이 되고 있다. OECD/DAC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ODA 사업의 성 주류화는 필수적이다. 상황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ODA 사업의 성 주류화 정책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관련 정책 보고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년 연구보고서인 “MDGs 달성을 위한 ODA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선진국 사례 비교연구”(곽숙희 외)와 2008년도 연구보고서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성 인지적 분석”(김영혜 외)등이 있다. 이들 두 연구보고서는 국내 정책 연구로서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ROK & OECD (2008).

2) 허라금 (2008).

는 처음으로 ODA의 성 주류화의 선진국 사례들을 연구하고, 한국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현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 연구는 한국의 개발원조의 질적 성장을 위해 성 주류화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고 있으나, KOICA의 성 주류화 정책 기조나 정책 도구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는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KOICA의 ODA 정책과 사업모델의 선진화를 위한 성 주류화 정책기조를 마련하고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국내 첫 번째 정책 연구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었던 OECD/DAC과 그 회원국들의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 및 정책실행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KOICA의 성 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국제 사례 등을 참고로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정책 기조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별, 부문별, 유형별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2.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은 본문에서 3개의 장(2,3,4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ODA 사업의 성 주류화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제3장은 KOICA의 성 주류화 정책 관련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2장과 3장의 연구는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해 KOICA가 수립해야 할 정책과 실행도구 마련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본격적인 제안은 4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4장은, 2,3장의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기초하여 성 주류화를 위한 기본정책수립방향을 마련하고, 국별 사업별 성 인지적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본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개발과 성 주류화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과정 및 OECD/DAC의 성 주류화 접근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KOICA가 성 주류화 과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향과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 과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 및 도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그 논리적 근거와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장에서는 OECD/DAC의 규범에 맞는 성 주류화 개발원조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KOICA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OICA 제도 및 정책 현황을 공적 개발원조 중기전략,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등의 정책 자료들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집행 및 평가 시스템, 조직구조, 교육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KOICA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향후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주류화 정책기조를 마련할 필요성과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가이드라인, 사업의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될 필요성을 도출할 것이다. 이는 KOICA 사업 및 집행 평가시스템, 조직구조 및 교육 등이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향후 개선되거나 마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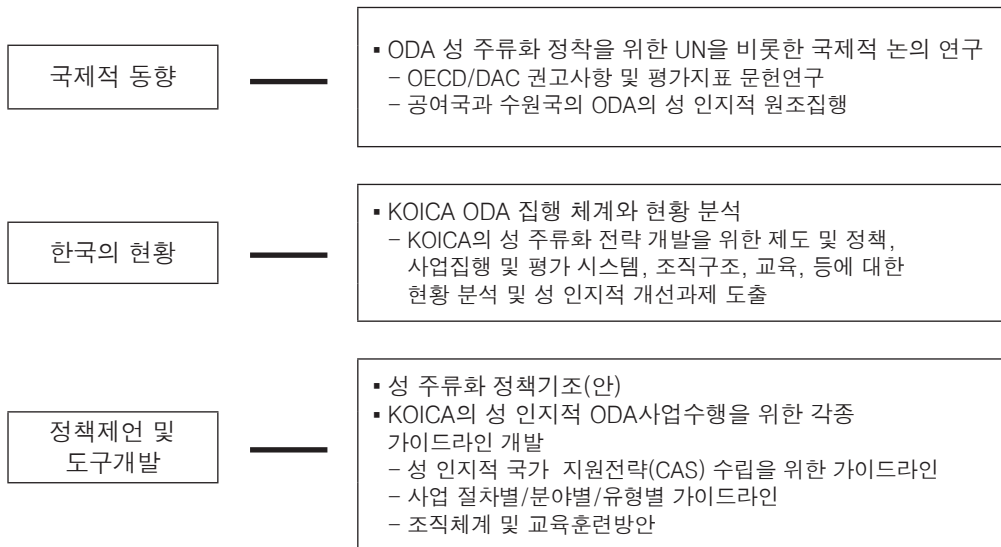
제4장은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위 제3장에서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안된 성 주류화의 정책기조 및 성 주류화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먼저, KOICA ODA 정책 및 제도화 부문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기조(안)를 개발한다. 또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가이드라인과 KOICA 사업을 위한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사업의 가이드라인 개발에는 사업 절차별, 사업 분야별,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 사업 분야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은 ODA 7개 사업분야 -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 각각의 체크 리스트와 해외의 관련 경험 사례를 제공한다. 사업 유형에는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인력파견, 민간단체 지원 등 4개 사업 유형에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조직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KOICA의 조직체계를 분석하고 각 대상자별 교육훈련방안을 제시한다. 교육 대상자는 의사결정자(임원), 사업담당자, 사업관리(PMC)/건설용역업체(CM),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NGO, 연구원/연구기관 등이 포함된다. 단, 4장에서 마련한 이들 정책 도구들은 각 섹터별 사업 및 사업 절차별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므로 특정한 개별 사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구체적인 세부 사업의 성 주류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정책 도구들은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참고로 개발하게 될 것이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개별 수원국의 사정이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과 수원국의 필요 등 역시 충분히 반영한 정책 연구 및 도구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이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나. 연구 전략 및 방법

1) 연구 전략

연구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구과정을 단계화한다. 연구 과정은 다음의 3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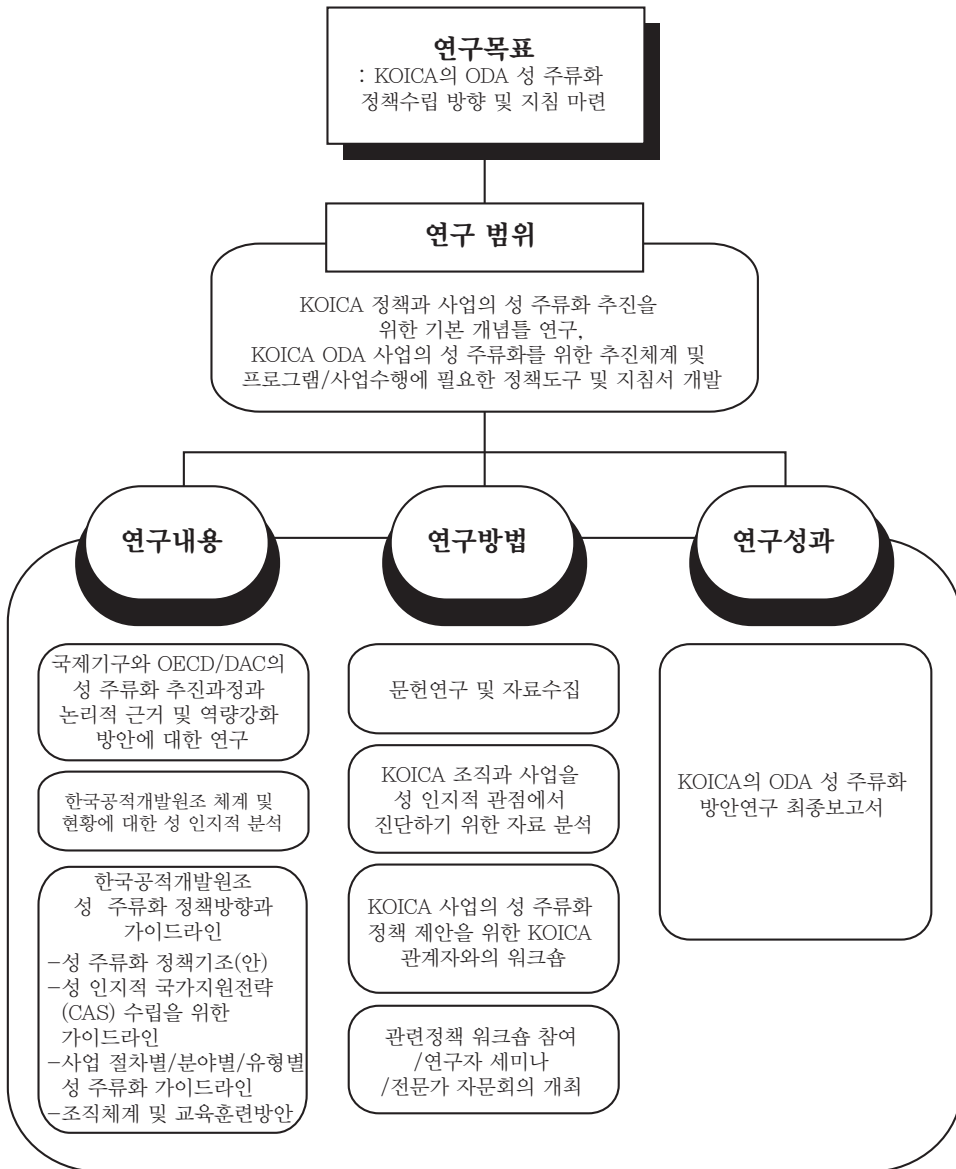
[그림-1] 연구과정 단계별 목표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 및 자료 연구이다. 여기에는 ODA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UN을 비롯한 국제적 논의 연구 및,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문헌연구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국제적 동향에 맞는 효과적인 추진체계와 정책도구 개발을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를 위해 KOICA의 중장기 정책 자료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 착수 시부터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다. 본 연구가 개발하고자 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은 KOICA의 관련 정책 추진 체계 및 조직 구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므로 KOICA 관련 정책 담당자들과의 대화 및 포괄적 연구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밖에 정책담당자 포함 워크숍/세미나/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성 주류화의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그림-2] 연구 전략



제2장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국제 동향

201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정식 OECD/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이하 OECD/DAC)의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OECD/DAC의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OECD가 정하는 발전과 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 위임된 책무를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³⁾ 성 주류화는 OECD/DAC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 중의 하나로서,⁴⁾ KOICA 공적개발원조(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성 주류화는 이제 필연적 정책과제가 되었다.

본 장에서는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정책의 논리적 근거와 기본틀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KOICA ODA 성 주류화 추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개발논의에 성 평등 이슈가 통합되어온 과정과 21세기의 개발원조에서의 성 평등 이슈들을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결의문과 정책실행을 위한 지침서 및 평가 도구 등을 분석하여,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및 주요 정책영역과 핵심과제들을 도출한다. 제3절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의 실천과 관련하여, OECD/DAC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인 성 주류화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7대 역량개발 과제들을 제시한다. 다음 제4절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 원조기관 자체의 역량수준

3) 외교통상부(2009)가 발간한 「OECD DAC 개황」(62쪽)에 따르면, 각 회원국의 OECD 규범수락은 가입 시 OECD 제 규범(통상 OECD acquis로 불림)에 대한 수락 및 유보 입장을 가입문서에 표시하여 OECD 회원국 가입초청 협정의 형태로 OECD측과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가입 후의 규범수락행위는 정책방향에 관한 정치적 공약 행위로 그 규범자체가 조약으로서의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OECD의 규범이행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국별 검토회의(Country Review)를 통한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 등 독특한 이행확보 수단을 가지고 있다.

4) 현재 OECD/DAC의 핵심전략으로는 빈곤감축 및 MDGs(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빈곤층 중심의 성장, 개발에 대한 민간참여 독려,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수원국의 주인 의식(Ownership) 강화, 분쟁방비 및 평화구축,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등이 있다.

에 따라 추진해야 할 성 주류화 과제들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과제들이 KOICA ODA의 성 주류화 추진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1.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 배경

이 절에서는 우선 개발과 성 평등 이슈의 통합과정에서 성 주류화 접근이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21세기의 빈곤, 인권 등 개발원조의 핵심 이슈들과 성 평등의 가치와 목표, 실천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가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개발과 성 평등 관점의 통합과정

현재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에서 중심 기조를 이루는 ‘성 주류화’ 개념은 2차 대전 이후 개발과 근대화 전략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계와 국제사회의 오랜 연구와 실천과정에서 심화 발전되어 왔다.

유엔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고 그 해를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였고,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여성개발 전략으로 WID(Women in Development; 개발에 여성통합, 이하 WID) 접근을 채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부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개발원조기구와 정부, NGO들이 WID 접근을 채택하게 되었다. WID 접근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여성들을 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였다.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법과 제도, 문화의 개혁과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반 성별에 기반한 분업 및 개발과 근대화 전략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WID 접근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여성과 남성 간의 격차는 기존하는 구조 내에서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나 WID 접근에 기반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WID 접근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의 이슈가 점차 주변적 프로그램과 별도의 사업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 문제였다. WID 접근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성 불평등의 원인이 여성들을 공적영역에서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사회구조에 있으며, 여성들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속에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WID 접근은 개발 자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⁵⁾

이러한 비판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학계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GAD(Gender and Development; 성 인지적 접근, 이하 GAD) 접근을 부상시켰다. GAD 접근은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관계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젠더는 사회구조의 불평등에 대한 하나의 분석적 도구로서 개념화 되었다. GAD 접근은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분리된 여성들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요구의 차이에 초점을 둔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 평등의 증진은 곧 여성들의 요구와 이해, 관점들에 대한 명백한 관심을 내포해야 한다는 것이 GAD 접근의 요지다. 따라서 GAD 접근의 목적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 평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그러나 GAD 접근은 유엔이나 OECD의 공식적인 케치프레이즈로 채택된 적은 없다.⁷⁾

유엔은 1985년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WID 접근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추진전략으로 젠더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GAD 접근을 강조하였다. GAD 접근이란 남성과 여성의 삶은 그 자체로 차이를 갖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이 남녀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성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남녀의 삶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젠더관점을 개발전략과 정책에 통합하려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95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나온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GAD 접근 방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성 주류화 전략을 채택했다.⁸⁾ 이러한 국제사회의 결정을 반영하고 있는 OECD/DAC의 1998년도 성 평등 지침서(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또한 공식적으로 GAD 혹은 성 주류화 접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GAD의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전

5) ILO (2000).

6) Ibid.

7) 특히 OECD는 성 평등 정책에서 특정한 케치프레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DAC (1998) 참조함.

8) JICA (2007).

반적인 정책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개발의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편 세계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가속화되자 UN은 2000년대 진입을 계기로 1990년대에 논의되었던 개발의제들과 목표를 통합·재구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인권에 기반한 개발 및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 선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달성해야 할 8대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설정하였다. 이 중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는 MDGs의 달성을 위한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이자, 여타 MDGs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은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들이 여성인권과 성 평등 실현에 대한 책무를 받아들인 이상 책임 있는 실천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전한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개발 주체들의 공약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발간된 유니페ム(UNIFEM)의 ‘세계여성의 진보에 관한 보고서 2008/2009:젠더와 책무성(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08/2009: Gender & Accountability)’⁹⁾은 2015년을 시한으로 하는 목표들이 불과 6년 남짓하게 남은 시점에서,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의 진전이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성 주류화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된 개발협력의 효과성, 책임성과 신뢰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나. 21세기의 개발과 성 평등 이슈

개발 원조의 성 주류화는, 1990년대부터 OECD/DAC이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간중심의 개발협력’이 성 평등의 실현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고 하는 논리에 근거를 둔다.¹⁰⁾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된다.¹¹⁾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인

9) UNIFEM (2009).

10)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제 2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OECD/DAC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은 1990년대부터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 빈곤퇴치, 보건, 교육, 성 평등과 발전 등 범세계적 과제에 치중하면서 ‘인간중심의 개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인권과 윤택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금순, 김수암, 조한범, Lynn Lee (2008).

11) 홍승아 (2009).

의 인권과 삶의 질 제고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빈곤퇴치, 보건과 교육개선, 굿거버넌스, 성 평등과 여성인권 증진 등을 기본목표로 하는 21세기 국제개발협력 공동체가 공유하는 궁극적 목표 혹은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개발, 빈곤 감축, 인권의 실현이 복잡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최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식에서, 성 평등은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성 평등과 여성인권의 개선이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정의의 문제로서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목적일 뿐 아니라, 모든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간중심적 개발’은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에 책임질 수 있도록 인간의 능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UNDP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개념,¹²⁾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UNICEF, UNIFEM, UNDP 등이 도입하기 시작하여 21세기 들어 국제기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Human right-based approach to development)’과 깊이 연관되고 있다.¹³⁾ 이는 1990년대부터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개발 개념이 점차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그 외연을 확대해 온 결과이다. 개발의 목적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수입의 증가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창조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개발은 그 목표를 완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성 평등과 여성의 인권은 다자간, 양자간 공적개발원조기구들이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대화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다.

12) 인간개발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0년 인간개발보고서 「인간개발의 개념과 측정(Human Development Report: Concept and Measurement of Human Development)」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위 책, 69쪽).

13) 국제협력에서 "인권중심의 접근방법(Human Rights-based Approach:HRBA)"의 주류화는 1997년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개혁의제 중의 하나였다. 이후 UNICEF, UNIFEM, UNDP 등 다수의 유엔기구들이 인권의 주류화 접근을 채택하여, 2003년 5월 개최된 HRBA에 관한 국제기구간 워크숍에서는 이에 관한 세 가지 개념적 함의를 담은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1) 모든 개발협력프로그램과 정책, 기술지원은 세계인권선언과 여타 국제인권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의 실현을 보다 증진시켜야 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여타 국제인권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기준과, 이로부터 파생된 원칙들은 모든 부문에서의 모든 개발협력과 프로그램계획,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의 모든 과정을 지도한다. 3) 개발협력은 책임자의 의무준수역량과 인권소유자의 권리주장 역량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water.wiki.net/index.php/Human_Rights-Based_Approach#The_UN_Common_Understanding_on_HRBA 참조).

1) 개발, 빈곤, 성 평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에서 가장 중시되는 지배적인 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¹⁴⁾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빈곤을 감축시킨다”는 것이다.

빈곤은 단지 소득이나 재정적 자원의 결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개발협력에서 논의되는 빈곤개념은 고용, 생산수단의 소유, 저축과 같은 물질적 재화와 기회의 결핍뿐만 아니라 건강, 신체적 자율권, 공포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소속, 문화적 정체성, 조직 역량, 정치적 영향력 행사 능력, 존경과 존엄성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육체적 사회적 자본의 결핍을 의미한다.¹⁵⁾ 이러한 사회적 자원과 혜택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에서의 불평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적 성별관계인 젠더(Gender)이다. 따라서 불평등한 성별관계를 바로잡는 성 평등은 개발 정책과 전략, 실행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¹⁶⁾

2) 개발, 인권, 성 평등

인권은 성 평등의 윤리적 근거가 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이후 ‘여성들의 권리도 인권’이라는 의식이 개발개념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오랜 경험과 반성이 필요했다.¹⁷⁾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인권개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진전된 중요한 법적 도구들과 국제적 기준, 그리고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가)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9)

14) 세계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가속화되자 UN은 2000년대 진입을 계기로 1990년대에 논의되었던 개발의제들과 목표를 통합 및 재구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인권중심적인 개발 및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선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달성해야 할 8대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설정하였다.

15) 이금순, 김수암, 조한범, Lynn Lee (2008).

16) European Commission (2004).

17) 이하 여성인권에 관한 협약내용들에 관한 설명은 Bunch, Charlotte (1999), pp. v-vii.을 참조함.

- ① 이 협약은 종종 국제적 여성인권을 위한 법안으로도 불리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과 인격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한국은 1984년 이 협약의 비준국이 되었으며, 1985년부터 이 협약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 ② 이 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정책의 기본틀을 만들고, 국제적 의제들을 확대하는데 주요한 도구이다.
- ㉞ 협약은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하나의 영감이 되어주었다. 여성집단과 네트워크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빈곤, 법적 지위의 제한, 상속 및 재산소유권 제한, 신용에 대한 접근권 제한등의 차별과 싸우는 데 이 협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 ㉟ 또한 협약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의 성 평등을 지지하는 국내 법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헌법의 조항들을 강화하였으며, 조약에 규정된 원칙과책무들과 일치하도록 기존의 법규들을 개정하였으며, 판사들의 판결에서도 조약이 활용하였다.

나)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 ① 세계 171개국 정부가 승인한 <비엔나 선언 행동프로그램>에 의하면, “여성과 소녀,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과 불가분리의 통합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온전하고 동등한 참여와, 성별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는 국제사회의 최우선적 목표이다.”
- ② 이로써 성별과 관련된 전통과 편견, 사회·경제·정치적 이해관심 등으로 배제되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여성문제들이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었다. 특히 삶의 영역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과 구분되는 사적 영역 속에서 가족이나 종교, 문화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여성인권 침해의 경험을 드러내어 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1995)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189개 참가국에 의해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은 “모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천부적 인권”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1975년 유엔의 여성의 해에서 제시되었던 전반적인 비전인 ‘평등, 발전과 평화’에 대해 13개 영역에 걸쳐 관철되어야 할 구체적인 원칙들을 명시하여, 모든 사회가 국제적인 공약에 따라 일관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3) 크로스커팅 개발 이슈로서의 성 평등

성 평등은 OECD/DAC과 그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추구하는 기본정신과 원칙들 중의 하나이다.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는 굿거버넌스와 인권과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개발 이슈 전반을 가로지르는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간주된다.

성 평등은 다른 크로스커팅 이슈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중요한 개발 목표이지만 빈곤감소와 다른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서도 도구적이다. 성 평등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달성과 같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든 다른 목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 평등은 또한 보편적인 초등교육이나 보편적 보건의료와 같은 특정 섹터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 과제로서 간주된다.

개발 원조에서 모든 부문을 관통하는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측면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것은 전반적인 개발협력의 질을 담보(quality assurance)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 주류화는 사회적 · 경제적 · 지리적 · 정치적 맥락에서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의 서로 다른 경험과 평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일련의 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OECD/DAC 고위급 회담의 합의들¹⁸⁾은 개발협력의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크로스커팅 이슈들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DAC의 모든 회원국들은 성 주류화 접근의 강화를 위해 개발협력국과의 정책대화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뿐만

18) 2005.2.28-3.2(3일)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선언’, 2008.9.2~9.4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에 관한 제3차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등을 말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부록 3.을 참조할 것.

아니라, 성 주류화를 위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성 인지적 사업관리 기술의 전문화, 즉 기관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주요과제

다음은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에 관한 OECD/DAC 고위급 회의의 주요 정책결정¹⁹⁾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OECD/DAC 회원국들이 합의한 성 평등 정책의 목표와 정책과제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우선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과정- 즉 정책결정과 집행 및 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주요과제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OECD/DAC 성 평등 정책 지침서들을 분석하여, 개발협력대상국의 성 주류화 추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 내부의 정책과제들을 도출한다.

가.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과정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은 OECD/DAC의 최상급회의인 OECD/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HLM)의 논의를 거쳐 채택되는 결의문을 통해 확정된다.²⁰⁾ OECD/DAC의 회원국들은 원조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책대화에서 도출된 일정한 가치와 목적·기준들을 공유하여 공동보조를 맞출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개발원조의 관리와 관련하여 성 평등 지침서들을 발간한다.

성 평등 정책에 관한 지침서의 작성은 OECD/DAC 산하의 성 평등 작업반(OECD/D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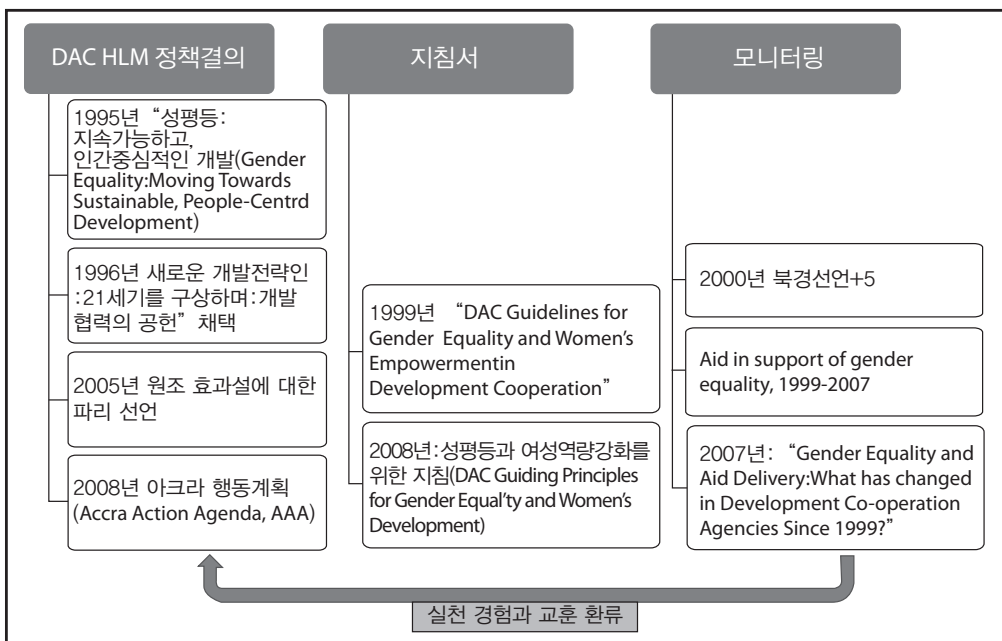
19) OECD (1995); OECD (1999).

20) OECD/DAC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 HLM)는 OECD/DAC의 최상급회의로서 매년 4/5월경 프랑스 파리의 OECD본부에서 개최되며, OECD/DAC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 지침·권고 및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회의에는 OECD/DAC 회원국의 개발원조 담당 각료급 인사 또는 원조기관장, OECD/DAC 비회원국 고위급대표(업저버), 세계은행, UNDP 등 주요 국제개발기구 고위급 대표 등이 참석한다(외교통상부, 2009: 19~20쪽).

Working Party on Gender Equality: GENDERNET)과 OECD 사무국이 담당한다.²¹⁾ 한편 OECD/DAC은 성 평등 정책의 실천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경험을 실증적·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보고서들을 통해 OECD/DAC의 모든 활동영역에 성 평등 목표를 통합할 수 있도록 OECD/DAC 회원국들과 협력대상국들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사례와 혁신적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은 OECD 정책의 결정,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 OECD/DAC의 성 주류화 추진 방식: 정책결의, 지침서 발간 & 모니터링



21) OECD/DAC 산하에는 2개의 작업반과 6개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으며, 3~4년 주기로 Mandate 검토, 일반적으로 연 1~3회 작업반별 전체 회의와 2~4회 task-team 회의를 개최한다. GENDERNET에는 OECD/DAC 회원국, 영구 옵저버(UNDP, 세계은행), UNIFEM 등 관련 UN 여성기구, 지역개발 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 상호 연관성과 관심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교환을 위해 UN Inter-Agency Network on Women and Gender Equality(IANWGE)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외교통상부, 2009: 19~20, 28~29쪽).

나.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핵심과제

여기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OECD/DAC의 성 평등 정책 결의문, 지침서, 조사연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를 파악하고 주요과제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현행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배경

현재 통용되고 있는 OECD/DAC 성 평등 정책은 1995년 북경 여성대회에 앞서 동년 5월 OECD 고위급 회의에서 승인된 “성 평등: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을 향하여(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라는 정책성명서를 기초로 하여 발전되었다. 이 성명서는 당시 개발 목표의 변화와 관련된 성 평등 정책의 위상을 재정립²²⁾한 것으로,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을 성취하려면, 여성과 남성 역할의 평등을 향한 진보가 필수적”이라는 OECD/DAC의 새로운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이 새로운 합의내용의 핵심은 성 주류화의 추진을 OECD/DAC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다.²³⁾ 이러한 결정의 함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 평등을 개발의 주요 목표로 삼는 것,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성 평등 목표를 중심축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개발성과의 개선을 위해 성 주류화 전략의 추진 책무를 맡는 것, 즉 실제 개발활동과 정책 전반에 성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성별격차 해소에 주력하며 여성인권 존중을 지지하는 것, 즉 성 평등과 여성인권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모두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²⁴⁾ 즉 성 주류화는 개발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 행정 그리고 관리 전반에서 성 평등의 가치와 목표, 실천방법을 공유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전략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8년의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은 1996년 결의된 새로운 개발전략인 “21세기를 구상하며: 개발협력의 공헌(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강조된 ‘국제원

22) OECD (2006).

23) OECD (2000).

24) 이러한 해석은 UNDP 발전정책국 민주적 거버넌스 그룹 정책전문가인 테니 목파다이 (2005) 에서 설명한 성 주류화 개념을 참조한 것이다.

조시스템의 일관성과 효과성'과 이에 따른 세 가지 개발협력의 원칙들 - '인간중심적 개발', '현지(Local) 주도권', '글로벌 통합과 국제적 파트너십' - 을 반영하여, 정책의 비전에 '효과적인 개발' 목표를 추가하고 추진전략에서 '성 주류화'와 '여성역량강화' 외에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을 추가했다.

다음 2008년의 지침서는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에 관한 제3차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아크라 행동강령에서 강조된 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빈곤과 불평등의 감축'과 '파트너십의 강화'의 원칙을 실천과 성과, 영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들을 담고 있다. 2008년도 보조지침서의 기본적 특징은 '파트너십'의 의미가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간의 관계를 넘어, 민-관-학, 다자적-양자적 원조기관들,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 전략에 대한 세부 지침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영역과 핵심과제들을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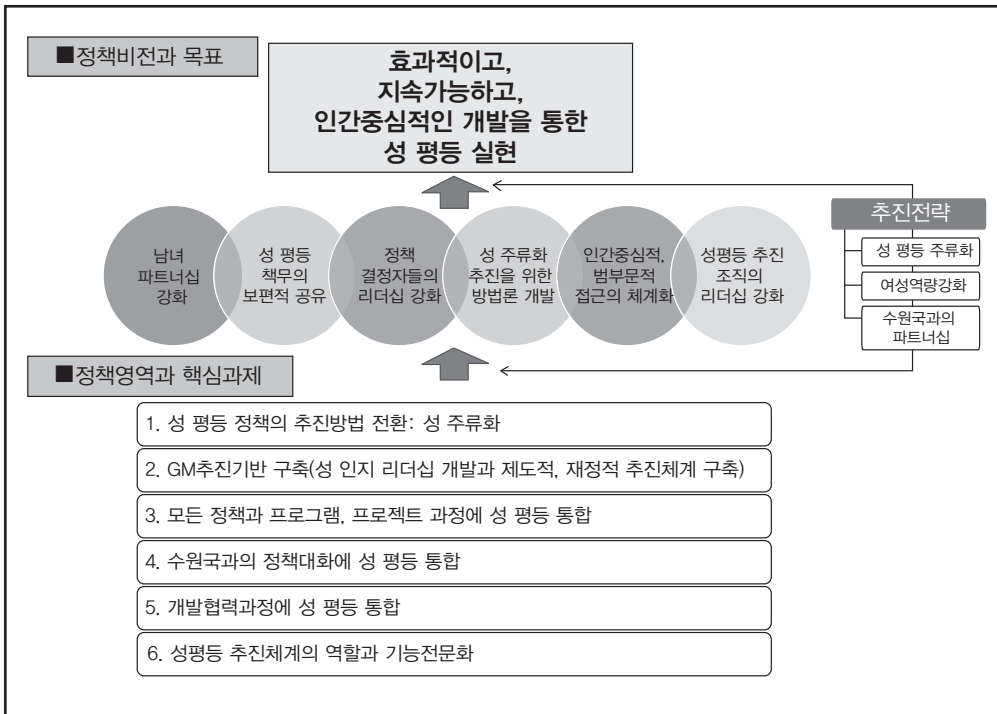
2)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은 정책비전과 6대 목표, 그리고 6대 정책영역과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가) 비전: 우선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은 개발원조정책에 성 주류화와 여성의 역량강화 접근을 도입하여 성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그림-4] 참조).

나) 6대 기본 목표: OECD/DAC은 1995년 유엔의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향후 10년간 개발협력원조에서 이뤄야 할 6대 성 평등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녀 파트너십 강화, 성 평등 추진 책무의 공유, 고위직 관리들의 리더십 강화, 성 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역할전환, 성 평등 추진을 위한 분석도구·방법론·업무도구 개발, 범부문적 접근 및 인간중심적 접근의 체계화이다([표-1] 참조).

[그림-4]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이러한 목표들은 현재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5년의 파리선언과 2008년의 아크라 행동강령 이후 발행된 2008년의 보조지침서에 따르면, 2007년 OECD/DAC의 성 평등네트워크(The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는 1998년의 지침서에서 설정한 성 평등의 목표나 접근방식이 변환된 원조양식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²⁵⁾

다) 추진전략: 이러한 6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은 성 주류화, 여성의 역량강화,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이다.

라) 주요 정책영역과 핵심과제: OECD/DAC은 성 평등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6대 정책 영역과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6대 주요 정책 영역과 핵심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2] 참조).

25) OECD (2008).

[표-1] OECD/DAC의 성 평등 실현 목표

남녀 파트너십 강화	성 평등 실현의 책임은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행위자들이 광범위하게 분담해야 한다.
성 평등 추진 책무의 공유	기존의 성 평등 추진책무는 대부분 소수의 여성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된 조직원들의 책무였지만, 이는 경제학자와 기술자들을 포함하는 정책분석가, 기획자, 관리자, 프로그램 인력 등 모든 조직원들 공동의 책무이다.
고위직 관리들의 리더십 강화	성 평등 목표는 고위직 관리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원과 컨설턴트들로 하여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다.
성 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역할전환	이들의 역할은 촉매적, 자문적, 지원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성 평등 추진을 위한 분석도구, 방법론, 업무도구 개발	성 분석과 계획방법론, 성별영향에 대한 양적 지표들의 심층개발은 성 평등의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범부문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의 체계화	사회문화적, 경제적 분석을 포함하는 범부문적 개발접근에서 요구되는 보다 체계적인 “인간중심적” 접근이다.

[표-2]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정책영역과 핵심과제

정책 영역	핵심 과제
1. 성 평등 정책의 접근방법 전환 (성 주류화)을 위한 핵심과제 영역들	1.1. 개발협력 의제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남녀의 이해관심과 요구의 차이 반영 1.2. 성차별적 구조와 불평등의 요인 분석 1.3. 성차별적 문화 개선 1.4. 성차별적 경제구조의 개선 1.5.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에 여성참여 증진 1.6. 성 평등과 여성인권 존중 의식제고
2. 성 주류화 추진기반 구축	2.1. 정책결정자들의 성 인지 리더십과 책임의식 강화 2.2. 조직원·관계자들의 성 평등 실무역량 강화 2.3. 성 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방법 개발 2.4. 성 평등 실무 기술지원 및 훈련예산의 재배치 2.5. 목표, 지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3.1.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에 관한 연구와 자문에 성 평등 이슈 포함 3.2.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프로젝트 결정, 기획, 실행, 평가과정에서 여성역할 증진 방안 마련 3.3.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프로젝트 개발에서 성 인지 분석 기법 활용
4. 수원국과의 정책 대화에 성 평등 이슈 통합	4.1.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국별 원조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대화에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이슈 포함 4.2. 원조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역량 개발과제에 대한 정책대화에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이슈 포함

5. 개발협력 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5.1. 성 평등을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본 목표로 설정 5.2.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접근 방식 구현 5.3. 프로그램 접근, 구조조정 프로그램, 공공예산 분석에 성 평등 이슈 통합 5.4. 국가지원전략에 성 평등 이슈 통합 5.5. 참여적 개발, 굿거버넌스, 인권옹호, 갈등해결 등 특수정책분야에 성 평등 이슈 통합 5.6. 수원국의 성 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역량강화 및 도구개발 지원 5.7.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통한 성 평등 목표 공유노력 추진 5.8. 성 평등 목표와 행동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식과 역량 강화노력 지원 5.9. 원조기관의 정책역량 강화와 원조성과 관리
6. OECD/DAC 성 평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 전문화	6.1. 성 평등 추진 책무의 공유 6.2. 성 평등 전문가들(부서, 자문관, 외부 전문가들)의 역할과 기능 전환

① 정책영역(1): 성 평등 정책의 추진 방법 전환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추진 방법을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㉔개발의제에 여성과 남성의 이해관심과 요구의 차이를 반영하고, ㉔성차별적 구조와 불평등의 요인을 분석하며, ㉔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고, ㉔성차별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㉔거버넌스와 시민사회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㉔여성의 인권존중을 제고하는 것이다.

② 정책영역(2): 성 주류화 추진기반 구축

성 주류화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㉔정책결정자들의 성 인지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㉔조직원/관계자들은 성 주류화 전략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㉔성 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고, ㉔성 평등 실무 기술 지원 및 훈련을 위한 예산을 증대하고, ㉔OECD/DAC 회원국들은 전반적인 제도적 수준과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준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치 설정, 지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③ 정책영역(3): 정책과 프로그램 · 프로젝트 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정책과 프로그램 · 프로젝트 과정에서 성 평등 이슈를 통합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㉔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에 관한 연구와 자문에 성 평등 이슈를 포함해야 하며, ㉔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 프로젝트 결정, 기획, 실행, 평가과정에서 여성역할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㉔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 프로젝트 개발에서 성 인지 분석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④ 정책영역(4):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에 성 평등 이슈 통합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에 성 평등 이슈를 통합하기 위해 ㉔경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국가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대화에 성 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이슈를 포함해야 하며, ㉔원조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제도 구축과 국가역량개발에 관련된 대화 및 원조 프로그램 수립 과정에는 협력국의 성별요구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성별격차 감축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파악하는 업무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정책영역(5): 개발협력과 원조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개발협력과 원조과정에 성 평등 이슈를 통합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㉔성 평등을 국가발전 위한 전략적 기본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㉔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접근 방식을 구현해야 하며, ㉔프로그램 접근, 구조조정프로그램, 공공예산 분석에 성 평등 이슈를 통합하며, ㉔국가지원전략에 성 평등 이슈를 통합하고, ㉔참여적 개발, 굿거버넌스, 인권옹호, 갈등해결 등 특수정책분야에 성 평등 이슈를 통합하고, ㉔수원국의 성 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및 도구개발을 지원하고, ㉔수원국들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성 평등 목표를 공유하며, ㉔성 평등 목표와 행동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식과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㉔원조기관의 정책역량 강화와 원조성과 관리를 해야 한다.

⑥ 정책영역(6): OECD/DAC 성 평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 전환

OECD/DAC 성 평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㉔성 평등 추진 책무를 OECD/DAC 자체와 그 산하 실무그룹과 사무국 모두가 이행하는 일상 업무로 전환해야 하며, ㉔성 평등 전문가들의 역할을 촉진적, 자문적, 지원적 기능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조정해야 한다.

3.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 과제

OECD/DAC 회원국들은 다음 두 가지의 상호보완적인 의무가 있다.

-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정책과정과 성과물들(분석, 정책, 정책방침서 등)에 성 평등에 대한 고려를 핵심의제로 주류화 해야 한다.
- 수원국의 성 평등 증진 노력을 지원한다. (성 평등을 정책, 전략, 프로그램에 주요목표로 주류화 시키기 위한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포함)

OECD (1999).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서 기술한 OECD/DAC 고위급회의에서 결정된 성 평등 정책의 비전과 목표, 정책영역과 핵심과제들과 관련하여, OECD/DAC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과 그 해결을 위해 OECD/DAC 지침서가 제시하고 있는 세부과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다.

이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추진체계, 조직원들의 의식과 실행역량(capacity)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라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성 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가.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추진 역량강화의 필요성

성 주류화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OECD/DAC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무엇보다도 자체 조직의 역량강화이다. OECD/DAC의 지침서에서 강조되는 회원국의 주요 역할은 국제적 협정의 이행을 옹호·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발협력 대상국들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OECD/DAC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지침들은 국제사회의 성취와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들과 체제전환국(countries in transition)²⁶⁾에 대한 공적개발협력을 위한 접근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²⁷⁾ 일부 선진 원조기구들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OECD/DAC 회원국들과 개발협력대상국들이 앞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내기 힘든 과제들이다.

최근 1998년의 지침서 이후 진행된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추진현황을 조사·보고한 OECD(2007)의 “1999년 이후 개발협력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What has chan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since 1999?)”라는 보고서²⁸⁾가 강조하는 바도 성 주류화를 위한 회원기관들의 자체 역량강화의 필요성이다.

26) 중부와 동부 유럽(CEE)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해안의 국가들(Baltics),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이 해체된 후 성립된 개별 독립공화국들의 연합체(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등 구 사회주의 체계에서 시장경제로 이행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말함. 그러나 보다 넓게는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국가, 엄격한 규제 하에 있었던 아시아형 경제, 남미의 탈독재 국가들, 아프리카의 경제저발전국 등을 포함한다(IMF, 2000).

27) OECD (1999).

28) 2006년 2월-3월 사이에 22개 회원국의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007년도에 발간된 OECD (2007) 을 말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DAC 회원기관들이 이미 명목상 성 평등 정책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성 평등 정책을 도입한 시기는 다음 표와 같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부터 2005년까지 분포되어 있어, 이들 간의 성 주류화 추진 경험과 역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3] OECD/DAC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처음으로 성 평등 정책을 채택한 해 (N=27)

연도	1976-1984	1985-1994	1995-2004	2005	알려지지 않음
기관 수	5	7	9	2	4

OECD (2007).

실제로 동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성 주류화 접근방법과 부문으로서의 여성사업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중적 접근방식이 회원국 사이에서 일반화된 시기는 지난 10년 사이이다. OECD/DAC의 성 평등 지침서가 발간된 1999년 이후 성 평등 정책의 강화를 위해 정책을 전면 수정하거나 일부 개정한 원조기관들은 총 27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는 결국 절반 이상의 기관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성 주류화 정책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1)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전반적인 개발협력의 기본목표로 설정하는 행동, 2) 이를 여타의 기본목표들(인권, 갈등해소, 빈곤감축, 경제발전, 교육, 보건,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성취하기 위한 세부 목표에 포함시키는 행동, 3) 이러한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 지원전략과 부문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행동의 정도 또한 원조기관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27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개발협력에 관한 최상위의 정책기조(개발원조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의 중장기 ODA 계획 등)에서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 18개 기관은 일부 혹은 전체 부문별 정책에서 성 평등이나 여성지위향상을 촉진하는 행동계획들을 적시하고 있어, 개발의 다른 기본목표들과 성 평등 목표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 OECD/DAC의 지침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가지원전략과 부문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서 성 평등 목표를 반영하는 정도를 보면, 아래 도표와 같이 각 수준별 활동내용에서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한 기관의 비율은 더욱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3개의 기관만이 국가지원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 활동 전반에 성 평등 목표를 반영했다고 한다.

[표-4] OECD/DAC 수원국 원조기관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국가지원전략에서 젠더관련 활동들 (%)

산출물	대부분 젠더관련 활동을 가짐	일부 젠더관련 활동을 가짐	매우 소수만 젠더 관련 활동을 가짐	모집단 수
프로젝트	26	63	11	27
프로그램	23	58	19	26
국가지원전략	48	36	16	25

OECD (2007).

그리고 OECD/DAC 회원국의 27개 원조기관들 대부분이 개발원조정책에 성 평등 목표의 추진원칙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혹은 모든 수원국과의 개발원조를 위한 협정에서 성 평등을 전략적 목표로 포함시켰다고 대답한 기관은 3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경행동강령에 대한 승인에 따른 여성인권 증진과 성 평등 실현에 대한 책무이행 수준이 저조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으로, 동 조사보고서는 공여국 원조기관들의 취약한 성 평등 추진체계, 사업절차의 관리 부실,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예산투자 저조, 정치적 의지의 박약 등을 문제삼고 있다.²⁹⁾ 이는 수원국 뿐만 아니라 회원국 자체의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의 지침서는 “개발협력에서의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들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OECD/DAC 회원국들의 역량에 달렸으며, 따라서 회원국들은 모든 개발협력과정에 성 평등 실현 목표를 통합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서 “개발원조를 위한 파트너십에서 OECD/DAC 회원국들의 의무 중 하나는 성 평등과 여성권한강화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³⁰⁾ 이는 각국의 성 주류화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각 수준에 맞는 목표와 과

29) OECD (1999).

30) OECD (1999).

제들을 도출하여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여기서는 KOICA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7대 성 주류화 역량개발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표-5] 참조). 이 7대과제는 연구자가 UNDP의 역량평가개념틀(UNDP Capacity Assessment Framework)³¹⁾과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방행정혁신 컨설팅 길잡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평가기준들을 참고하여 도출한 것이다.

[표-5] KOICA의 성 주류화 역량개발영역

(1)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리더십 개발
(2)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3) 성 주류화 추진체계
(4) 개발협력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GM프로세스
(5) GM 종합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6) GM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7) GM 교육 및 학습

1)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리더십 개발

회원국들의 역량개발영역 중 OECD의 성 평등 정책과 지침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성 평등 이슈에 반응할 줄 아는 리더십 개발과 책임성 강화이다. 정책결정자인 기관장은 성 주류화 전략 및 방법, 도구에 대해서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하며 성 주류화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간간부는 성 주류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성 주류화 추진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높은 이해를 해야 한다. 또한 성 주류화 추진 조직은 기법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높은 수행의지를 가져야 한다.

31) UNDP (2007).

[표-6]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 리더십 개발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정책결정자들의 관심, 이해도	기관장의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인권과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실 행관리방식에 대한 관심과 철학
	기관장의 성 주류화 전략과 방법, 도구에 대한 이해수준
	기관장의 성 주류화 추진 참여정도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노력
	기관장의 성 주류화 추진 현황 보고 및 피드백 지속적 점검
중간간부 리더십	중간간부의 성 주류화 추진에 대한 필요성 공감
	기관의 성 주류화 비전과 전략의 이해수준
	해당조직의 성 주류화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의 이해도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 주류화 관심유발정도
	성 주류화 추진 기법과 프로그램의 이해수준
성 주류화 추진 전담조직(성 평등 책임관 및 전문부서)의 리더십	성 주류화 전담조직의 수행의지와 관심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와 기법, 프로그램의 이해수준

2)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ODA의 비전에 성 평등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고, 인권, 갈등해소, 빈곤감축, 경제발전, 교육, 보건, 지속가능한 환경 등 여타 개발목표들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ODA 전략 계획에는 지역별, 국별 개발원조계획에 성 평등 기본계획을 포함시키고, 지역별, 국별, 부문별 정책과 구조조정계획 수립 시 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책과 계획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계획에는 성 평등 실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이 명시된 정책과 전략을 구축하고, 성취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및 평가기준 등을 포함해야 한다.

[표-7]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³²⁾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ODA의 비전	기관전체의 성 주류화 정책과 추진전략
	성 주류화 비전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성 주류화 비전과 개발원조 전략의 연계성
ODA전략 계획	사업과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수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전략 구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계획	계획의 명확한 목표 제시
	계획의 기대효과 구체성
	실행주체의 명확성
	현장의견의 반영정도

3) 성 주류화 추진체계

성 주류화 추진체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 추진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 주류화 추진 담당 구성원의 의지와 열정,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외부의 자문체계를 구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성 주류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조직전반의 실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조정회의와 조직단위별 성 주류화 담당관을 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적으로 사업과정 모니터링을 체계화해야 한다.

32) 이러한 과제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위에서 가능한 것이나, OECD/DAC의 지침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성 평등 주류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 주류화 전략 도입을 위한 기본정책 개발, 개발협력에 위한 성 평등 기본계획 수립, 성 평등 전문 인력 개발, 성 평등 이슈에 반응하는 업무도구와 방법 개발 등은 각 회원국의 개별적 추진 사항으로 남겨진 셈이다.

[표-8] 성 주류화 추진체계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성 주류화 추진담당 부서의 역량	성 주류화 추진부서의 기획력 및 추진력
	성 주류화추진부서의 성 주류화 사업 이해도
성 주류화 추진담당 부서의 마인드 및 역량	성 주류화 추진 담당 구성원의 의지와 열정
	성 주류화 추진에 대한 마인드
외부지원 및 공유체계	외부 성 주류화 자문체계 구성 및 활용
	대외 성 주류화 추진 커뮤니케이션 활용도
	성 주류화 관련 정보수집 및 체계
조직 전반의 성 주류화 실행체계	기관 자체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간부회의 구성 (정책조정회의-의결구조)
	기관 자체의 성 주류화 실행체계 구축 (조직단위별 성 주류화 담당 배치, 정책실무조정회의-실행구조 등)
	기관 자체 성 주류화 모니터링 체계

4) 개발협력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성 주류화 프로세스

개발협력과제를 도출하고 공유하고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대화를 통한 개발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 성 평등 이슈를 통합해야 한다. 성 주류화 과제 도출과정에서 공여국-수원국, 민-관-학, 다자간-양자간 원조기구, 남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성 주류화 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발협력 과제별 성 주류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표-9] 개발협력 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국가간 대화를 통한 개발협력과제 도출 프로세스	정부의 개발협력과제 선정기준과 연계성
	성 주류화 대상과제 도출 프로세스 체계성
	성 주류화 대상과제 도출을 위한 방법론의 활용 (성별분리통계 등)
	업무추진계획과 연계성

개발협력 과제 이해당사자 공유도	성 주류화 과제 도출과정의 구성원 참여도: 공여국-수원국, 민-관-학, 다자간-양자간 원조기구, 남녀 간의 파트너십 접근
개발협력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실행 및 관리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 과제 실행체계 구축과 관리
	개발협력 과제실행의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협력 과제의 성과창출 정도 및 진행과정의 체계성
	성 주류화 과제 실행지원체계(자원배분 및 인력,기술지원)
	성 주류화 대상과제에 대한 사업관련자들의 이해도
	개발협력 과제별 성 주류화 우수사례 발굴

5) 성 주류화 종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성 주류화 종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 추진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통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 주류화 추진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인사 보상제도와 연계하고 성 주류화 과제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표-10] 성 주류화 종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성 주류화역량관리	지속적인 성 주류화 추진 역량진단 체계의 구축 (Tool 확보)
	자체 성 주류화 역량진단의 결과 및 정보의 활용
성 주류화 관리시스템 구축	개발협력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성 주류화 추진 장애요인 및 저항관리체계 구축(설문조사시-저항요인 파악)
	총체적 성 주류화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활용 (교육, 구성원 역량관리, 지식관리, 성 주류화 성과 관리, 마일리지 등)
성 주류화 인프라 (보상 및 동기부여)	인사 보상제도의 연계
	성 주류화 과제성과와 보상연계
	BSC (전략적 성과관리)보상체계와 성 주류화 관리 시스템 연계

6) 성 주류화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성 주류화 추진 실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문제인식 및 해결능력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성 주류화 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표-11] 성 주류화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성 주류화 추진 실행역량	문제인식 및 해결능력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성 주류화과제 실행역량
	개발협력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역량
성 주류화 추진조직문화조성	성 주류화에 대한 조직문화

7) 성 주류화 교육 및 학습

성 주류화 교육 및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주류화 교육을 체계화해야 하며, 간부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정립하는 등 교육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또한 단순 강의 및 특강중심의 학습체계에서부터 참여형 문제해결식 학습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주기적인 학습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학습 및 교육의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학습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표-12] 성 주류화 교육 및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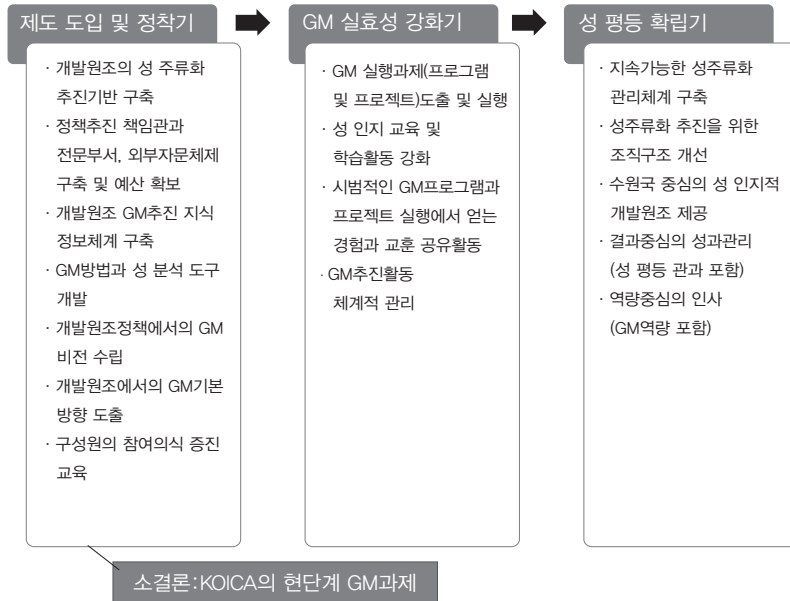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성 인지 교육계획 및 체계	전 직원의 성 인지 교육체계 정립 및 실행
	교육 운영프로그램의 다양성
	간부급 성 인지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실행

교육방식	단순강의 및 특강중심의 학습 체계
	주기적인 학습기회 마련
	참여형 문제해결식 학습방식의 정착
	학습과 실천의 융합을 통한 자율학습조직 운영
학습관리체계	학습 및 교육의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자체 구성원의 성 주류화 역량관리 체계 마련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기관차원의 지원과 관심정도
	학습과 동기부여 및 인사제도 연계
	성 인지 교육의 만족도

4. 성 주류화 수행역량과 국별 정책과제

이상에서 도출된 OECD/DAC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들은 공여국과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OECD/DAC 회원국들의 개발원조의 역사와 경험이 다르고, 제도적 수준이나 문화적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과제들은 각국의 사정에 따른 전략적 선택과 단계별 추진을 통해 시기와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의 성 주류화는 제도 도입 및 정착기 ⇒ 실효성 강화기 ⇒ 성 평등 확립기로 구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성 주류화는 국가별 역량수준 단계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그림-5] 참조).

[그림-5]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성 주류화 추진 역량수준의 단계별 특징과 각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성 주류화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 도입 및 정착기

이 시기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공감대 확산 그리고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 **특징** : 이 단계의 특징은 정책결정자들의 성 주류화 추진에 대한 이해부족, 성 주류화 추진 부서 담당자의 성 주류화 과제에 대한 이해 및 방법부족, 기관 구성원의 성 주류화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2) **성 평등 목표** : 이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는 우선 성 주류화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리더십 확보와 성 주류화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최고 정책결정자와 성 평등 정책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전 구성원들이 성 주류화 과제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3) 성 주류화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정책 추진 책임관과 전문부서, 외부 자문체제 구축 및 예산확보 ● 개발원조를 위한 지식정보체계 구축 ● 성 주류화를 위한 방법과 성 분석 도구 개발
개발원조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비전 수립
개발원조에서의 성 주류화 기본방향 도출
구성원의 참여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나.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실효성 강화기

이 시기는 성 주류화의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성 주류화 추진 방법과 도구들에 대한 교육학습을 강화하고, 성 주류화 과제를 확대 적용하는 시기이다.

- 1) **특징** : 이 단계에서는 개발원조에서의 성 주류화 비전 및 전략목표와 연계되어 도출된 조직 내부와 사업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 실행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및 과제실행과정, 성 인지 교육 및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비전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성 주류화 추진 활동이 업무 외의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2) **성 평등 목표** : 원조기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 주류화 과제수행 성과는 국회의 행정감사와 OECD/DAC의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통해 각 사업영역에서 설정된 제반 목표들이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 주류화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성 주류화 실행과제(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도출 및 실행
성 인지 교육 및 학습활동 강화
시범적인 성 주류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공유 활동
성 주류화 추진 활동 체계적 관리

다.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확립기

이 시기는 개발원조에서의 성 주류화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성 평등 가치와 목표, 실천 이 개발원조에 관한 제반 정책에 내재화되어 성 평등성이 확립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 **특징** : 이 단계는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개발원조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단계로서, 성 인지 분석,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 평등 정책 마커 활용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동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2) **성 평등 목표** : 이러한 내부동력은 조직운영시스템의 기본요소인 조직, 인사, 평가, 고객관리가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행정시스템과 성 주류화 추진 관리체계에 통합될 때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과에 기반을 둔 조직, 인사, 평가, 고객관리 시스템에 성 평등 가치와 목표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성 주류화 추진동력을 만들어내는 견인차이며 기관장 등 리더의 교체에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성 주류화 추진동력 창출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반이다.

3) 성 주류화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성 주류화 관리체계 구축
●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직구조 개선
● 수원국 중심(수원국의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 포함)의 성 인지적 개발원조 제공
●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성 평등 성과 포함)
● 역량중심의 인사(성 주류화 역량 포함)

5. KOICA 사업 성 주류화 방안에 대한 합의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들을 분석하고, 개별 공여국과 수원국의 성 주류화 추진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우선적인 정책과제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가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과제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주류화 추진 역량수준으로 볼 때, KOICA는 앞 절에서 설명한 성 주류화 추진 1·2단계인 “개발원조의 성 평등 정책 도입 및 정착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OICA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동력확보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에 초점을 두고, OECD/DAC의 지침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리더십 확보(예: 고위급 정책책임관)와 성 주류화 추진 전문부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KOICA의 중요 정책결정자들이 2010년 OECD/DAC 회원국 가입과 2011년 한국에서 열리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4차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열린 다양한 국제행사와 회의를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에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성 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정책기반)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의지로 이어질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KOICA의 현 단계 성 주류화 성과는 기관장이 전문부서를 설치·가동하여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지원을 통해 전 조직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린 문제이다.

둘째, KOICA의 개발협력의 비전을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 지원”에 두고,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목표 중의 하나로 성 평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국제개발협력에 여성 및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 평등 실현을 기본정신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과 지침에 부합하는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실현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³³⁾ 이 외에도 ODA의 성 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존재한다. 한국은 이미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북경행동강령(1995), 유엔 새천년 선언(2000)과 새천년개발목표(2001) 등에 조인하여,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적 책무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제정된 국내의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제27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개발원조의 기본목표들과 연계된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 Sida의 성 평등 정책 문서인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Cooperation”³⁴⁾에 명시된 기본목적은 “Sida의 (수원국의 개발과정에 대한) 개입과 행동이 성 평등에 이바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성 평등이 어느 사회에서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친화적 성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2003년 스웨덴 의회에서 채택된 ‘스웨덴의 글로벌 개발 정책(The Swedish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설정한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개발협력의 목적에 상응하는 것이다. 정책 문건은 스웨덴의 글로벌 개발정책의 기본목적에 근거하여 도출된 과제수행을 통해 수원국의 성 평등 수준을 증진시킨다는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Sida의 ‘빈곤에 대한 관점’에서 지적된 빈곤의 기본요인인 역량/권력의 부족, 선택권의 부족, 물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결정된 Sida의 정책과제들을 기술한 후, 이와 관련된 성 평등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KOICA는 향후 성 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할 때 KOICA 개발원조의 기본목표와 연계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33) ODA기본법의 기본정신에 성 평등 실현 목표가 삽입된 것은 입법의 통일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의 이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법규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03호, 2009.6.24, 일부개정] 제2조(법령입안시 유의사항) 3항에는 ‘입법의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는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입법내용이 당해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이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34) Sida (2005b).

취해야 할 것이다.

넷째, KOICA는 성 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참여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 평등 정책 도입 및 정착기에는 성 평등 마인드를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 주류화와 관련된 특강 및 강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 주류화 관련한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NGO 및 기타 사업수행자들을 위한 성 평등 역량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KOICA가 성 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6. 소결

개발원조 논의에서 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것은 성 평등 관점에서 원조가 계획되고 집행되지 않을 경우 여성 인구가 원조의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여성에 대한 투자가 빈곤퇴치와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강조되어 왔던 성 인지적 접근(Gender and Development, 이하 GAD)은 개발원조에서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관점을 넘어서 불평등한 사회관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성 주류화라는 실천적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여성과 남성의 경험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OECD/DAC은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 인지적 개발원조를 위한 정책과 도구를 개발하여 왔다. 1998년 채택된 성 평등 지침서를 통해서 개발원조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밝히고, 젠더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규정하며, 성 주류화와 여성중점 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전략을 도입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제 성 주류화는 개발원조에 있어서 국제적 규범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개발원조에서 성 주류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OECD/DAC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여국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 평등 정책이 의례적인 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역량수준 단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이 2010년 OECD/DAC 신규 가입함에 따라 KOICA는 OECD/DAC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원조의 방향과 성 평등 지침을 고려하여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동력확보

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성 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지식정보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개발원조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비전을 수립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국제 흐름에 비추어 KOICA ODA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하였다.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개발원조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KOICA ODA 사업을 둘러싼 제도와 정책현황, 사업집행과 평가, 조직구조 및 교육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 KOICA ODA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KOICA 사업을 성 인지적으로 분석하여 한국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 1월 1일 OECD/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이하 OECD/DAC)에 가입하면서 국제개발 담론중 하나인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성 주류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발원조의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위상에 맞는 개발원조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집행기구, 평가시스템 등에서 보완되고 개선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사업을 성 인지적으로 분석하여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도와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성 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원조의 방향과 정책을 점검해본다. 둘째, 사업 집행과정을 검토하여 성 인지적 제도 및 정책이 실질적인 집행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사업 평가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성 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 및 체계를 검토하여 과제를 도출한다. 넷째, 조직체계를 점검하여 성 인지 관점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조직 현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KOICA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1. 제도와 정책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독특한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특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여국으로 전환한 기간이 짧은 만큼 원조규모와 원조의 질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국제사회는 2000년 새천년선언 및 개발목표, 2005년 파리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강령을 채택함으로써 개발원조를 둘러싼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OECD/DAC 주요규범 중 성 평등(Gender equality)은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OECD/DAC의 성 평등 지침은 1983년 WID 지침서를 채택하는 것을 시작으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북경행동강령의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수원국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 인지적 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2008년 OECD/DAC은 성 평등 지침서를 보충하는 추가 지침서를 제공하였으며 추가 지침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세 번째 목표와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강령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성 평등과 원조 효과성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OECD/DAC은 성 평등 이행 여부와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매년 공여국 연차보고서와 4년에 한번 씩 돌아오는 동료검토, 젠더마커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OECD/DAC 회원국의 성 평등 지침 이행 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의 흐름을 반영하는 입법 혹은 정책기조, 국별 원조전략 수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은 2009년 12월 29일 ODA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기본법의 기본 정신 및 목표에 성 평등 실현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KOICA는 향후 중기전략 수립 및 사업추진시 ODA 기본법의 이러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절차 및 시행전략이 필요하다. KOICA는 현재 아직까지는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명기한 정책기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2008~2010)」(이하 중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기전략」은 국제사회의 규범 및 원칙을 존중하는 맥락 속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중기전략」은 2015년 UN MDGs(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공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ODA의 기반조성 단계(2008~2010)와 원조의 선진화 추진단계(2011~2015)로 구분하고 있다.³⁵⁾ 세부추진방향은 1) 파리선언(2005.2월)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원조규모 확대 요구에 맞추어 국가정책 차원에서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2) 원조의 언타이드화 확대를 추진하고, 3)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전략적 대외원조사업을 추진하고, 4)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교훈을 체계화하여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5) ODA

35) 한국국제협력단 (2008b).

기본법 및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6)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기전략」의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방향은 국제규범에 부합하기 위한 MDGs 및 파리선언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중기전략」의 기본방향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분야별 추진전략에서 KOICA는 양성평등 문제를 개발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서 빈곤감소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빈곤감소 전략의 핵심으로 여성에 대한 초·중등교육 확대 및 직업교육 강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과 모자보건 증진을 보건의료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수립은 KOICA가 개발원조에서 여성을 중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여성의 권익향상을 통한 양성평등 구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KOICA 2009년도 대외무상원조 사업추진전략」의 세부전략 중 여성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된 분야로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가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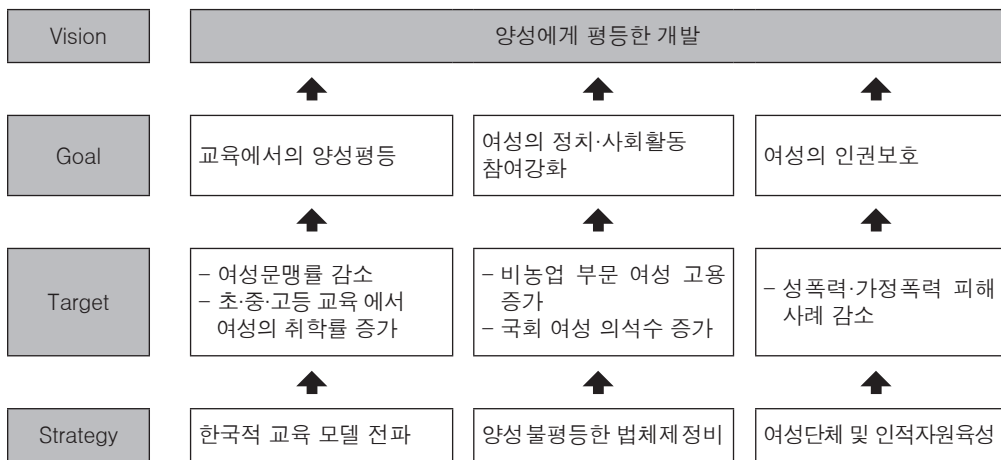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개도국 상황을 고려하고 여성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자보건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임산부 관리를 위해 산전·산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응급의약품을 지원하며 조산사 양성 및 임산부 교육, 가족계획정책 수립 및 부모 영양교육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도모를 위한 기초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여성 개발과 같은 이슈를 접목하며, 여성 대상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KOICA는 중기 전략과 연도별 추진전략을 통해서 원조사업에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개발원조에서의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은 여성 분야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림-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KOICA 개발원조의 비전이 양성에게 평등한 개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의 달성을 위해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여성의 정치·사회 활동 참여 강화,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3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상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문맹률을 감소해야 하고 초·중·고등 교육에서 여성의 취학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KOICA에서는 현재 이러한 목적을 정책대상으로 삼아 한국적 교육 모델을 전파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두 번째 여성의 정치·사회활동 참여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농업 부문 여성고용 증가와 국회 여성 의석수 증가를 정책대상으로 삼아 양성 불평등한 법 체제를 정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인권 보호 목표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성단체 및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림-6] 여성 분야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체계도



한국국제협력단 (2007a).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이 OECD/DAC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 평등 지침의 방향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여성개발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증대하는 등의 단순한 양적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발원조사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이 요청되는 것은 성 평등이 개발에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해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³⁶⁾ 개발원조사업의 성 주류화는 각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과 함께 개발원조사업 전 분야에서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ODA 사업을 성 주류화 한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자본과 자원 그

36)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2008a); (2008b); (2008c); (2009).

리고 모든 영역에서의 개발수혜와 결정권에 동등한 접근과 통제가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KOICA 전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젠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원조의 철학과 규범, 원칙에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적용할 것이 요청된다. 국제사회는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확보 및 빈곤퇴치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성 주류화에 대한 기본정신 및 목표, 원칙을 문서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12월 29일 통과된 ODA 기본법에는 성 평등을 개발원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KOICA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중기전략 수립 및 사업추진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KOICA 자체적으로 대외무상원조의 성 주류화 정책기조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OECD(2009)³⁷⁾에서는 입법화와 별도로 대외 원조의 주요 목적과 대상을 개괄하는 포괄적인 정책기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책기조는 개발원조에 있어서 정부의 폭넓은 개입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개발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OECD/DAC 회원국 2/3 이상이 법제화를 보완하는 높은 수준의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호주,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등은 성 평등 원조프로그램의 원칙과 전략, 주요 요소 등을 정책기조를 통해서 명료화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OECD/DAC의 설문조사³⁸⁾에서 응답한 27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개발 협력에 관한 최상위의 정책기조(개발원조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의 중장기 ODA 계획 등)에서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그리고 성 주류화 접근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18개 기관은 일부 혹은 전체 부문별 정책에서 성 평등이나 여성지위향상을 촉진하는 행동계획들을 명시하고 있다.

정책기조를 채택하는 것과 함께 국가지원전략(CAS)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지원전략(CAS)은 선진원조기관에서 원조 효과 향상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종합적 개발효과를 고려하고 개도국 스스로 개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문(sector)별 프로그램 단위로 원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공적개발원조에서 국가지원전략(CAS)은 아직까지는 제도적 준비의 미비, 국가지원전략(CAS)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의 부족, 논리적 불명확성의

37) OECD (2009).

38) OECD (2007).

문제 및 국가지원전략(CAS) 프로세스가 형성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³⁹⁾ KOICA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몽골과 에티오피아에 대해 국가지원전략 및 계획(CAS/CAP) 수립 모범사례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시적 접근으로부터 종합적 개발전략으로 관점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지원전략(CAS)은 젠더와 같은 크로스커팅 이슈를 원조사업 전반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 다를 수밖에 없다. 향후 한국 ODA에서 국가지원전략(CAS)을 원조효과 개선의 전략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전략(CAS)이 성 인지적으로 수립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KOICA에서 개발원조사업의 성 주류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 7월에는 사업선정 절차를 개정하여 사업 발굴·심사·선정 시 성 인지적 심사 항목을 추가하여 발굴단계에서부터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 12월에는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성별 수혜 영향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사업성과의 성 인지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KOICA 사업 성 주류화를 실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 등은 부족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3] KOICA 제도 및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 - MDGs 및 파리선언의 원칙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분야별 추진전략에서 여성에 대한 집중 지원 전략을 명기하고 있음 ·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 성 평등 비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비전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 제도, 세부 행동 전략은 부재함 · KOICA는 ODA사업을 성 주류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시도 - 사업선정 및 평가에서 성 인지적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제도로 개선함	· 정책 문서 - 성 주류화에 대한 기본정신 및 목표, 원칙을 정책문서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 CAS 가이드라인 -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CAS) 가이드라인수립이 요청됨

39) 정유아 (2009)

2. 사업집행

KOICA ODA 사업을 성 주류화 하기 위해서는 성 인지적 관점의 제도 및 정책이 실질적인 집행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현재 KOICA는 공적개발원조 중기전략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집중 지원 전략을 명기하고 있으며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 평등 비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점과 전략들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수준에서 실질적인 집행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KOICA 사업 집행의 성 주류화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곧 성 주류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에서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실재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젠더마커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OECD/DAC은 개발원조의 성 인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젠더마커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KOICA는 2007년에 처음으로 젠더마커를 적용하였다. 사업유형 및 지원분야별로 젠더마커를 적용한 결과, 사업의 핵심목표가 성 평등 달성인 사업과 성 평등 달성이 주요 사업목표는 아니지만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총 집행 사업비의 7.4%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연수생초청사업과 봉사단파견사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지원분야별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김영혜 외, 2008: 58). 이러한 결과를 통해 KOICA의 ODA 사업 성 주류화는 여성 대상 사업과 모성보호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의 [표-14]에서 나타난 2009년과 2010년 성 주류화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추세를 알 수 있다. 프로젝트 사업은 모성보호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초청연수의 경우에는 여성연수생 참여수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14] 성 주류화 ODA 사업 현황

형태	분류	사업명
프로젝트	'09 계속(10)	엘살바도르 임산부요양소 건립사업
		과테말라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가나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사망을 감소지원사업
		잠비아 루사키주 총궐군 모자보건서비스 개선사업
		도미니카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 개선사업
		케냐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에테오피나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사업
		파라과이 모자사망을 감소지원사업
		파키스탄 카라치시 의류생산기술 훈련원 지원사업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10 신규(3)	과테말라 모자보건 향상사업
		나이지리아 국립소아병원 건립사업
		과테말라 소녀의 집 교육시설 강화사업
국내 초청연수	'09 계속(7)	석사학위과정-국제학(여성과 개발)
		성 평등 정책역량강화 연수
		아프가니스탄 성 평등 정책 및 여성지도자 양성 연수
		여성고용 및 창업개발 능력 향상 연수
		여성인권과 여성발전 연수
		콜롬비아 여성정책개발 역량강화 연수
		CP 농어촌개발 경제력 증진 연수
	'10 신규(2)	여성정책개발 연수(잠정)
		여성관리직 공무원 리더십 향상 연수(잠정)
연구조사	'09 신규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연구

KOICA 내부자료

여성 대상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성 주류화를 이루는 중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수원국 여성의 권익향상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젠더가 다루어진다는 것은 여성대상 사업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 인지 관점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KOICA는 2010년 성별영향평가 계획을 통해서 ODA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이중전략(twin-track)을 적용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여성 수혜대상 ODA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과 사업추진절차 및 제도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전략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성 수혜대상 ODA 사업은 대표적으로 연수생초청사업 확대 및 신규프로젝트 선정을 통해서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 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정책수립, 사업발굴, 기획, 수행, 모니터링, 평가 등 ODA 사업 전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과정에 성 인지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서 KOICA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정책의 성 주류화를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2002년 12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KOICA는 2008년에 성별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KOICA의 연수생초청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ODA 성 주류화 목표를 ① 여성 연수생 참여율 증대 ②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 관련 과정 개수 증대 ③ 연수생초청 사업의 성 인지적 평가항목 개발로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정책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수원국과의 관계 등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지표와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성 인지 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ODA사업 성 주류화를 이루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성 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 성 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KOICA는 2009년에 실시한 성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2010년도 성 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

다. 다음 [표-15]에 의하면 KOICA의 성 인지 예산 분석 결과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예산액이 14.1%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15] KOICA ODA 사업 성 인지 예산(안)

(백만원)

구 분	'09	'10	증 감	%
○ 성 인지 예산	32,914	37,560	4,646	14.1
－ 초청연수 사업	28,000	34,135	6,135	21.9
－ 평화구축지원(연수)	4,914	3,425	1,489	30.3

KOICA 내부자료

성 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초청연수 사업과 평화구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분석의 결과로서 KOICA는 ODA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KOICA는 짧은 역사 속에서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규범을 흡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절차가 성 인지적 관점에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KOICA는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주기에 따른 시행 및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PCM(Project Cycle Management, 이하 PCM)을 실시하고 있다. PCM은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의 3단계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젝트 내용을 논리적 유기체제를 통해 정리하는 Logical Framework을 활용하여 작성을 하게 된다. Logical Framework은 4×4, 16칸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요약본인데 이것을 PDM(Program Design Metrix, 이하 PDM)이라고 한다. PDM은 프로젝트가 선정된 후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이다. 따라서 PDM은 프로젝트 계획과 평가의 일관성 및 결과중심의 원조형태를 이루는 주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특히 PDM은 ODA 사업 성 주류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 인지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작업은 PDM의 실시와 분리되어 적용될 수 없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PDM이 적용될 수 있다면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된 PDM이 개발되어 사업설계 및 모니터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업절차별, 사업분야별,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성 인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KOICA 사업을 성 주류화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와 국가지원전략(CAS)이 실질적인 집행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사업절차별 뿐만 아니라 사업 지원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유형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할 지침 개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6] KOICA 사업집행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 젠더마커 사용 - KOICA는 2007년 처음으로 젠더마커를 적용하여 KOICA 사업의 성 인지성을 평가하였음 ·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 예산서 작성 - KOICA는 2008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프로젝트에도 확대할 예정임 - 2010년 성 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PDM을 적용한 표준화된 사업시행절차 정립 - KOICA는 PDM을 통해서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및 중요이슈를 분석하고, 프로젝트 대 상을 선정하고, 현재 상태에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전략을 수립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음	·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도구 개발 - 중장기적으로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 한 성별 영향평가 및 성 인지 예산 작성도구 개발 필요함 · 사업집행을 위한 도구의 개발 - 성 인지적 PDM 개발 필요함 - 사업절차별 : 사업기획부터 집행, 평가과 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필요함 - 사업분야별 : KOICA 7대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개발 필요함 - 사업유형별 : 사업유형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할 지침 개발 필요함 - 집행 절차를 명시하고 의무화 할 수 있는 지침 마련 필요함

3. 사업평가

KOICA는 진행 중인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해 가능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평가는 평가기획, 평가실시, 평가종료의 3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다. 사업평가 지침은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OECD/DAC 평가원칙 및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의 원칙을 반영하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KOICA 2008년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모든 평가는 OECD/DAC에서 권장하

고 있는 5개 평가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⁴⁰⁾

[표-17] OECD/DAC의 평가 기준

항목구분	평가내용
적절성(Relevance)	개발사업의 목표들이 수혜 대상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수혜국과 공여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효과성(Effectiveness)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효율성(Efficiency)	다른 대안을 감안할 때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합리화 될 수 있는가. 즉 여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성과로 전환된 정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가대상 정책 시행 후 또는 사업종료 후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도
영향력(Impact)	개발 사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의 전체적인 결과

한국국제협력단 (2008a).

상기 5개 항목은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 가능하지만 평가대상의 성격과 평가의 범위, 시기 등에 따라 5개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평가담당자는 평가대상과 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 평가별로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서 세부평가질문을 작성한 뒤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평가기준에 있어서 OECD/DAC에서 규정한 5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했던 2007년과는 달리 2008년에는 크로스커팅 이슈인 환경과 젠더관련 평가기준을 첨가했다는 점이다.

평가기준 중 성 주류화는 개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제약과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성 평등을 빈곤감소를 위해 달성되어야 할 핵심적인 목표로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KOICA 사업부서는 평가기획, 평가실시, 평가종료 각 단계별로 성 인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있다.

40) 한국국제협력단 (2008a).

[표-18] 단계별 성 주류화 고려사항

평 가 기 획
▷ 평가대상 사업이나 정책관련 문서에 성 평등과 관련된 사항 확인 ▷ 평가대상 사업이나 정책관련 문서에서 성 평등 관련 요소의 중요도 파악 ▷ 평가에서 성 평등 부분의 중요도 및 평가가능여부 검토 ▷ 성 평등 관련 기준치 정보 및 자료 확인 ▷ 평가계획문서의 성 평등 분석 항목 작성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의 성 평등 분석 항목 검토
평 가 실 시
▷ 평가기관은 평가수행 시 남성과 여성의 다른 의사소통방식을 감안하여 대책수립, 특히 많은 경우 여성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 수행 ▷ 필요시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조사 분석방식 활용 ▷ 평가기관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협의 및 진행 ▷ 수집된 정보와 자료는 필요시 성에 따라 분류, 관리
평 가 종 료
▷ 평가보고서는 평가계획서의 성 평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적절한 분석 포함 ▷ 성 평등 관련 조사결과는 OECD/DAC의 5대 기준과 연계하여 분석 ▷ 성 평등 관련 결론과 교훈을 관련부서 및 기관에 적절히 배포

한국국제협력단 (2008a).

기획단계에서는 성 평등 관련 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제안서에 성 평등 분석 항목을 작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실시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조사 분석 방식을 활용할 것과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종료단계에서는 성 평등 관련 조사결과는 OECD/DAC의 5대 기준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환류를 위해 분석 결과와 교훈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KOICA 2008년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수립은 기존의 평가지침을 개정하여 성 주류화를 고려하는 새로운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가기준으로서 OECD/DAC의 5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성 주류화 기준을 접목시켜 개발원조를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은 KOICA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모색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별 수혜 영향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한 새로운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교육 분야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분야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기준에 있어서 OECD/DAC의 5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성 평등과 연관된 세부 항목을 포함시켜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⁴¹⁾ 5가지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 항목에서 성 평등에 대한 고려를 명시한 항목은 타당성(Relevance)을 제외하고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파급효과(Impact),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4개의 항목이다.

[표-19] 교육 분야 평가 항목의 구조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타당성 Relevance	1)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여부 2) 국제기구 교육원조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 3) 우리나라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 4) 사업기획 과정의 적절성 5) 사업 목표 및 측정 지표의 타당성
효율성 Efficiency	1) 정책 결정 과정 및 참여자의 적정성 2) 사업실시체계의 효율성 3) 예산 및 비용의 효율성 4) 성 평등 및 환경 기여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Effectiveness	1) 수원국의 교육 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 2) 협력단 및 국제사회 교육 분야 목표 달성 여부 3) 성 평등 및 환경에 대한 기여도
파급효과 Impact	1) 수원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 2) 우호협력관계 증진 효과 3) 성 평등 및 환경에 대한 기여의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	1) 재정적 자립 발전성 2) 기술적 자립 발전성 3)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저해 요인 분석 4) 성 평등 및 환경에 대한 기여의 지속가능성

한국국제협력단 (2008c).

사업집행과 사업의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성 평등을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설정함으로써 KOICA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수립과 관련된 평가항목인 타당성 항목에서 성 평등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사업기획 및 사업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성 인지 관점으로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사업활동이 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립단계에서 성 평등 관련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1) 한국국제협력단 (2008c)

이러한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분야 사업의 평가 대상은 크게 기초교육 분야와 직업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평가 항목별로 성 평등과 관련된 교육 분야 평가 결과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20] 교육 분야 사업 성 주류화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항목	기초교육 분야	직업훈련 분야
타당성	·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서는 몇몇 평가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음	· 성 평등 및 환경 이슈를 명시적으로 사업계획상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한국과 같은 성 평등을 전제하고 있음
효율성	· 성 평등 세부 평가 내용 없음	· 성 평등 세부 평가 내용 없음
효과성	· 현재로서는 모든 사업에서 동 이슈(성 평등)가 명시적인 목표로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수행상 성 인지적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직업훈련원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여건에 따라 여성에게 충분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원국의 사회적 풍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등 여성이 교육대상에서 제외국 국가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남성과 같이 여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육훈련은 이라크에서 최초라고 판단됨.
파급효과	· 성 평등 세부 평가 내용 없음	· 아랍권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이 최초로 직업훈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남미에서도 취업능력이 부족한 여성에게 적합한 제과제빵 및 이미용 공과를 지원하는 등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 성 평등 세부 평가 내용 없음	· 성 평등 세부 평가 내용 없음

한국국제협력단 (2008c).

상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5개 평가항목 중 세부평가항목에는 성 평등 관련 이슈를 분석하도록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은 아니다. 기초교육 분야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 두 평가항목에서만 분석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 파급효과 세 평가항목에서만 분석하고 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석자가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분석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분석의 내용 역시 성별분리통계 등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분석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KOICA의 새로운 평가 가이드라인은 OECD/DAC의 5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성 주류화와 환경을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접목시켜 개발원조를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사업계획과 집행 그리고 종료 등 사업추진절차 단계별로 성 인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평가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절차별 뿐만 아니라 사업분야별, 사업유형별로도 사업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1] KOICA 사업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 KOICA 2008년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 OECD/DAC의 5대 평가기준과 함께 크로스 커팅 이슈인 환경과 젠더 관련 평가기준 첨가함 · 평가기획, 실시, 종료 시 성 주류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새로운 평가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평가지침을 개정하여 성 주류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됨	· 세부지침 개발 - 실제적용 단계에서 성 인지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사업절차별, 사업분야별, 사업유형별로 사업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4. 조직구조

KOICA의 조직현황을 한국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 주류화 정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ICA의 조직도에서 팀 이름에 ‘여성’이 명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8년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환경 및 기타’팀이 ‘환경여성팀’으로 명칭이 개칭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환경여성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여성 분야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여성 관련 팀이 신설됨으로써 KOICA는 본격적으로 성 주류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KOICA는 환경, 여성 등 크로스커팅 이슈들이 MDGs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여성팀을 만들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⁴²⁾ 환경여성팀은 사회개발부 산하에 하나의 섹터(sector)로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42) 한국국제협력단 (2008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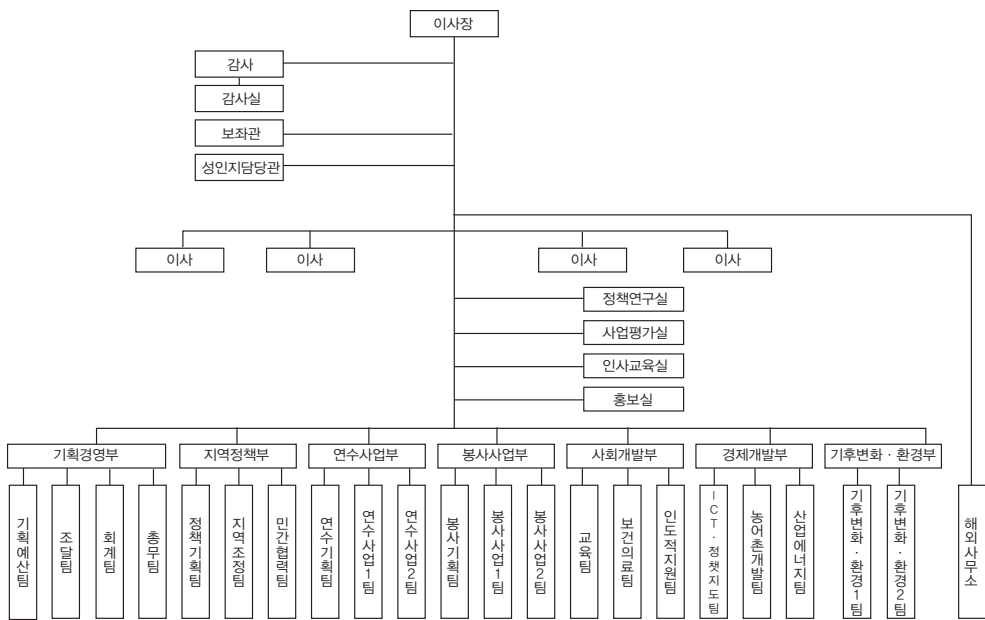
그러나 2009년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으로 조직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사회개발부의 ‘환경여성팀’이 해체되었다. 사회개발부 뿐만 아니라 기획경정부, 지역정책부, 연수사업부, 봉사사업부 역시 각 부 산하 팀들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몇 개의 팀들이 통합되었다.

KOICA에서 2008년 환경여성팀이 신설된 것은 크로스커팅 이슈인 환경 및 여성 이슈를 고려하는 것이 개발원조의 선진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KOICA가 여성개발을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을 지원분야의 하나로서 별도로 분류한 조치는 여성을 개발의 주요 참여자로서 인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 평등 달성이 라는 보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를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에만 국한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⁴³⁾ 즉, 개발원조에서 젠더 이슈는 모든 분야의 개발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대상이 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KOICA의 다른 모든 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기획 단계부터 집행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KOICA는 2009년 12월 31일 직제개편을 통해서 ‘성 인지 담당관’ 직제를 새롭게 신설하였다([그림-7] 참조).

성 인지 담당관 직제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KOICA가 개발원조 정책의 모든 단계에 성 인지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성 인지 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조직 내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책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향후 새롭게 신설된 성 인지 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화 시킬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43) 김영혜 외 (2008).

[그림-7] KOICA 조직도



(2009.12.31. 기준)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조직 내에 독립적인 젠더 이슈 전담 부서를 두거나 성 평등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책임을 갖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⁴⁴⁾ [표-22]를 살펴보면 OECD/DAC 회원국 대부분의 기관들은 두 명 이상의 인력이 배치된 성 평등 부서나 성 평등 정책자문관을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부에 성 평등 부서가 있는 기관은 41%, 본부에 성 평등 정책 자문관이 있는 기관이 41%로 나타나 원조기관 중 80% 이상은 젠더 이슈 전담 부서 혹은 담당관을 두고 있다. 특히 1995년 이전 성 평등정책을 수립한 기관일수록 본부에 성 평등 정책부서를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44) 독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젠더 이슈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계획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수립되었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포컬 포인트(Focal Point)로서 사회개발 자문관을 지정하여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고 있다(곽숙희 외 (2007)).

[표-22] 본부 성 평등 부서 그리고/혹은 성 평등 정책자문관

1995년 이전 성 평등 정책 수립	본부 성 평등 부서	본부 성 평등 정책 자문관	둘 다	모집단 수
예	50%	33%	17%	12
아니오	18%	64%	18%	11
합계	41%	41%	18%	27*

* 성 평등 정책을 처음 채택한 해를 기입하지 못한 기관이 네 곳 있었기 때문에 처음 두 열의 모집단 수는 합해서 27이 되지 않음.

OECD (2007).

본부에 성 평등 부서가 없을 경우에도 기관들은 본부나 현지에 성 평등 자문관들을 배치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기관들이 본부의 성 평등 정책부서나 정책자문관 외에 현지에 정책자문관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현지의 성 평등 정책 자문관의 수 (N=27)

자문관 수	없음	1 - 9	10 - 25	26 이상	모름
기관 수	10	6	3	4	4

* 표 안의 수치는 기관의 수

OECD (2007).

OECD/DAC 회원국의 모든 원조기관들은 지난 5년간 ODA 사업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하여 조직인력과 예산규모를 증가시켰다. 선진 원조기관들은 ODA 사업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 본부의 성 평등 추진 부서, 성 평등 정책자문관, 현장에 기반을 둔 성 평등 정책자문관의 수를 증가시켜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성 주류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과 도구의 개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체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OICA는 ODA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여성 수혜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추진절차 및 제도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이중전략(twin-track)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 성 인지 예산서에서 성 주류화 강화전략으로 이중전략을 천명하고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수혜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행, 평가하는데 일차적 책임을 갖는 주체와 동시에 성 인지 관점으로 사업

발굴, 기획, 수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체가 조직 내에서 명확하게 설정되는 새로운 조직 체계의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신설된 성 인지 담당관이 이러한 이중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핵심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 인지 담당관의 역할에 대한 조직 내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4] KOICA 조직구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 2008년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환경여성팀'으로 명칭이 확정됨. 여성 관련 팀이 신설됨으로써 KOICA가 성 주류화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2009년 조직축소 과정에서 환경여성팀이 해체됨. 이는 조직 내에서 젠더 이슈를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평가됨. · 그러나 KOICA는 2009년 12월 31일 직제개편을 통해서 성 인지 담당관 직제를 신설함	· 조직 운영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새롭게 신설된 성 인지 담당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KOICA 성 주류화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여성 수혜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추진절차 및 제도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이중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이 요구됨 - 2010년 성 인지 예산서에서 밝힌 ODA 사업 성 주류화 실천이 중요함

5. 교육훈련

OECD/DAC 회원 기관들이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공통적인 제약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 평등 정책자문관의 부족과 조직원에 대한 성 인지 훈련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성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성 인지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선택적 성 인지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아래 [표-25]에 의하면 직원들이 원할 경우 성 인지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은 27개 기관 중 59%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모든 직원을 위한 성 인지 훈련을 요구하는 기관은 22%로 나타나고 있다.

[표-25]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실천

실 천 내 용	모든 기관	1995년 이전에 성 정책이 있었다	1995년 이전에 성 정책이 없었다
모든 직원을 위한 성 인지 훈련의 요구	22%	42%	9%
직원을 위한 선택적 성 인지 훈련	59%	58%	55%

OECD (2007).

성 주류화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실천들 중 하나가 바로 모든 직원들이 성 인지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젠더 관점이 모든 정책에 통합되도록 정책 과정을 재구조화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정책 전략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성 인지적 정책 수행능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동료검토(Peer review)는 개발원조가 성 평등을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과 함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개발과 역할 분담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는 성 인지적 수행을 위한 정책과 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 주류화 정책과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업수행담당자의 역량강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KOICA의 임직원과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수행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OECD/DAC 가입을 계기로 KOICA는 업무상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OECD/DAC 가입으로 OECD/DAC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평등 지침서를 고려해야 하며, 동료검토 및 젠더마커 평가 등 성 평등 지침 이행 성과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2009년 KOICA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DAC 가입 이후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를 KOICA에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91.7%가 업무상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지난 1년간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⁴⁵⁾ 이러한 결과는 KOICA가 정책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체제를 구축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KOICA 직원들은 업무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습과 그 결과의 업무 적용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45) 김은미, 김지영 (2009).

현재 KOICA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교육은 인사교육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수행 관련 실무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수행이 되고 있으며, 환경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교육과 같은 크로스 커팅 이슈는 기후변화대응반에서 수행하고 있다. 성 주류화와 관련된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파견 봉사단을 대상으로 국내훈련에서 젠더 강의를 1시간 실시하였다. KOICA에서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외파견 봉사단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육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향후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더 다양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KOICA에서 이루어진 2009년 주요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 [표-26]과 같다.

1. 교육 개요 [표-26] KOICA 2009년도 주요 교육 계획

구분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무 교육	신입직원 과정	국외 단기직무연수
	해외사무소 부임자 교육	
	ODA 직무교육	
	부서별 직무교육	
	프로젝트관리실무과정(PMP)	
학습조직	일반소양교육	국내외 학술연수
	학습동아리 지원	
	직급별 리더십 교육	

2. 세부내용

과정명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신입직원 기본교육	신입직원	개발원조 기본교육,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체험 등
해외사무소 부임자 교육	해외사무소 부임예정자	해외사무소 예산·회계관리, 감사업무, 사업관리, 해외안전관리 등
ODA 직무교육	전 직원	협력단 자문위원 분야별 강의, 해외학술 연수경험 강의, 프로젝트 기획, 심사, 통계 등
프로젝트관리 실무과정(PMP)	신청자	프로젝트관리 실무과정(PMP) 커리큘럼

부서별 업무 소양교육	타 부서 공개	예산관리, 조달계약업무, 지역부 업무, 섹터별 사업관리 등
일반소양교육	전 직원	협력파트너국 지역문화, 성차별방지, 윤리교육 등
학습동아리 지원	신청자	개발원조 관련 학습동아리 - 직원이 자율적으로 구성(젠더스터디) 하고 연말에 보고서 제출, 감사초청 및 워크숍 개최 지원
직급별 리더십 교육	1급-5급 직원	비전, 경영마인드, 팀관리, 팀워크, 문서기획능력 등
국외 단기 직무연수	선발자	해외선진원조기관, 국제 NGO 등 단기연수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선발자	개발원조 관련 학위 과정 - 본인 전공 선택
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	선발자	개발원조 관련 학위 과정 - 본인 전공 선택

KOICA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크게 4가지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무교육과 학습조직 교육 그리고 외국어 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무교육은 신입직원과 해외사무소 부임자, 부서별 직무교육이 외부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조직교육은 현재 학습동아리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동아리 중 젠더스터디를 하는 “X=Y”가 포함되어 있다. 외국어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전문교육은 국내 대학원 학술연수지원 및 경희대 국제개발전문가 과정 지원 등이 있다. 인사교육실에서는 학습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차기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KOICA의 교육체계는 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로 직원대상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내부직원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인 임원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KOICA 사업의 특성상 KOICA 내부 임직원과 함께 사업관리(PMC)/건설용역업체(CM), 봉사단과 장기파견 전문가, NGO, 연구원/연구기관 전문가도 교육의 주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임직원과 사업참여자 모두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업수행자(actor)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개발원조사업의 성 주류화 관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성 주류화 관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각 사업수행자(actor)별로 주요 역할과 업무 내용에 따라 차별화되는 맞춤형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업수행자(actor)들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은 각각의 주요 역할에 따라서 직무교육 중심, 감수성 교육 중심 그리고 통합교육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직무교육은 조직 구성원들이 성 인지 관점을 단순히 개인의 의식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을 업무 영역에 통합함으로써 담당 사업 분야에서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함의를 이해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감수성 교육은 다양한 차이와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성 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개인의 사고와 경험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의식 중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은 직무교육과 감수성 교육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업무능력과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KOICA의 주요 사업수행자(actor)에 따른 각각의 교육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자인 임원 대상 교육은 개발원조사업의 국제적 흐름과 규범에 부합할 수 있는 성 인지적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KOICA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은 성 인지적 관점에서 KOICA 사업을 기획하고 이행, 평가할 수 있는 직무능력이 요구된다. 성 인지적 분석과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와 관련된 도구들을 숙지할 수 있는 성 인지 업무 능력 향상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KOICA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관리자(PMC)와 건설용역업체(CM) 관계자들을 위해서는 성 인지 업무 능력 향상과 함께 문화적 감수성 교육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집단의 경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업 전반의 내용을 관리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와 감수성에 기반한 성 평등 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봉사단과 장기파견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젠더에 대한 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훈련이 요구된다. 이들은 현지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사업을 실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봉사자들이 속한 분야와 젠더 연관성을 찾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NGO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서 개발원조 사업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천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원조의 국제적 규범과 성 주류화의 함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 공모 시 성 인지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성 인지적 사업 능력 향상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연구원/연구기관 전문가들 역시 교육의 주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태도와 가치는 연구 주제 선정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과 결과 분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 인지적 분석과 성별분리통계 활용 등의 교육을 통해서 모든 연구에서 젠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은 인사교육실이 주축이 되어 교육인프라와 교육인센티브 등의 사안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 주류화 교육 내용은 국제동향과 관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무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실, 사업평가실, 인사교육실에 젠더문제 전담 담당자(gender focal person)를 지정하고 이들과 함께 외부의 젠더 전문가로 구성된 포컬 포인트(Focal point)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적용,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7] KOICA 성 인지 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 KOICA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학습조직 교육, 외국어 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됨 · 성 주류화와 관련된 교육은 2009년 처음으로 해외 파견 봉사단을 대상으로 국내훈련에서 젠더강의가 1시간 실시됨	· 맞춤형 교육 제공 - 성 주류화 관련 교육은 사업수행자(actor) 들을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주요 사업수행자(actor)들은 임직원, 사업 관리/건설용역업체, 봉사단과 장기파견전문가, NGO, 연구원/연구기관 전문가로 구분됨

6. 소결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 OECD/DAC 회원국이 되면서 한국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새롭게 받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외원조공여를 받았던 위치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위치로 전환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는 차원에서 특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환의 역사가 짧은 만큼 정비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한국이 OECD/DAC의 정식회원국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동료심사를 받아야 하며 동료검토 시 제기된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08년 OECD/DAC이 한국에 대해 실시한 동료검토에 따르면 크로스커팅 이슈를 개발원조사업에 주류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ICA도 이러한 국제동향의 흐름에 따라서 성 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KOICA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별 수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서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OICA 사업참여자 및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 인지 교육을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제도 및 정책, 집행과 평가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발원조의 목표 설정부터 조직 시스템 구축과 도구 개발 등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OECD/DAC에서는 공여국의 성 평등 원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 평등 정책과 집행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대부분의 공여국은 성 평등을 개발원조의 목표로 표방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OECD/DAC은 2006년 경영진과 직원이 모두 책임감을 갖고 성 주류화를 추진할 것, 해외 사무소에 경력 있는 젠더 전문가를 파견할 것 그리고 본부와 해외 공관 직원에 대한 성 인지 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⁴⁶⁾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이러한 권고사항을 당장 실천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 사업을 성 주류화 한다는 것은 성 평등 목표를 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의 구축과 인적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발원조 방향의 흐름 속에서 KOICA의 ODA 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즉, 성 주류화 정책기조(안)와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ODA 사업 성 주류화에 대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사업절차별, 사업분야별, 사업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업집행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체계 및 교육훈련방안을 수립하여 새로운 조직체계 모색과 사업수행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제4장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안)

본 장에서는 현재 KOICA의 ODA 전략과 실행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성 주류화 접근에 기반한 ODA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한다.

KOICA의 ODA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안)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추진 전략 중 대외무상원조 전략과 사업실행의 관리방식에 성 평등 증진과 여성역량 강화 목표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장의 기본구조는, 본 연구의 2장에서 제시한 OECD/DAC의 성 평등 지침서와 여타 OECD/DAC 회원국들의 성 평등 정책들의 기본구조들을 참조하고, 외교통일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그리고 KOICA의 주요 정책 자료들의 구조와 개요⁴⁷⁾를 파악하여 다음 [표-28]와 같이 구성하였다. 기본 구조는 네 가지 영역으로 1)성 평등 정책(안)의 추진근거와 배경, 2)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와 주요정책방향, 3) 성 평등과 KOICA ODA의 기본목표, 4) KOICA ODA 사업관리의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방안을 포함한다.

[표-28] 본 장의 기본구조

본 장의 기본구조	개 요	비고
1. 성 평등 정책(안)의 추진근거와 배경	성 주류화 정책(안)의 법적 근거, 성 주류화 정책(안)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정책에서 사용될 주요 개념들을 설명한다.	본 장의 1절
2.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와 주요정책방향	OECD/DAC의 성 주류화의 이중전략에 따라, ODA 성 평등 정책의 주요정책방향을 제시한다.	
3. 성 평등과 KOICA ODA의 기본목표	2.에서 설정한 정책방향들이 KOICA가 설정한 ODA 기본 목표들과 통합추진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47) KOICA의 ODA 전략에 대한 개요는 본 절의 후미에 참고로 삽입된 박스: "KOICA의 대외무상원조(ODA) 정책개요"를 참조할 것.

4. ODA 사업관리의 성 주류화 방안	개발원조 효과의 제고를 위한 KOICA의 ODA 관리방식의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국가지원전략 수립과 사업절차별, 사업분야별, 사업유형별로 ODA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본 장의 2, 3, 4절
-----------------------	--	---------------

KOICA ODA 정책관련 주요 정책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10.),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2008~2010)>
- 한국국제협력단 (2007.10.),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2009년 11월 2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통과)
- 한국국제협력단(2009.1.), <2009년도 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

1.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평등 정책(안)

가. KOICA의 성 평등 정책(안)의 추진배경

여기서는 KOICA의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본 정책(안)의 추진근거를 밝히고, 정책(안)의 도출방법과 이와 관련된 기본개념들을 설명한다.

1) ODA 성 평등 정책(안)의 추진근거

KOICA의 ODA 성 주류화를 위한 성 평등 정책(안)의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재 국내의 법과 정책에서 KOICA ODA정책의 성 주류화 이행의 당위성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은 1995년 제정된 국내의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우리 정부는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년 9월에 열렸던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의 ‘북경행 동강령’에서 채택된 성 주류화 전략을 국내법에 반영하였다. 동 법의 제27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⁸⁾

48) 참고로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1998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성 평등 정책의 주요 기조로 채택하였으며, 2001년에는 여성문제가 모든 국가정책 영역에서 핵심 분야로 다루어지도록 여성부를 설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부터 성 주류화 전략을 행동계획으로 옮겨 국가운영과 사회관계 전반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3)>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은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책과제 5-3-2에서 "성 평등한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추진"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나) ODA와 직접 관련되어서는, 지난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국제개발협력에 여성 및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 평등 실현을 기본정신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과 지침에 부합하는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실현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⁴⁹⁾ 이 법의 통과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공식적인 기본목표와 기본원칙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의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회 본 회의 통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의 내용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북경행동강령(1995), 유엔 새천년 선언(2000)과 새천년개발목표(2001) 등,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적 조약·협약들을 비준하여 그 책무이행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⁵⁰⁾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KOICA의 ODA 성 주류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가) KOICA는 성 평등 실현을 ODA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으로 삼고, 모든 원조 정책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서 성 평등을 크로스 커팅 이슈로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 평등은 KOICA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

49) ODA기본법의 기본정신에 성 평등 실현 목표가 삽입된 것은 입법의 통일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의 이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법규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03호, 2009.6.24, 일부개정] 제2조(법령입안시 유의사항)3항에는 '입법의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는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입법내용이 당해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이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50) 우리나라의 헌법은 조약과 국내법이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전 지원,’ ‘UN 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증진’ 등 중요한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자, KOICA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가 되어야 한다.

나) KOICA는 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목표와 주요 정책방향들과 세부 전략들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점, 요구, 이해, 권리를 동등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 즉 KOICA는 모든 개발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구성방법

가) ODA 성 평등 추진 이중전략 도입

본 정책(안)은 ‘섹터로서의 젠더’와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를 동시에 이슈로 삼는 OECD/DAC의 성 주류화 이중전략에 따라, 우선 여성인권과 성 평등의 실현목표와 관련하여 교육·보건, 경제, 정치, 인권 분야에서 KOICA가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정책방향들을 분리해서 설정하고, 다음으로 KOICA가 설정한 모든 중점 사업지원 분야에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 이슈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나) ODA의 기본목표와 사업들에 성 평등 주요 정책방향 통합

본 정책(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의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근거로 삼고 KOICA 대외무상원조의 기본목표와 원칙과 성 평등 목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무상개발원조정책의 일관성은 여성인권에 기반한 성 평등 증진과 여성역량강화 노력이 성 평등 목표가 분명한 원조사업에서 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목표들을 갖는 사업에서도 추진되어야 가능하다.⁵¹⁾ 이는 KOICA의 모든 지역별·분야별·국가별 추진전략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분명한 지침과 지표들을 설정하여 성과측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51)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따라서 본 정책(안)은 성 평등이 KOICA의 ODA 중기전략⁵²⁾의 ODA 사업목표와 주요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들이 성 평등의 기본목표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한다.

다) 본 정책(안)의 용도 설정

본 정책(안)은 KOICA의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들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① 본 정책(안)은 KOICA 기관에 속한 임원진과 사업담당자들과, KOICA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집단의 사업관리자(PMC), 봉사단 또는 장기파견 전문가, 개발NGO, 연구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그리고 수원국의 모든 관련자들로 하여금, KOICA가 여성인권의 증진과 성 평등의 실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② 본 정책(안)은 수원국의 여성조직들을 포함하여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집단들에게, 해당 정부와 KOICA의 개발협력 파트너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원조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③ 본 정책(안)은 KOICA를 통해 원조를 받는 NGO들과 연구기관, 여타 민간기관들에게 유용한 지침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 KOICA 성 평등 정책(안)

1)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와 주요정책방향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 평등의 실현은 KOICA의 모든 개발원조 활동을 지배하는 기본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과 빈곤퇴치, 인간안보와 함께, 개발원조에서 여성인권과 성 평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여성인권과 성 평등은 모든 KOICA 개발원조 정책과 프로그램, 사업에 통합되어야 하는 목표이자 원칙이다.

이와 같은 KOICA의 개발도상국들의 여성인권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는 모든 개발원조와 관련된 의제들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여성과 남성의 관점과 필요, 이해, 권리를 동등하고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공평하게

52) 한국국제협력단 (2007b).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모든 개발원조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가) 기본목표

KOICA ODA의 성 평등 정책(안)은 개발협력 당사자들⁵³⁾ 간의 파트너십과 성 주류화, 여성역량강화 전략⁵⁴⁾을 통해 세계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과 빈곤해소, 성 평등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나) 주요정책방향

성 평등은 모든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기본목표로서 KOICA가 설정한 4대 기본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개도국의 성 평등 증진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 KOICA는 보건·교육에서의 성 형평성 증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정치적 역량강화, 여성인권증진,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성 주류화 추진역량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는다.⁵⁵⁾

[표-29] KOICA ODA 성 평등 정책(안)의 주요정책방향

KOICA 개발원조의 기본목표*	성 평등 주요정책방향**	
1.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1) 여성의 보건과 교육에 대한 지원강화	(5) 모든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성 주류화 추진역량강화
2. UN 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노력에 적극 참여	(2) 여성의 경제적 자원과 재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한 경제적 역량강화	
3.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	(3)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정치적 역량강화	
4.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4) 여성인권 증진(취약국가의 갈등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포함)	

*기본목표의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b).

**여기서 제시되는 성 평등 주요정책방향은 본 정책(안)에서 제안하는 것임. (5)번의 정책방향은 (1)~(4)번의 정책목표들이 기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기본과제로서, 다른 모든 정책방향들과 연관되는(cross-cutting)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세로로 배치함.

이러한 다섯 가지의 성 평등 정책방향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요소들로서 개발원조에

53) OECD/DAC의 파트너십 접근은 공여국-수원국, 민-관-학, 다자간-양자간 원조기구, 남녀 간의 파트너십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연구의 제2장 2절 나항 참조.

54) 본 연구의 제 2장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참조.

55) 본 정책(안)이 설정한 성 평등 기본목표들과 관련된 세계의 성 평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부록에 수록된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별 주요 현안> 참조.

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개발원조의 전략과 대상들은 여성들을 더 효율적으로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① 여성의 보건과 교육에 대한 지원강화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는 국제적으로 2015년까지 세계 절대빈곤(1일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를 반감한다는 MDGs의 달성지표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 평등의 진전을 이룬 분야이다. 교육과 보건에서의 성차별 개선은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적·정치적 역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성 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가능케 하는 발판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큰 문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저개발국 여성들에 대한 피임도구 보급과 성 교육, 10대 여성들의 임신·출산, 가정폭력·성폭력 현황 등은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영역이다. 또한 일부 개도국의 중학교 이상의 진학률에서의 성비역전 현상에 대한 연구와 관심도 중요하다.

② 여성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들의 기술, 리더십, 훈련과 더불어 토지, 재산, 정보, 소득, 그리고 창업자금이나 학비지원, 기술훈련자금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과 재산에 대한 접근력 향상은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특히 중요하다. KOICA는 여성들의 개발참여를 제약하는 다양한 조건들, 즉 이러한 물적 자원들에 대한 접근력을 제한하고,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들을 제거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③ 여성들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정치적 역량강화

여성이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 중앙과 지방의 사회·경제·정치영역에서 성별 관계의 시급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여성들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성들의 개발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성(남편, 아버지, 남자 형제, 남성 지도자)의 성차별적 혹은 성맹적(gender blind)⁵⁶⁾ 태도와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56) 성별관계의 작용에 무감각한

④ 여성인권 증진

유엔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은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영역들을 명시하고 있다. CEDAW에 의하면, 여성차별은 관습법과 제정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KOICA는 개도국의 여성과 남성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권리를 인식하고, 자원에 접근하고, 결정을 내리고, 폭력과 강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⑤ 모든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

이 다섯 번째 목표는 위의 네 가지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KOICA의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들이 제도적 차원에서 공유해야 하는 목표이다. 많은 개발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부기관,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기구들이 성 인지적 빈곤 분석과 사업수행을 위한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들이 자신들의 주요 이해관심 영역들을 명확히 하고, 성 평등을 옹호하고, 성 평등 이슈들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성별관계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3장의 2,3,4절의 가이드라인(안)에서 상술할 것이다.

단, 여기에서 제시되는 성 평등 기본목표들은 모든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언제나 이 모든 목표들을 동시에 다루거나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각의 프로그램과 사업들은 고유의 전략과 목표, 중점분야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 증진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야 할 세부과제들을 설정하고 그 실행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사업영역들에서 성 평등 증진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목표들은 개발협력파트너국의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과제들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2) 성 평등과 KOICA 개발원조의 기본목표

KOICA의 ODA 중기전략은 대외무상원조의 기본적인 사업목표로서, (1)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2)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3)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 (4)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⁵⁷⁾

57) 한국국제협력단 (2007b).

[표-30]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전략적 사업목표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2. UN 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노력에 적극 참여 3.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 4.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앞 절에서 설정한 성 평등 주요 정책방향들의 추진은 KOICA ODA의 전략적 기본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전제의 근거로서, 성 평등이 KOICA 개발원조의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과 성 평등

성 평등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이슈이자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성 평등은 개도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과 민주적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환경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⁵⁸⁾ 성 평등은 그 실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개발원조의 효과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토지와 생산 자원에 대한 접근력에서의 불평등은 농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여성이나 남성을 자원과 공공사업이나 생산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역량에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한다.⁵⁹⁾ 여성들의 불평등한 지위는 안전한 성(safe sex)⁶⁰⁾을 협상하는 능력을 제한해서 HIV/AIDS의 전파를 가져온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족과 지역공동체와 가구의 생산 업무에 막대한 비용을 부가한다.⁶¹⁾

성 평등에 대한 투자(특히 여성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모든 개발 투자 중 가장

58) UNIFEM (2006b).

59) World Bank (2001).

60) 안전한 성은 "AIDS와 같이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를 한 사람의 성적 행위"를 말함. Compact Oxford English Dictionary (2009).

61) World Bank (2001).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모성사망률 감소, 아동의 교육과 건강 상태 개선, 가구소득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이바지 한다. 2001년 세계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는 여성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의 부패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⁶²⁾

세계은행의 사업평가부서인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OED)는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 평등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1997년의 사업평가에서는 성 평등 이슈들을 고려하는 프로젝트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목표 달성 성과가 좋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2000년의 평가에서는 국가성별평가(Country Gender Assessments)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다른 개발현황과 사업분석에서 성 평등 이슈들을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다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01년도의 평가는 국가와 사업수준에서 성 평등 이슈를 분석하고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필요나 성별영향을 파악했던 프로젝트들이 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⁶³⁾

이와 같이 개발의 효과는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이해의 중요도에서의 차이와, 성역할과 젠더관계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서는 극대화될 수 없다. 개발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발전 사업의 질적 내용과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 빈곤퇴치를 위한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성 평등

성 평등은 빈곤퇴치를 위한 MDGs의 세 번째 목표이고, KOICA의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의 두 번째 기본목표인 “UN 새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참여”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들과 통합되어야 할 목표이다.

KOICA는 우리 정부의 유엔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의 비준이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승인과 같은 책무이행 약속에 따라 성 평등 추진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빈곤 퇴치 목표달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그 방식이 여성과 남성의 인권에 기초해야 하며, 여성과 남성의 개발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야

62) Mason, A. D. & King, E. M. (2001).

63) World Bank (2002).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과 공동으로 사회적 정책결정과 복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KOICA의 성 평등 증진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하는 것이다.

성 불평등은 여성들의 빈곤탈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사장시켜서 결국 빈곤을 악화시키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빈곤을 영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성들의 지위는 보건, 영양상태, 자녀의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십년 동안 성 평등을 향한 진전이 있었지만, 빈곤 퇴치에서 성 평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다)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와 성 평등

폭력적인 정치적 갈등의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발도상국의 시민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기후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들도 속출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재해지역이나 내전지역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복구과정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거의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여성들과 아동들은 갈등상황과 전후 복구 상황에서 벌어지는 무법천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많은 갈등지역에서 강간과 아동과 청소년들을 납치하여 군인과 성노예로 삼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안 1325⁶⁴⁾는 갈등의 예방과 평화구축을 위한 모든 행동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KOICA는 현재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분쟁피해지역에서의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활동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분쟁피해지역에서의 여성인권 보호와 여성들의 주요 의사결정과정 참여 지원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과 성 평등

KOICA의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증진’ 목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 2항에서 규정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세 번째 목표로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목표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KOICA가 우선 주력해야

6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할 과제는 사업개발을 위한 정책대화에서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할 수 있는 수원국 정부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교류, 연구조사 등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KOICA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관련 성 평등 이슈는 여성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들, 아동노동 문제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에는 공식적인 고용을 통한 합법적인 이주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되어 가내 서비스, 유흥산업 및 성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미등록 이주여성들이 존재한다. KOICA는 이러한 여성과 아동들의 인신매매방지나, 선진국 내에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인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진 공여국들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능한 지원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나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이주노동자, 아동노동,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수원국 내 연구기관들과, NGO들, 다자간 원조기구들⁶⁵⁾과의 파트너십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⁶⁶⁾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CEDAW와 UN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Final Protocol, 발효일자:1951.7.25, 국내 발효일자:1962.5.14)〉 등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이다.

3) ODA 사업들을 포괄하는 사업분야들과 성 평등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은 여성 혹은 남성들에 대한 성 차별이 두드러져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여성의 교육·보건 개선사업’과 같이 특정 성별에 초점을 맞추는 좁은 의미의 성 평등 사업에서만 아니라, 여타 다른 목표들을 가지는 일반 사업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KOICA는 현재 MDGs 달성에 부합하며, 개도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KOICA의 분야별 중점지원사업 분야는 보건의료, 교육,

65) 관련 다자간 국제기구들로는, ‘일다운 일자리’를 의제로 하는 ILO,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스마트한 경제계획으로서의 성 평등(Gender Equality as Smart Economics plan)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 각 지역의 개발은행, UNDP, UNIFEM, UN Commission on the Legal Empowerment of the Poor 등이 있음.

66)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AusAID (2007).

행정제도, 정보통신, 지역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등 총 7개 분야이다. 이 밖에도 KOICA는 국내초청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해외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포괄하는 개발원조의 기본 주제들은 개도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교육수준 제고에서부터, 경제개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기반시설, 농촌지역 사업개발 등 성장동력 창출, 거버넌스와 민주적 시민사회 강화, 공공부문 개혁, 법체계의 선진화, 정부간 NGO들 간의 국제협력과 교류, 평화구축 등 다양하다.⁶⁷⁾

KOICA는 이와 같은 ODA의 관련주제들과 관련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여성인권과 성 평등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 평등 지침서들을 개발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 주제들이 성 평등 이슈들과 어떻게 연관되며 각 주제들과 관련된 성 평등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 장의 2, 3, 4절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 KOICA 성 평등 정책(안)의 개요

□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 평등의 실현은 KOICA의 모든 개발원조 활동의 기본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목적이다.

1. 이 정책(안)의 추진근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로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과 빈곤퇴치, 인간안보와 함께, 개발 원조에서 여성인권과 성 평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여성인권과 성 평등은 모든 KOICA 개발원조 정책과 프로그램, 사업에 통합되어야 하는 목표이자 원칙이다.

2. 이 정책(안)의 목적은 모든 개발협력 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과 성 주류화, 여성역량강화 접근을 통해 세계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과 빈곤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도국의 성 평등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 본 정책(안)은 ‘섹터로서의 젠더’와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를 동시에 이슈로 삼는 OECD/DAC의 성 주류화 이중전략에 따라, 우선 각 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5대 성 평등 주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여성의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강화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67) 이러한 ODA 관련 주제들은 연구자가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 OECD/DAC 회원국들의 성 평등 정책기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KOICA의 중기전략은 주요 정책 방향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정하고 중점 지원 대상 국가 및 분야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제들 중에서 각 사업들이 집중해야 할 주제영역들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정책(안)에서는 각 주제들과 성 평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또 어떠한 기본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KOICA의 정책연구가 진행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 여성인권증진
- 모든 개발협력 관련 집단들의 성 주류화 추진역량강화(공여국, 수원국 모두 포함)

3. ODA 기본목표들과 성 평등 정책방향들의 통합추진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개도국의 빈곤퇴치, 개도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 보건과 교육에서의 성 평등에 대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모성사망을 감소, 아동의 교육과 건강 수준 개선, 가구소득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함.
- 교육과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은 경제성장 저해, 토지와 생산 자원에 대한 접근력에서의 불평등은 농업의 생산성 감소,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 역량이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함. 반면 경제분야에서의 성 평등 실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감축에 기여함.
- 여성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사회의 부패수준이 낮아짐.
- 여성인권의 증진은, 여성들의 안전한 성(safe sex)에 대한 협상능력을 강화하여 HIV/AIDS의 확산을 막고, 자연재해·정치적 갈등·무장투쟁 상황을 포함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당연시 혹은 간과해온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여성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발전에 기여함.
-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이해의 중요도에서의 차이와, 성역할과 젠더관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과 개발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함.

4. 개발원조 정책의 실행을 통해 개도국의 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ODA 사업관리의 성 주류화 추진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외무상원조는 국가지원전략(CAS)을 설정하여 해당 수원국의 요구를 반영한 공여국의 원조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지원 전략은 성 평등을 그 목표로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성 주류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 성 평등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별 정책 대화에서 개도국의 파트너 정부로 하여금 가장 시급한 성 평등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하는 공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원국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이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 국가지원전략에 기반하여 대외무상원조의 관련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에 성 평등 증진을 위한 목표, 지표, 세부과제들을 통합하고, 중점 사업 분야들의 개별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기획초기 단계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단계에 일관되게 성 평등의 주요 정책방향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들이 개발협력국들과의 우호관계 증진과 수원국의 필요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에 반영되어야 한다.
 - 대화 및 협의를 통한 성 평등 과제 및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 성 평등 실현 및 원조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 남녀파트너십을 통한 성 평등의 증진 노력이 중요하다.
 -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개발협력국가들과 협력하여 성 평등 실현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책도구들을 통해 개도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성 평등 성과를 달성하고, 성 평등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친 공헌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모니터링과 평가에 따른 원조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다음 원조시행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가이드라인

이 절에서는 KOICA에서 이제까지 사업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원조가 국가지원전략(CAS)을 기초로 사업 분야(sector), 사업유형별 지원을 강화하게 됨에 따라 국가지원전략(CAS)의 성 주류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의 필요성

1) 국가지원전략(CAS)⁶⁸⁾의 중요성 및 한국의 현황

공여기관들은 개도국이 수립한 국가개발계획이나 빈곤감소 전략을 바탕으로 자국의 원조전략 및 지원계획을 제시한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이하 CAS)을 수립해 왔다. CAS는 특정 국가의 효과적인 원조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일단 지원할 국가가 선택되면 CAS를 통해 원조 분야와 영역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특정 국가발전에 대해 컨설팅을 4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국가 프로그램의 검토와 관리를 위한 주요한 도구(tool)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의 경우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는 CS(Country Strategy)와 COP(Country Operations Plan)로 구성되어 있다. CPS는 특정국가의 ADB의 운영을 가이드하고 지원할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와 모니터링 및 평가도구로 활용된다. ADB의 CPS는 3년 단위로 준비되고 있으며 매년 수원국의 담당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기구 외에 선진 공여국의 경우 영국의 DFID, 캐나다의 CIDA, 호주의 AusAID, 스웨덴 Sida 등이 CAS를 활용하고 있고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발전시키고 있다.⁶⁹⁾

CAS는 그 동안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1) 공적개발원조의 비효과성: 조율되지 않은 공여국의 원조는 중복되는 경향이 많아 개도국에 대한 원조자원을 낭비하게 됨. 경제자유화에 따른 유상원조는 수원국의 공공사업 약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 개도국 정부의 부채상황 악화를 야기함, 2) 선진 원조공여국의 경제위기 및 예산에 대한 책임성 강화: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공공재원에 대한 세금사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압력이 강화됨. 3) 미시적, 사업 특화적 원조에서 거시적, 장기적, 경제사회 개발전략의 필요성 등장: 다양한 공여국이 각 국가의 비교우위에 따

68) 국가지원전략은 Country Assistance Strategy로 한 국가의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말함. 이하 서술에서는 CAS로 명명함.

69) 정유아 (2009). Tolentino, Bruce (2009).

른 원조를 사업형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수원국의 원조가 어떠한 효과를 생산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음. 따라서 수원국의 거시적 국가 전략에 따른 공여국의 CAS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강령 등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CAS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2006년부터 국가지원전략(CAS)을 작성하여 2008년 현재 11개 국가지원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무상원조사업은 2007년부터 외교통상부에서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하고 2008년 현재 19개 국가지원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상, 무상원조의 국가지원전략이 공개되지 않아 선진 공여국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보다 나은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베트남 지원에 대한 세계은행과 한국의 외교부 CAS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CAS는 그 구성요소가 세계은행에 비해 단순할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간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KOICA, 세미나자료집).⁷⁰⁾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지원전략은 전략선택의 배경, 구체적 전략의 정의, 예산 및 협력방안, 실행계획, 성과평가계획, 위험관리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의 개별 사업을 합쳐 놓거나, 개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지원전략이 머무르고 있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전략의 성과가 평가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개발협력에 있어 공여국으로의 전환이 선진 공여국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국제사회에서도 CAS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 오래 되지 않아 한국의 무상원조 전략이 CA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의 ODA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CAS를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 국가지원전략(CAS)의 성 주류화의 중요성

2010년 우리나라의 OECD/DAC 가입으로 인해 동료검토(Peer review)에서 지적되었던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방안 마련이 국가지원전략 전반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지원전략이 수원국과의 개발협력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의 초기 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사용되는 문서인 만큼 전략 수립 단계부터 성 주류화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제적 흐름을 볼 때 공적개발원조가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성장을 통한 사회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70) 한국국제협력단 (2009c).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개도국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원조의 방향이 개도국의 국가개발계획 실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가 전략단위, 원조 성과의 측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크로스 커팅 이슈로서 젠더가 부각되는 국가지원전략의 성 주류화 방안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지원전략의 성 주류화가 필요한 이유는 한 국가와 국가의 구성원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주요 기준 중의 하나가 젠더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젠더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빈곤퇴치에 장애가 되며, 인간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상대적으로 평등할 때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빈곤층은 빠르게 가난에서 벗어나며 여성, 남성과 아동의 복리가 증진된다. 국가지원전략의 성 주류화는 수원국의 젠더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젠더를 고려한 행동(action)을 취할 수 있어 효과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빈곤 감소와 경제적 성장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과 젠더 차이를 명확히 하면서 결과지향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국가지원전략의 성 주류화는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에서 강조하는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1970년대 이후 공여국의 경제위기는 ODA 예산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1991년 이후 북구유럽 경제위기시, 노르웨이 10%, 스웨덴 17%, 핀란드 62%까지 ODA가 감소하였고 일본은 1990년대 44%까지 감소하였다. 향후 5년간은 세계경제위기로 전반적인 ODA 예산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전반적인 개발협력 예산규모의 감소 및 경제위기로 인한 개발위기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⁷¹⁾ 이러한 공여국의 경제적 형편으로 원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MDGs,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아젠다가 더욱 증가해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과 성별 격차를 반영하는 원조의 목표와 전략은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동일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성별 격차를 반영하는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KOICA는 앞 절에서 서술한 성 평등을 목표로 성 주류화된 대외무상원조의 정책에 따라 국가지원전략을 성 인지적으로 수립 및 실행하며, 사업 분야 및 개별 사업 역시 성 주류화된 정책과 국가지원전략에 부응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성 주류화 된 국가

71) 한국국제협력단 (2009c).

지원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표-31] CAS의 성 주류화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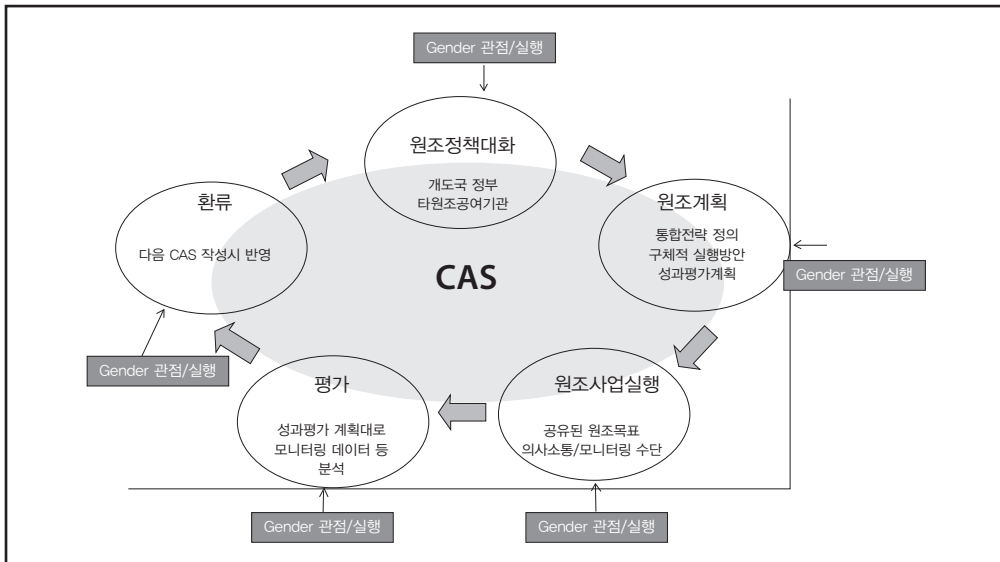
항목	내용
개발협력전략	국가지원전략에 따른 국가계획, 다자 조직과의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전략은 통합된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제적 기준과 함께 국가계획이 중요한데 만약 수원국에서 양성 평등 정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민사회가 현존하는 성별 격차를 감소·제거하기 위한 국가계획이나 우선순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증진시켜야 한다.
프로그램	국가계획에 기초한 분야별 프로그램은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분석, 의사결정, 이행과 사후 관리는 성 인지적이어야 한다.
사업 분야 및 개별 사업	사업 분야 및 개별 사업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의 다른 영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차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역량강화	분야별 프로그램과 사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과 남성의 역량이 발전되어야 한다.
계획과정	본부와 현장에 있는 관리자와 스태프에게 양성 평등과 성 주류화의 영역에서 자원, 동기, 능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된 관리자와 스태프는 국가지원전략의 계획의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	모니터링과 평가는 국가지원전략의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과 최종 결과가 성 인지적으로 수행되고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협력지원에 의해 어떻게 여성의 조건이 향상되었는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면 빈곤 퇴치라는 목표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와 소통	파트너 정부와 다른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양성 평등에 대한 주요한 영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이슈를 선택하여 대화할 수 있다.
협력과 조화	양성 평등을 위한 조치가 다른 공여국 및 국가개발계획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공여국과는 양성 평등에 대해 공통적인 방향을 취하고 파트너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양성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을 개발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의 가이드라인

1) 성 인지적 CAS의 절차

국가지원전략은 수원국의 요구와 KOICA의 비교우위를 통해 해당 수원국을 지원하는 전략을 말한다. KOICA는 새로운 개념의 CAS를 모형화하고 있는데 성 주류화는 이러한 CAS의 모든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CAS 모형에 성 주류화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전(全) 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그림-8] 국가지원전략의 성 주류화⁷²⁾



CAS의 단계별 절차 및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AS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개도국 정부 및 타 원조공여기관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해당 국가의 지원의 내용 및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성 인지적인 목표가 공여국과 수원국간에 합의되고 동의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목표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효과적인 CAS를 이행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원조계획단계로 원조대상 국가의 통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이다. 통합적인 전략은 해당 국가의 남녀의 차이 및 젠더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 수원국의 문화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실행단계에서는 실행방안과 성과평가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논의하되 성 인지적 관점에서 남녀의 차이나 여성내부, 남성내부의 차이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제 실행이 이루어질 때 CAS의 성 인지적 목표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 및 도구가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는 실행이 이루어지면 원조계획 단계에서 마련된 실행의 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모니터링 결과 실행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실행 안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72) 정유아 (2009) 14쪽에 나온 '국가지원전략 프로세스'에 성 주류화를 추가시킨 내용임.

야 한다. 또한 CAS 수립당시의 성과평가계획에 근거해 어느 정도의 성과에 도달했는지를 살펴본다. 만약 성 인지적 성과평가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이유를 자료 분석(사전조사 자료 및 사후조사 자료 분석) 및 대화를 통해 파악한다. 평가단계에서 분석된 내용은 다음 CAS 수립 시에 반영하여 보다 결과 중심적이면서 효과적인 CAS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OICA는 개도국 정부와 타 원조 공여기관과의 열린 대화 창구를 통해 수원국의 필요 및 공여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야 원조에서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국가지원의 목표가 성 주류화 되고 각 단계를 거쳐 실제 이행되며,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성 주류화된 CAS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성 주류화된 CAS의 사례를 제시⁷³⁾하고 이행하고 있는데 4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성 주류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OICA의 성 인지적 CAS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전 하나의 사례로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비전(vision) 단계로 이 단계는 CAS 비전에 젠더가 포함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젠더 이슈에 대한 수원국 자체의 접근, 수원국 자체의 개발전략 및 개발전략에 젠더이슈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만약 수원국 개발 전략에 젠더 이슈가 보이지 않거나 수원국의 젠더 이슈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공여국이 자체적으로 성 인지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젠더 이슈를 MDGs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MDGs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성취해야 할 목표가 되어 각 국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MDGs의 목표는 여성에게 특화된 목표와 젠더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젠더가 명시적이지 않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게 형평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MDGs의 달성 과 해당 국가의 지원전략이 성 주류화되어 동시에 병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성 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를 활용하여 CAS와 MDGs를 연계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비전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CAS팀은 CAS를 준비하는데 있어 시민사회, 사적영역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컨설팅 과정을 설계한다. 컨설팅 과정에서 젠더 이슈를 제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젠더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런 과정에서 행동계획 뒤에 숨겨진 지역의 지지자를 형성할 수 있고 여성부나 국가적 차원의 여성관련 기구, 여성이나 젠더에 초점을 둔 시민사회조직을 컨설팅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73) World Bank (연도미상).

두 번째 단계는 CAS에 있어 젠더 이슈를 일관되게 제기하는 진단(diagnosis) 단계이다. 국가전체와 젠더와 관련된 경제적, 사업별에 대한 성 인지적 평가를 시행하고 성 인지적 평가의 결과가 CAS에 반영되어 수원국과 대화하는데 통합되도록 한다. 다양한 사업에서의 젠더이슈를 제기한다. 젠더 이슈는 여성과 남성 각각의 이슈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젠더 불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가진 불평등한 기회, 권리, 자원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나는 요구, 한계, 기회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를 프로그램의 선정과 기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성 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영향 지표 및 결과 지표(gender-sensitive impact and outcome indicators)는 가장 중요한 젠더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훌륭한 진단은 젠더 이슈 자체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개별 분야의 젠더 이슈가 전체 국가개발의 목표 및 전략과 연계하여 일관성과 통일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프로그래밍 단계로서 젠더 이슈에 대응해 취할 행동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성별 격차에 대응해 취해질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만약 국가적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면 수원국이 실시할 사업과 어떻게 조율할지 파악한다. 새로운 CAS를 작성하기 위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과거의 CAS가 젠더이슈를 다루었는지를 평가하여 현재의 CAS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젠더이슈가 수원국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한다. 파트너 국가가 수원국의 젠더 이슈를 어떻게 제기하는지를 이해하여 중복을 피하고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표의 활용은 성별 격차를 고려한 행동과 컨설팅 과정의 설계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단계는 결과 단계로서 성 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지표를 사용하여 더 나은 평가를 유도한다. 결과지향적인 개발 협력을 위해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한다. 성 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지표, 성별분리통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다. CAS 보고서는 결과, 과정, 투입 지표를 결정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성 인지적 CAS의 각 단계별 내용

여기서는 CAS의 각 단계별로 성 주류화를 위한 내용과 점검사항을 제시한다.

가) 원조정책대화 단계

국가지원전략을 계획하고 이행하며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대화를 통하여, KOICA와 협력 파트너는 정책 환경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한다. 정책대화는 성 평등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자들과 함께 하는 중요한 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식적인 자문 집단, 워크숍, 공청회와 다양한 루트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문제 및 해결방식에 관해 논의한다.

CAS팀은 CAS를 준비하는데 있어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컨설팅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⁷⁴⁾ 젠더 이슈를 제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젠더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과정상에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숨겨진 지역의 관련자도 포함할 수 있다. 여성부나 국가적 차원의 여성관련 기구, 여성이나 젠더에 초점을 둔 시민사회조직을 컨설팅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파트너와의 대화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성 평등과 관련된 가능성, 필요, 기회, 공간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대화가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원조정책 대화 시 성 인지적 분석의 틀을 잡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고려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⁷⁵⁾

74) 국가계획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했고 해당 분야의 필요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컨설팅이다. 컨설팅은 자료수집 및 분석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분석 이후 바로 이어져 이루어지기도 한다.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 파트너 정부, 시민사회, 민간분야, 다른 공여국 및 기관, 특정 주제 전문가, 정부부처, 공여국 국민들 - 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대상에 따라 미팅, 서베이, 웹포럼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개방되고 다양한 컨설팅을 위해 영국의 DFID는 개방된 국가계획을 위해 12주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Mulakala, Anthea (2009).

75) 계획단계에서 나오는 “성 인지적 분석 틀 형성 및 계획 수립시의 원칙”을 정책대화에서도 활용한다.

특히 정책대화 파트너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대화 파트너 선정 시 고려사항	
1	여성부 또는 각 부처 내 여성국·과와 같이 젠더이슈를 다루고,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국가적 여성 기구”가 있는가?
2	성 평등 촉진에 역점을 두는 여타 기관 및 NGO 단체가 있는가?
3	이러한 기관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4	이러한 기관들의 제도적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 성 인지도 훈련, 홍보 및 지지, 성 분석, 젠더기획 및 실행역량, 원조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의 경험 등
5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젠더 및 개발목표를 다루도록 할 수 있는가?
6	국가지원전략 또는 사업에 있어서 KOICA의 개발원조가 효과적으로 리더십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7	어떤 수원기관이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젠더이슈를 고려하는 것을 보다 잘 수용할 것인가? · 어떤 기관이 이러한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보다 개방적일 것인가?
8	장래 KOICA의 개발원조를 수혜할 수원기관과 수원국의 여성기구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9	이러한 수원기관이 사업 기획과 실행에 있어 남녀의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할 역량 및 책임을 가졌다는 가능성이 보이는가?
10	이러한 수원기관이 수행했던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울 어떤 교훈이 있는가?

성 평등을 위한 정책대화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① 국가, 지방 그리고 분야에 있어서 성불평등의 범위와 성불평등의 극복을 위한 전략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
- ② 특히, 대화의 기본 자료로서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과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통하여, 시민사회 협력기관 · 제도권 · 정부와 모든 정책대화에서 성 평등에 대해서 언급해야 함
- ③ 성 평등을 증진하는데 있어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험 및 교훈, 모범 관행에 대해서 협력파트너들과 공유함
- ④ 정책대화 활동을 성 평등을 고양하기 위한 진입점과 기회 및 제약점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활용함
- ⑤ 정책대화 과정 중에 성 평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여성조직이 접근하고 참여하는 것을 장려함

나) 계획 단계

계획단계는 지속적인 원조정책대화를 전제로 개발협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계획단계에서 원조의 성 주류화를 위해 계획수립의 원칙, 국가 성 인지적 프로필 개발을 위한 점검사항, 성 주류화 전략의 목표구성, 성과평가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 계획 수립의 원칙

국가별 원조계획을 구상할 때는 성 인지적 분석(gender-based analysis)의 틀을 잡고 분석의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32] 성 인지적 분석 틀 형성 및 계획 수립시의 원칙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주어진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면 모든 것을 포함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더욱 정교하고 더욱 중심이 잡힌 대답들이 유용하다.
기존 성과를 참고하고 고려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립된 연구기관, 공여국과 다자간 기구, 정부, NGO에 의한 다양한 분석이 이미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언급하고, 사용하고 고려해야 한다.
유용성과 연관성에 기초하여 틀을 잡아야 한다	분석과 연구가 의미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분석의 목표와 그 결과가 어떻게 쓰일지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제기된 질문과 자료 수집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질문이 제기된 방식은 어떤 답이 주어져야 하는지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여성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남성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소년들은 일을 하는가? 소년들은? 그들이 각각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전자의 질문과는 다른 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류검토는 한 종류의 자료만 줄 수 있고, 인터뷰나 참여 관찰에 의한 자료와는 다를 것이다.
성별분리통계를 요청하고, 성 인지적 분석을 요구하라	통계는 성별로 분리하여 성별 격차를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의 참여율은 남녀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성별분리통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통계적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때 해당 사회에서의 젠더관계(여성과 남성의 가정내 역할, 인적 자본 형성의 성별 격차 등)를 설명하여 젠더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를 모두 사용하라	성별분리통계는 성 인지적 분석에 필수적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불평등은 사법제도, 규범과 태도에 모두 표현된다. 그러므로 성 인지적 분석은 통계, 묘사, 사실들, 분석의 종합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시적 관점의 정보들이 미시적 정보들과 더해지면 더욱 풍부한 분석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최초의 보고서를 요청하라	분석에 사용되는 보고서를 누가 분석을 했는지 알아본다. 분석은 누가 분석했느냐에 따라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고서가 산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를 아는 것은 보고서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사업의 컨설턴트는 젠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젠더 전문가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초의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의 관점을 이용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도 고려하라. 그리고 여성·남성·소녀·소년 중에서도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라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여성과 소녀의 관점만을 서술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의 관점을 드러내면서 그 사이의 차이점들을 밝혀내는 것이 유용한 정보가 된다. 여성·남성·소녀·소년 중에서도 인종, 계급, 성적 지향 등에 따른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젠더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다른 관점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이라는 용어를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라	때때로 귀찮을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집단 간의 차이를 가시화 시키는 방법이 된다. “사람”이나 “대상 집단”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여성, 소녀, 소년들을 비가시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질문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젠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와 같은 말을 피하라. 이러한 제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무도, 당신 자신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 국가의 성 인지적 프로필 개발⁷⁶⁾

수원국에 대한 자세한 성 인지적 프로필이 필요하다. 프로필은 컨설팅트에 의해 문헌 조사와 주요한 행위자들(예를 들어 정부 부처들, NGO, 연구기관, 연구자들)과의 인터뷰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프로필은 전략분야에 있어 추가로 조사되어야 할 것들을 제한할 수도 있다. 프로필은 너무 길지 않게 작성하고 추가 정보는 부속 문서로 제공될 수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분리통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그런 통계가 없다면 이 지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먼저 수원국의 상황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한다.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목표치에 젠더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파악한다. 국가개발 목표에 젠더에 관한 목표치가 있다면 수원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에 도달할 것인지를 파악한다. 만약 수원국의 전략과 목표가 적절하지 않는다면 수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 가능한 방향을 논의한다.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 젠더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젠더 이슈를 제기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 네덜란드가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전략이 마련되기 전에 개입하여 젠더이슈를 통합시킨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⁷⁷⁾ 수원국의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와 현실을 파악한다. 성 인지적 지표와 성별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누가 계획단계에 참여하고,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누가 계획 실행의 수혜자이며, 여성과 남성에게 해당 전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양적, 질적 방법 및 기존 연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파악한다.

76) 여기서 말한 프로필 개발의 항목은 정책대화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77)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을 참고함.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기존의 성 인지적 프로필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해야 할 때도 있다. 다른 공여주체도 국가별 성 인지적 프로필을 정기적으로 작성하므로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성 인지적 프로필은 국가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탁월한 도구가 된다. 이는 파트너 국가의 성 인지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있어 투입 요인과 지식을 제공한다. 성 인지적 분석은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 프로파일의 차원에서, 특정 사업의 맥락에서도 가능하다. 개발의 맥락에서 성 인지적 분석은 성별 격차를 드러내는 진단적인 요소가 된다.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은 함께 쓰일 수도 있고, 분리되어 쓰일 수도 있으며 맥락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표-33] 국가의 성 인지적 프로필 점검사항

국제적 프레임워크 (framework)와 우선사항		- 2000년 유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8개 목표에 수원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 기간 중 수원국 정부가 성 평등 달성을 위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가? 12개 조항에 대해 수원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 UN 여성위원회(CSW)의 모든 종류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18개 조항에 수원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실질적 젠더요구와 전략적 젠더 요구(78)의 충족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어떤 기회가 있는가?
		- 고위급 협의에서 현행의 국가·분야별 프로그래밍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다루고 있는가?
국내 프레임워크 (framework)와 정책	주요 정책의 성 평등 포함정도 확인	- 젠더 이슈를 다양한 사업에 통합시키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가? - 국가계획이나 여성과 관련된 법에 양성 평등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만약 국내에 양성 평등 정책이 없다면 이를 위한 정책마련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통해 양성 평등 목표 및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생산, 고용, 실업, 공식·비공식 분야 등에 여성과 남성의 참여에 있어서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사회경제 상황	여성·남성·소년·소녀에게 미친 사회 경제적 발전의 효과를 분석한다. 주도권, 프로그램과 주요 결과에 대한 개관을 포함한다. 교육, 보건, 사회 정책과 성폭력은 이곳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78) 실제적 요구는 특정한 맥락 내에서 즉각적인 수요(식수, 주거, 음식, 소득 및 보건의료)로 정의될 수 있다. 실제적 요구를 다루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생활환경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 전략적 요구는 사회 테두리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관심들은 각각의 맥락에서 다양하고, 노동·자원·권력에서의 성 구분뿐만 아니라 역할과 기대와도 관련되어 있다. 전략적 요구는 법적 권리의 획득, 임금격차의 해소,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의사결정권의 증대 및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지속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적 요구 및 전략적 요구는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의 계획에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 프레임워크 (framework) 와 정책	사회문화 상황	여성·남성·소녀·소년의 성별 역할과 책임을 구성하는데 있어 사회 문화적인 특징은 중요하다. 규범, 전통, 태도, 문화적 제도 등이 포함된다.
	사법 제도와 성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	여성·남성·소녀·소년의 차이를 주목한다. 여성인권, 성적 권리, 아동의 권리, 소년의 권리, 소녀의 권리를 구분한다.
	정치적 상황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층위에서 여성과 남성의 정치 참여를 분석한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미디어와 IT	미디어와 IT에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분쟁	분쟁 중 또는 분쟁 이후의 상황에 있는 국가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관점이 동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분쟁 국가에서 여성과 소녀의 영향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평화 유지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촉구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2000)와 분쟁 국가에서 군인을 포함한 남성들에 의해 행해지는 성폭력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20(2008)에 따라 분쟁 예방과 해결, 평화 구축과 재확립에 있어 젠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상황	소녀와 소년들만을 위한 분야를 추가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 인지적 분석에서 흔히 소외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 집단의 교육, 폭력, 보건, 노동, 성적 권리와 인권이 포함된다.
	주요 문제와 기회구조	각 국가는 성 평등과 관련해서 국가마다 풀어야 할 특정 문제들이 있다. 그러한 문제들이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자료 활용	성별분리통계, 각종 인터뷰 자료, 기존의 연구결과물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여 성 주류화를 위해 활용한다. 각각의 자료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③ 성 주류화 전략과 목표 구성

국가, 사업별 분석결과에 따라 성 주류화의 전략을 선택한다. 성 주류화 전략은 프로그램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도 있고, 특정 이슈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국가개발계획의 성 인지적 검토, 다양한 성 분석,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사업 분야별로 성 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KOICA의 비교우위분야를 고려하여 특정 분야를 선택한다. 다른 파트너 국가가 수원국의 젠더 이슈를 어떻게 제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한국의 CAS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고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피한다.

이러한 과정에 수원국과 공여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분석결과 및 보다 나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이 논쟁이 되고 보다 나은 전략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한다. 이러한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형평성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성 주류화 전략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양성 평등을 위한 환경진단을 할 수 있다.

SWOT 매트릭스		
	강점(Strengths) 현재의 이슈와 상황에 대한 긍정적 특성이나 장점	약점(Weakness) 현재의 이슈와 상황에 대한 부정적 특성이나 단점
기회(Opportunities) 이슈나 상황을 향상시키거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인이나 상황	S-O 분석 어떻게 하면 강점이 발전기회를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W-O 분석 어떻게 하면 약점이 발전기회에 이득을 줄 수 있도록 극복될 수 있는가?
위협(Threats) 이슈나 상황을 방해하는 요인이나 상황	S-T 분석 어떻게 하면 강점이 기회나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위협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가?	W-T 분석 어떻게 하면 약점이 기회나 목표성취를 방해하는 위협요인을 상쇄하도록 극복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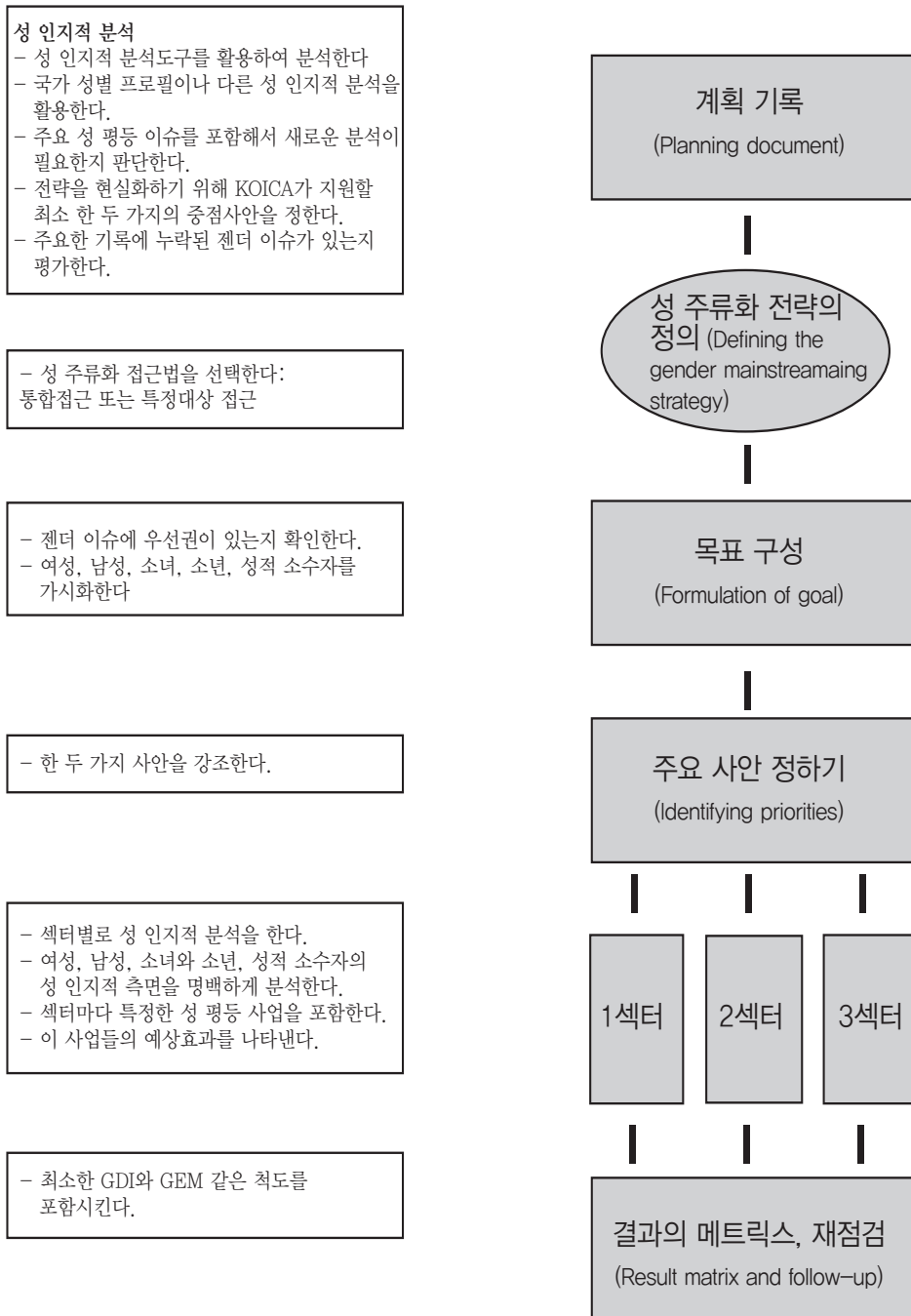
④ 성과평가의 계획

공여국과 수원국간 개발협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계획단계에서 작성되고 공유되어야 결과지향적인 개발 원조를 성취할 수 있다. 원조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협력이 이루어지면 양성 평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 예측하도록 한다. 목표에 따른 결과 지표도 함께 설정한다. 결과 지표는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준과 수원국의 특정 상황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의된 전략과 그에 따른 성과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해당 원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결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수치화할 수 있는 성과 및 정성적 지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지표는 모니터링 과정 중에 수정될 수 있다.

이제까지는 CAS 계획 단계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⁷⁹⁾

79) 이 그림은 스웨덴 원조기구인 Sida (2009)를 참조하여 변형하였음을 밝힌다.

[그림-9] CAS 계획 단계



다) 실행 단계

성 인지적 분석을 시행한 이후, 가능한 자원, 네트워크, 접근성, 이전의 경험과 비교 우위를 고려해서 젠더적 차원을 고려한 계획의 집행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정 수원국에서 어떤 분야에 적용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① 성 평등에 있어 무엇이 국가적 우선순위인가?
- ② 주요한 문제가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 그 국가에서 혹은 사회에서 여성·남성·소년·소녀 각각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 ③ 빈곤을 감소하기 위해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 국가·분야·사회의 각각의 집단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
- ④ 성 평등을 고려하기 위한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 국가·분야·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
- ⑤ 다른 공여자들의 예산 지원과 우선 사업은 무엇인가? KOICA는 어떻게 그것을 보충할 수 있으며, 협력할 수 있는가?
- ⑥ 정부에 의해 강조된 주요한 이슈들이 있는가? 생계, 폭력, 보건, 교육 등 성 평등과 관련한 이슈들에 있어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 ⑦ 국가의 성 인지적 프로파일은 어떤 분야에서 성 평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가?
- ⑧ 시작 지점은 어디인가? 여성·소녀의 권리 혹은 성 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다른 분야보다 더 접근 가능한 분야는 어디인가?
- ⑨ 주요 이해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국내·국제·지역 차원에서 성 평등을 제기할 때 주요 이해 당사자는 누구인가?
- ⑩ 잠재적인 파트너(NGO, 네트워크, 연구자들, 부서들, 민간 영역 등)는 누구인가? 성 평등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는 협력할 의사가 있는가?
- ⑪ KOICA는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분석에서 주요하게 드러난 영역에서 KOICA는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⑫ 과거의 공적개발원조의 협력은 성공적이었나?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 ⑬ 이전 사업에서 KOICA의 파트너는 누구였나? 현재 KOICA의 사업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가능한 파트너는 누구인가? 그들은 협력 의사가 있는가?

특히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 분야별 남녀의 최대 욕구는 무엇인가?
- ㉡ 이러한 분야별 사업은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 ㉢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나는 요구, 한계, 기회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를 프로그램의 선택과 디자인에 적용하라.
- ㉣ 분야간 젠더이슈를 언급하라. 훌륭한 진단은 젠더 이슈 자체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 ㉤ 분야별 남녀의 참여를 저해하는 최대 요소는 무엇인가?
- ㉥ 분야별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있어 최대 제약 요소는 무엇인가?
- ㉦ 분야별 수준에서의 전략은 이러한 장애와 제약요소를 다루기 위하여 구체화 되고 평가되었는가?
- ㉧ 각 분야에서 여성의 실제적 요구와 전략적 요구가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반영 될 수있는가?
- ㉨ 각 분야에서 과거에 실행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 평가 및 환류 단계

많은 기구에서 성 주류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여 얼마나 그 결과가 효과적인지를 추적하는 곳은 많지 않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추적하고 개발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의 상황, 가정, 지역, 사회적 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성 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필드, 제도 정부차원 등 다양한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⁸⁰⁾ 성 주류화 전략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개발협력의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파악한다. 목표가 명확하고, 실행가능하고,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시간 내에 성취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표-34] 평가단계의 지표 설정

• 무상원조의 결과가 지원 초기 단계에서 설정했던 지표를 충족시켰는지 점검한다. • 만약 결과가 그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 파악된 원인은 다음 국가지원전략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에서 설정된 결과 지표 외에 국제적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UNDP-Human Development *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UNDP-Empowerment * Gender Equity Index (GEI). Social Watch-Socioeconomic Opportunities * Gender Gap Index (GGI). World Economic Forum-Multidimensional *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Social Institutions

3) 국가지원전략의 문서개요 사례

성 인지적 분석에 따라 성 주류화의 목표가 정해지고 이행 및 결과가 산출되면 CAS 문서개요가 작성되어야 한다. 다음 표는 CAS 문서개요의 한 사례를 보여 준다.

[표-35] KOICA의 성 인지적 CAS 문서 개요 사례

목차	성 주류화
요약 (파트 1의 요약과 파트 2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요약)	○ 성 평등이 요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대중”(people)이나 “주민”과 같은 단어대신에 “여성, 남성, 소녀, 소년”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 집단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다.
파트 1. 목표와 협력의 방향	
1. 목표와 우선순위	○ 성 평등의 측면들이 목표, 우선순위, 대화의 목표, 협력 분야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이 분야에서 반드시 목표 집단이 여성, 남성, 소녀와 소년을 포함하는지 명시되어야 한다.
2. 방향과 범위	○ 여성·남성·소녀·소년의 관점이 선택된 각 사업과 협력 분야에 포함되어야 한다. ○ 성별 분석에 기초하여 성 주류화 전략을 선택한다. ○ 대화에 있어 성 평등 측면의 전략을 포함시킨다.

80) Brambilla, Paola (2001).

3. 이행	○ 어떤 이행 주체들이 성 평등을 달성하기에 적절한가? (정부부처, 시민사회, 다자 주체, 기업 등) ○ 다른 공여자들과 어떻게 성 평등을 위해 협력할 것인가를 구체화한다. (기금 협력, 젠더 네트워크 형성 등)
4. 사후 점검	○ 성 평등 목표를 사후 점검한다.
파트 2. 배경	
1. 국가 환경 분석 요약	○ 수원국 국가분석의 다양한 섹터에서 여성·남성·소녀·소년의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재의 상황에서 성 평등이 분리된 사업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한다.
2. 결과 측정기준	○ 사업의 결과는 여성·남성·소녀·소년에게 다른 영향을 미쳤는가? 가장 중요한 차이를 강조하라. ○ 성 평등 결과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라. 만약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이것도 언급하라.
3. 다자 주체 및 다른 공여자의 사업과 역할을 요약	○ 다른 공여 주체의 성 평등에 대한 적용 계획 및 실행안도 포함하라.
4. 수원국에서 KOICA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요약	○ KOICA의 지원이 성 평등에 관련해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가? 여성·남성·소녀·소년간의 차이를 강조하라 ○ KOICA가 성 평등에 관련하여 비교 우위를 가졌는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5. 목표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과 미래 협력의 방향	○ 수원국에서 어떻게 성 평등과 젠더의 측면에 지원되어야 하는지 고려하라

3.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KOICA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적용함으로써 수원국의 여성과 남성의 요구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KOICA의 사업 절차, 사업 분야,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사업 절차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이 절에서는 KOICA의 사업수행절차를 성 주류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KOICA가 국가지원전략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나 기존의 사업에 기반한 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지원전략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지원전략에 근거하여 공적개발원조가 시행해야 하므로 성 주류화된 국가지원전략에 조응한 사업수행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

업수행 절차의 각 단계별로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업 수행 절차 및 성 주류화 개입 지점

KOICA 사업의 수행 절차는 크게 9단계로서 → 1) 사업 발굴 및 협의 → 2) 사업요청서 접수 → 3) 사업타당성(정책적 측면) 심사 → 4) 사업타당성(기술적 측면) 심사 → 5) 사업선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 6) 실시협의 및 양국 간 합의 → 7) 사업실시 → 8) 사업종료 → 9) 사업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구체적인 절차와 각 절차마다 포함된 내용 및 절차별 성 주류화 적용지점은 아래와 같다.

[표-36] 사업수행 절차 및 성 주류화 적용 지점

절차단계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적용 단계 (결과문서)	수행 주체	성 주류화 적용지점 ⁸¹⁾
1. 사업 발굴 및 협의	-	KOICA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사업발굴 협의단 양국간 ODA 정책 대화 나 외교채널	○ 사업발굴을 위한 기본지침 확정 ○ KOICA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통보
2. 사업요청서 접수	공식사업요청서 접수 공식사업 요청서 long 리스트 작성	수원국 총괄기관(또는 외교부) 사업 요청기관	공식사업요청서 검토 사업형성
3. 사업타당성 1차 심사 (정책적 측면)	정책적 중요성 심사(국가지원전략과의 연계성, 개발과제와의 연계성, 원조효과성 등이 기준)	지역정책부	심사항목
4. 사업타당성 2차 심사 (기술적 측면)	기술적 타당도 심사(경제적,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 검토)	사업부	○ 심사항목 ○ 사업요청서 등 관련 자료 사전분석 ○ 전문가 자문 ○ 현장 조사 실시
5. 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예비 사업 리스트 국가중기지원계획에 따라 차년도 사업계획(안) 작성 공관(사무소)에 차년도 사업계획(안) 통보 공관의견 반영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조정 및 승인	사업심사위원회 (사업부 소관이사 주관, KOICA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사업선정 위원회(이사장 주관) 공관 사업선정위원회 외교부	○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 예비사업 선정 ○ 최종 선정 사업 리스트 ○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신규 사업 차년도 예산안 반영
6. 실시 협의 및 정부 간 합의	양국간 합의 내용 확인	양국 정부	-

81) 적용지점의 성 주류화의 구체적 내용은 각 절차별로 설명되어 있음.

7. 사업 실시	모니터링 보고서	KOICA, 수원국 및 사업협력파트	모니터링
8. 사업 종료	-	-	-
9. 사업 평가	사후 평가 보고서	평가 담당자	사후 평가

2) 사업 발굴 및 사업 선정 과정의 성 주류화 점검사항

KOICA 사업은 수원국과의 심도 있는 과제 발굴을 시작으로 사업요청서 접수 이후 사업 심사를 거쳐 양국간 합의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절차에서 성 주류화된 점검사항을 적용하여 사업 계획이 국내외 기준을 준수하면서 성 평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점검사항은 KOICA의 사업절차에 포함된 단계 및 평가 항목을 성 인지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KOICA 수행절차의 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확장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표-37] 사업발굴에서 사업선정까지의 성 인지적 점검 사항

절차	성 인지적 점검 사항
수원국과의 사업발굴 협의	- 개발원조 사업이 성 주류화를 다루는 KOICA의 정책과 부합하는가? - 수행하려는 사업이 CEDAW, 북경행동강령, MDGs, 수원국의 정책과 부합하는가? - 수행하려는 사업이 성 주류화된 국가지원전략 및 사업 분야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가? - 젠더 전문가와 여성 집단 대표가 전체 사업 발굴 과정에서 컨설팅에 참여하였는가? - 사업 발굴 협의에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는 연령·젠더·인종을 감안한 정보인가? - 사업관련 문서들(수원국 상황을 나타내는 보고서, 자료 등)은 성 평등 이슈에 관한 KOICA의 핵심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책 대화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젠더 관련 우선순위들이 분석되었는가? - 해당 사업이 과거의 성 주류화 사업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은 무엇인가?
수원국 정부의 공식사업 요청서 접수 및 사업형성	- 사업발굴을 위한 기본지침에 성 평등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가? - 사업요청서 전반에 걸쳐 성 인지적 관점을 부여하였는가? - 공식사업요청서에서 사업의 목표, 결과, 활동, 효과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및 혜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 성 인지적 분석과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기초 정보가 있는가?

▪ 사업타당성 1차 심사 (정책심사) ▪ 사업타당성 2차 심사 (기술심사)	정책 및 기술 심사 고려사항 -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업은 수원국의 성 평등 증진에 얼마나 중요한가? - 사업 이해 당사자들과의 컨설팅 및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성별을 고려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는가? - 벤치마킹 조사나 기초 조사가 성별 감수성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는가? - 성 평등 정책 목표와 연계된 사업의 결과와 성과의 혜택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성 평등 목표를 포함한 자원과 비용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여성의 참여와 개발수혜의 동등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이 예산상 적절하게 재정지원 되고 있는가? ▪ 여성과 남성의 참여 및 수혜와 관련한 목표와 전략이 사업계획·일정계획 및 사업 프레임에 포함되었는가? ▪ 사업시행조건(TOR)에 젠더 이슈를 위한 주요 단·장기 자문관 및 팀장의 책임이 포함되었는가? - 성 평등 원칙이 반영되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주며 남녀 평등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인가? - 모니터링 평가, 감사의 계획이 성 분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마련되어 있는가? - 성 인지적인 목표를 지속하거나 방해하는 외부요인들이 무엇인지 제시되었는가? (위험과 위험관리의 확인) - 젠더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포함되어 사업이 환경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견고한가? - 젠더 전문가가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참여하고 있는가? - 사업 MOU가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혜택이 남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가?
	수원기관의 역량 및 사업수행 인력 -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원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였는가? - 수원기관의 성 분석, 성 인지적 기획 및 실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화된 전략이 있는지, 이러한 전략에 비용이 소요되는지? - 사업을 실행하는 인력들의 성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졌는가? - 사업 훈련 과정에 성비 균형이 이루어졌는가? - 사업의 회의 참여자들은 성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사업의 모니터링 회의 또는 제 3자 검토 회의에서 사업관련자는 적절한 젠더이슈를 제기하는가? - 사업 담당자는 적절한 젠더 지식과 경험 등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요구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할 기구들은 젠더 이슈를 정의 내리고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 사업 수행 인력이 성 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인센티브(보상과 규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 여성과 남성의 사업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언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사업심사 및 선정위원회 구성	- 사업심사와 선정 위원회의 구성에 여성이 30%⁸⁴)는 포함되었는가? - 심사와 선정을 실시할 때 사업의 성 인지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가?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선정 이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보완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제안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는가?

3) 사업의 집행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집행 요약서(Framework Matrix)를 활용하면 사업이 성 주류화된 국가지원전략과 부응하면서 해당 사업의 내용이 성 인지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서술적 요약을 하고 사업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지표를 설정한 후 실제 해당 사업이 이행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도구를 명시하면서 각 영역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중요 전제)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예시는 사업설계 요약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표-38] 성 인지적 사업설계 및 집행 요약문(The Generic Logical Framework Matrix)

	서술적 요약 (Narrative Summary)	이행지표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증명도구들 (Means of verification)	중요 전제 및 위험요인 (Important assumptions and risks)
CAS 목표	젠더 관계가 정책·국가 수준의 목표에 영향을 끼쳤나?	성별 감수적인 목표의 성취를 증명할 지표는 무엇인가?	목표, 산출과 활동들을 증명해줄 자료들은 성별 분리되어 있으며, 성 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는가?	성별 감수적인 목표를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외부요소는 무엇인가?
사업 목표	사업은 성 인지적 감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성 인지적 감수적인 목표의 성취를 증명할 지표는 무엇인가?	어떤 성 인지적 분석 도구가 적절한가?	성 인지적 감수적인 목표를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외부요소는 무엇인가?
구성요소 · 산출	혜택들은 성별 역할과 관계를 고려하여 분배되었는가?	어떤 지표가 여성·남성에게 생긴 혜택을 나타낼 것인가?		사업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외부요소는 무엇인가?
하위요소 · 활동	사업 이행에서 젠더 이슈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가?	산출: 사업 수혜자들은 어떤 자원(물품이나 서비스)을 사업에 기여하는가? 분배: 여성·남성을 고려하였는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고려한 외부적인 자원은 있는가?		사업에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외부요소는 무엇인가?

Hambly-Odame, Helen (2000).

82) 여성의 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 제 15

4) 사업의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양자 또는 다자간 합의된 일정, 투입요소의 사용, 사업 수혜자들에 의해 이 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을 말하며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된다. 성 인지적 모니터링은 개발 사업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다른 필요를 만족시켰는지, 그들의 삶과 전반적 인 사회, 경제적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 준다. 사업 이행 과정 동안 사 업 수행을 향상시키며, 중간 수정을 가능하게 하며, 미래의 사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성공적인 모니터링은 1) 사업 이행 과정동안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는 것 2)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최소한의 분석을 요구하는 것 3) 현재 사업을 위해 마련된 지표에 집중하는 것 4) 투입 요소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과와 효과에도 적절한 강조를 하는 것을 포 함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점검되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39] 사업의 성 인지적 모니터링 점검 사항

영역	점검 사항
사업 기획시 전략과 목표의 성 주류화	- 전략과 목표에 전략적 젠더요구와 실질적 젠더 요구를 언급하였는가? - 그 전략이 시행되고 있는가? - 성 인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가? -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가?
모니터링 과정	- 사업담당자는 사업 결과물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지출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가? - 사업 평가서는 젠더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 인지적 정보들에 기반을 두 어 작성되었는가? - 사업의 최종 보고서는 성별 격차와 젠더 관련한 사업의 성공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망은 무엇인가? - 성 구분된 자료가 남녀의 참여에 의해 정기적으로 축적되고 있는가? -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명백하게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는가? - 사업의 모니터링 담당직원이 젠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 전반에 걸쳐 남녀의 욕구와 관심에 관해 남녀의 자문을 구했는가? - 사업 조직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이 되고 있는가? - 남녀 모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사업의 결과	- 여성과 남성을 위한 의도한 혜택들이 발생하였는가? - '혜택의 배분' 및 '사업의 자원과 서비스 수혜자'에 근거하여 성 구분된 자료 가 축적되고 있는가? -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가 고려되고 있는가? - 어떤 요소가 지속성을 강화하는가? - 사업 영향의 다양성을 만들게 된 요소들은 무엇인가? - 위험요소와 비판적인 전제들은 어떻게 사업을 지지 또는 방해했는가? - 남녀 사이의 자원 접근과 통제에 있어 재분배가 이루어졌는가? - 여성에게 유해하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관행을 강화하지는 않았는가? - 사업 분야의 남녀 기술·지식이 인정되고 강화되었는가? -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저해되었는가?

수원기관의 성 인지적 사업 수행 역량	- 수원기관의 역량 및 책임의식의 결여가 동등한 참여나 혜택의 분배를 저해하는가? -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는가? - 이러한 전략이 실행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사업목표 및 전략 전환 가능성	- 기존의 성 인지적인 가정과 정보가 유효하지 않다면, 사업 요소를 재구성할 여지가 있는가? -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요인이나 이슈로 인하여, 새로운 전략·목표·지침 또는 사업의 자원이 필요한가? - 모니터링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가? - 단·장기 자문관을 위해, 영역의 범위나 계약에 변화가 필요한가? - 계약자 관리가 적절한가? - 향후 젠더 전문가가 필요한가?

사업 주기의 전 과정에서 정책의 기본 틀을 성 인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 틀을 성 인지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준비는 사업 계획자, 이해당사자, 수혜자들이 해당 사업의 젠더 관계를 분석하고, 기본 틀의 각각의 수위에 따른 질문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본 틀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장기 사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기본 틀을 성 인지적으로 작성하는 하나의 예시를 아래에 제시한다. 사업 모니터링⁸³⁾에서 사업 요약 설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표-40] 모니터링의 사례: 전형적인 농어촌개발 사업에 있어 젠더 통합

서술적 요약	성 인지적 수행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자료출처	전제
1. 섹터별 CAS 목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증산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킨다.	○ 여성/남성 농부들의 곡물 생산을 증가시킨다. ○ 여성/남성 농부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 충분한 식량을 확보한다. ○ 빈곤선 이하의 인구계층을 줄인다.	○ 농촌가구조사 ○ 국가통계자료 ○ 영향평가	농산물의 증산은 빈곤감소와 남성가장, 여성가장 가구의 식량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2. 프로젝트 개발 목표: 농산물 포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관리를 통해 생산을 늘린다. 지속가능한 방법을 적용하여 농산물 생산을 늘린다. 이를 통해 수입 증가와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	○ 프로젝트 대상지역에서의 여성/남성의 평균 농산물 수확을 증가시킨다. ○ 여성/남성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 농작물 재배 훈련을 받은 여성/남성 농민의 수를 증가시킨다. ○ 식량 수요와 가내 식량 생산 간의 차이를 감소시킨다. ○ 여성/남성 농민의 생산 자원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기초조사 ○ 가구조사자료 ○ 프로젝트지역에서의 성 인지적 연구 ○ 중간평가와 프로젝트 완료 평가 ○ 농산물등록부처	○ 경제상황이 불황이나 위기상황이 아니다. ○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 있다.

83) 제시된 표는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 모니터링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의 평가이므로 제시된 표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함

3. 산출 ○ 농업 성장을 위한 정책개혁 ○ 제도적 역량 개발: 농산물 생산을 향상시키고, 농업분야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정의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남성 농민의 역량 개발: 생산 잠재력을 개발하기	○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지고 정책제안이 수용된다. ○ 성 인지적 감수성 훈련을 받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직원의 수가 늘어난다. 여성 주체들의 수가 증가한다. ○ 여성농민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증가하고, 여성의 시간 사용의 질이 향상된다. ○ 젠더 이슈를 다루는 현장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기술적인 제안들도 증가한다. ○ 비공식 영역과 NGO도 훈련과 기술전수를 공유한다. ○ 그룹 활동에 참여한 여성농민의 수가 증가한다. ○ 농업 부문에 여성 참여가 증가한다. ○ 여성농민도 신용대출을 받는 자격이 주어진다.	○ 정부 예산 분배 ○ 농작물 조사: 추이와 보급에 대한 보고서 ○ 관리/감독 보고서 ○ 중간점검 보고서 ○ 성 인지적 연구 ○ 시간사용조사 ○ 재정 신용 기구 보고서 ○ 현장 인터뷰 ○ 사례연구	○ 정부는 농산물 증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자원에 대한 여성/남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 여성/남성 농민의 생산성 차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기여한다.
4. 사업 구성요소 ○ 정책수위: 농업정책 점검과 개혁 ○ 제도적 역량강화: 인적자원개발, 직원 성별 구성의 균형, 여성을 위한 기술 개발, 대상 지역의 비공식 부문 주체들과 NGO의 참여 ○ 농민 역량개발: 생산자원에의 접근성 향상 ○ 개선된 농업 생산방법에 대한 여성/남성 농민의 훈련	○ 정책 제안들이 활발히 주어지기 ○ 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해 배정된 예산 ○ 분배된 재정의 양 ○ 지역에서의 외부직원의 성별 수 ○ 외부 기관들을 위한 인프라 향상 ○ 성 인지적 훈련 프로그램의 수 ○ 농업에서 성 인지적 감수적인 사업에 배당된 예산의 수 ○ 젠더 역량 개발에 있어 비공식 부문과 NGO와의 파트너십 ○ 수혜자에 있어 적절한 성별 균형, 여성의 프로젝트 인센티브에 대한 강화된 접근 ○ 농민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남성 농민의 수	○ 프로젝트 이행 계획 ○ 관리/감독보고서 ○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 ○ 분배 보고서 ○ 중간점검 보고서 ○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 ○ 성 인지적 연구 ○ 현장 인터뷰 ○ 사례 연구 ○ 추이 및 수퍼비전 보고서	○ 확장 정책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여성/남성 농민들의 동등한 참여를 강조한다. ○ 사회적, 문화적 규범들은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지지한다.

World Bank (2001).

5) 사업의 평가

사업의 평가는 명확하고 일관되며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기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평가는 사업이 이행되기 이전부터 이행 기간 이후까지의 과정 동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가의 목표는 예상된 산출과 효과의 측면에서 사업의 목표가 충족되었는지 결정하는 것,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 산출과 영향간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여 인과관계를 찾는 것,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떻게 다음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사업 결과에 영향을 끼친 외부적 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이끌어 내는 것과 개발 목표에 사업의

진정한 기여를 밝히는 것이다.

KOICA는 평가를 위한 평가 매트릭스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은 OECD/DAC의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젠더와 기타 분야가 크로스커팅 이슈로 평가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OECD/DAC의 5대 기준은 사업평가 시기, 평가대상의 성격, 평가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사업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성 인지적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KOICA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평가 매트릭스는 각 사업별로 하부 카테고리, 평가질문 및 범위, 조사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의 성 주류화는 평가절차에 성 인지적 관점을 부여하면서 OECD/DAC의 평가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래의 표는 KOICA의 평가 절차에 따른 평가항목을 성 주류화하고 특히 OECD/DAC 평가기준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보완하였다.

[표-41] KOICA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의 성 주류화

단계	내용	점검 사항
평가 기획	평가문서의 작성	- 평가대상 사업이나 정책관련 문서에 성 평등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평가대상 사업이나 정책관련 문서에 성 평등 관련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는가? - 성 평등 관련 기준치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하였는가? - 평가계획문서의 성 평등 분석 항목을 작성하였는가?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의 성 평등 분석 항목을 검토하였는가? - 기초 조사 및 중간 평가관련 자료가 성별, 사회경제적, 인종집단, 나이 등에 따라 분리되어 조사되었는가?
	평가위원 구성및 역할	- 사업평가자 중 여성이 적어도 30%는 참여하는가? - 사업 평가자들은 평가 이전 적절한 젠더 이슈를 브리핑 받았으며 적절한 문서들을 제공받았는가? - 사업 평가자들은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무엇을 제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는가?
평가 실시	평가방법	- 평가기관은 여성과 남성이 참여해서 대화 및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가? - 면접, 성별분리 자료, 직접관찰, 문헌조사, 사례조사, 집단토의, 지수조사, SWOT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성 평등을 측정하고 있는가?
	평가 기준	1. 적절성 - 성 평등을 위해 수립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국제적 기준과 수원국의 정책의 성 평등 정책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 기초조사 자료와 대비하여 그 변화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가? - 달성되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가 실시	평가 기준	2. 효과성 - 사업으로 인해 다양한 여성의 삶의 영역이 향상되었는가? -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남녀의 역할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사업 분야에 있어 여성의 실제적 요구와 전략적 요구가 충족되었는가? - 실질적 젠더요구와 전략적 젠더 요구가 여성의 지위 및 의사결정권의 증진을 충족했는가? - 남성, 수원기관, 여타 사회적 집단이 성역할 및 자원통제권의 변화를 수용하는가? - 사업으로 인해 남녀가 젠더 이슈에 민감해졌는가?
		3. 효율성 - 여러 투입물(input)이 성 평등을 위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 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대안이나 투입이 무엇인가?
		4. 지속가능성 - 실행한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 사업 달성 후 확보된 여성 지위의 긍정적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가? -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 사업이 필요한가? - (만약 사업으로 인한 역효과가 있다면) 성 평등에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5. 영향력 - 성 평등적 관점에 사업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 의도하지 않은 효과는 무엇인가? -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성 평등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수원기관의 역량	- 사업 기간 동안 기관의 성 평등을 위한 조직적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 조직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계약자 관리	- 전문적 지식이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젠더 이슈가 적절하게 계약 또는 용역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가?
평가 종료	검토사항	- 사업 평가에서 언급되는 용어들이 젠더에 관한 지식과 경험들을 반영하는 적절한 것인가? - 평가 보고서는 평가계획서의 성 평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여성을 사업에 통합하는데 저해요인이 있었는가? 이것이 사업 기획과 시행 단계에 있어 구체화되었는가? ▪ 젠더 이슈를 사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가 구체화되었는가? ▪ 사업 실행에 있어 이러한 전략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사업 혜택의 동등한 분배를 위한 제안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에 관한 향후의 사업추진을 위한 제언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 성 평등 관련 조사결과가 OECD/DAC의 5대 기준과 연계하여 분석되었는가? - 성 평등 관련 결론과 교훈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적절히 배포하였는가?

6) 전체 사업 주기에서 참여와 대화의 중요성

사업 수행의 전 과정동안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얼마나 참여하여 실제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젠더 이슈를 부각시키는

가에 따라 사업수행을 하는데 있어 서로 간 동의된 내용과 갈등하고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갈등 지점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많은 연구⁸⁴⁾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사업의 효과성은 사업의 대상자 및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동기부여가 되고, 참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며, 사업 효과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는 성인지적 참여의 효과, 과정 및 참여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표-42] 사업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의 효과, 과정 및 참여측정 지표

참여 효과 1. 성별 격차를 인식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가장 바람직한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지라도 꾸준한 형식적 참여가 실질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형성을 마련할 수 있음. 2. 성 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사업의 성 평등 목표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음. 3. 어떤 성 인지적 목표들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효과를 평가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음 4. 사업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빠르게 그 문제를 정의내릴 수 있고 지역 공동체와 사업 수행 기관들이 사업 시나리오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을 줄 수 있음 5. 참여는 모든 이해당사자, 사업 수행기관, 수혜자 모두의 관점과 통찰을 모을 수 있음. 6.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해당 이슈를 정의 내리고, 연구를 수행하며, 결과를 분석하고, 제안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책임을 가짐. 문제의 정의와 해결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은 가장 중요한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헌신할 것임. 참여 시기 1. 목표를 설정할 때 2. 최선의 자료수집 방법을 결정할 때 3. 사업 대상을 결정할 때 4. 자료를 모으고 분석할 때 5. 계획수립, 사업 이행할 때 6.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때 7. 결과를 보고하고 보급할 때 참여 과정 1. 주요한 이해 당사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컨설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참여자들의 수위, 범위, 상태를 점검함 · 여성과 남성을 대표하는 기구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 · 그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3. 여성을 포함하여 취약하고 약한 집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밝혀 냄

84) Campbell, Lisa and Arja Vainio-Mattila (2003); World Bank Institute (2001).

4. 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의 참여적인 과정을 조직할 수 있는 현재의 역량을 측정함. 필요하다면, 훈련, 현장 견학, 기술 지원을 통해 빠른 역량 강화를 시도함

참여 지표

1. 사업담당자들은 정책 대화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성 평등 의제들을 적절하게 제기하고 있는가?
2. 여성발전 기구와 시민단체의 대표 등이 포함되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성 평등이슈를 다룰 때 정부, 시민단체, 여성발전 기구 등이 서로 협력적이면서도 분업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3. 이해당사자 안에 얼마나 다른 경제적 배경, 다른 카스트 집단, 다른 인종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들이 다양한 여성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가?
4. 사업의 각 단계마다 여성과 남성의 투입은 어느 정도였는가? 정부, NGO, 지역 이해당사자 각각은 어떻게 개입했는가?
5. 주요한 활동에 여성, 남성의 지역 참가자들의 참여 수준은 어떠했는가?

나. 사업 분야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KOICA는 MGDs 달성에 부합하며, 개도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총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43] KOICA 분야별 사업지원

분야	핵심방향
보건의료	1.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급 확대 2. 모자보건 향상 3. HIV/AIDS 및 말라리아 등 여타 전염병 퇴치 4. 안전한 식수보급 확대
교육	1. 기초교육기회 확대 2. 직업훈련기반 구축 3. 고등교육환경 개선
행정제도	1.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 2. 행정능력 및 혁신역량 배양 3. 법 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지원 4. 민간경제 활성화
정보통신	1. ICT 분야 인력양성 2. 전자정부 구축 3. ICT 활용기술 확산
농어촌개발	1. 농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2.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3.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산업에너지	1.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2.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 3.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개선
환경 및 기타	1. 환경오염관리 능력강화 2. 지구환경보전 역량강화 3. 여성발전 및 문화역량 강화

한국국제협력단 (2007b)

다음은 사업 분야별로 현황을 정리하고 각 사업 분야별로 젠더이슈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각 사업 분야별로 국내외에서 성 인지 관점을 적용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향후 KOICA 사업 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검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건의료 분야

가) KOICA의 보건의료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 보건의료 분야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급 확대, 모자보건 향상, HIV/AIDS 및 말라리아 등 여타 전염병 퇴치, 안전한 식수보급 확대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두고 있다.

[표-44] KOICA 보건의료 분야 목표⁸⁵⁾

목표	세 부 목 표
1.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급 확대	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②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
2. 모자보건 향상	① 임산부 건강수준 향상
	② 아동 건강수준 향상
	③ 가족계획정책 수립 및 캠페인 지원, 영유아 성장촉진
3. HIV/AIDS 및 말라리아 등 여타 전염병 퇴치	① 전염병 예방
	② 전염병 관리
4. 안전한 식수보급 확대	① 안전한 식수공급 확대
	② 식수원 관리 효율화

85) KOICA 홈페이지의 사업분야 중 보건의료 분야의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 <http://www.koica.go.kr>

2008년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자료에 의하면 보건의료 분야는 전체 대외무상 원조액 중 19.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무상원조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보건의료는 기본적인 인권인 동시에 개도국 개발의 주요 분야로 MDGs 목표 중 모성사망률 감소, HIV/AIDS 예방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KOICA는 보건의료 분야를 7대 사업 분야에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보건의료 분야의 무상원조 총액은 605억 3600만원으로 국제기구에 무상원조액의 20.4%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 원조액 중 아시아 지역 32.4%, 아프리카 지역 20.1%, 중남미 지역 15.6%, 중동지역 6.1%, 동구 및 CIS에 5.4%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유형별 보건의료 분야의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젝트(57.1%), 물자지원(21.3%), 봉사단파견(12.8%), NGO지원(4.8%), 전문인력파견(1.2%), 개발조사(0.1%)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KOICA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 기반을 개선하며, 보건의료 인재육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부와 의료시설을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국가 및 지역단위의 의료서비스 향상, 보건정책 수립 역량 강화 지원, 의료차량 제공 및 운영 기술자 교육을 실시, 전국적인 응급후송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은 상류층-빈곤층간 보건 격차가 높은 편이며, 건강보험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중하층 일반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47개 저소득국의 국민은 모든 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KOICA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 등, 개도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한 기초의료보건 개선 사업을 통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능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임산부 영양소 건립, 영양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형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의료용 기자재를 지원하고, 수인성 질환 예방 및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물 관정을 설치하는 등, 일차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아동사망률은 감소 추세인 반면, 최빈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연간 10.6백만명에 달하는 5세 미만의 사망 아동 중 99%가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간 52만9천명의 가임여성이 예방 가능한 질병에 의해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성사망의 99% 이상이 최빈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KOICA는 AIDS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의료기자재 지원 및 관련 인력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HIV/AIDS 예방 및 진단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HIV 감염자중 15%가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HIV 감염이 결핵 환자수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올 정도로 HIV/AIDS는 결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40%는 말라리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아이들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되어 있다. 대다수 젊은이들의 HIV/AIDS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AIDS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 환자들의 5% 미만, 전 세계 결핵환자의 1/5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28개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말라리아 치료제의 절반이 품질 문제 혹은 약제 내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KOICA는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보급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인성 질병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식수부족이 심각한 농촌 및 산간지역, 가뭄 피해 지역 등에는 지하수 및 우물 개발 등 식수 공급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보급은 현재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11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인성 질병으로 8초에 1명꼴로 어린아이가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물 부족과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GDP의 5%인 284억불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2003년도 기준으로 총 원조액 및 채무탕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그 지원이 절실하다.

나) 보건의료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여성은 보건 분야에서 재생산자 역할과 가정 및 공동체에서의 봉사 역할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성병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산에 따른 건강관련 위험도는 전적으로 여성과 아동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재생산적 역할은 보건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의 보건관련 욕구는 재생산적 역할을 넘어 영양부족, 직장생활에 따른 건강 악화, 업무, 피로, 가족해체 및 폭력과 관련한 질병을 포함해 고려된다. 또한 여성에 대한 보건 욕구를 인권이라는 틀에서 규정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재생산 건강과 서비스의 선택에 대한 권리에 적용되며, 더불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성경시, 예를 들어 여성생식기 절단, 조기 결혼,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 착취 등에도 해당된다.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산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은 거의 비슷하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여성과 남성은 죽음의 원인, 사망률과 발병률, 보건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활용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병에 노출되는 과정이나 치료되는 방식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영양상태, 생활양상 및 보건서비스에의 접근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문화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여성의 보건과 연관이 있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 내에 성별 불평등이 발생한다.

사회적·문화적·종교적 관행과 경제적 요인은 여성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남성과 여성의 태도와 행동은 여성 보건문제의 원인과 증상 해결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적·사회적인 지위와 생활수준, 근무 환경이나 교육 등의 요인은 모두 여성의 보건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산율, 가족 건강, 산모사망률 등은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분하지 못한 영양섭취, 빈혈, 조기 임신 등은 어린 소녀들과 10대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여자 아이들의 유아기부터 성년기까지 보건과 영양섭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에이즈에 걸리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염(특히 자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성병)에 취약하다. UNAIDS('96) 보고서에 따르면, 새롭게 에이즈에 감염되는 대부분이 25세 이하이며, 여성의 수가 남성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질 점막 내부의 특성, 임신과 출산 기간 중 수혈에 의한 감염 위험성 등 때문이다.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콘돔 사용이나 일부일처제는 배우자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구체적인 여성보호 조치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에이즈 전염은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동일하게 사회경제적·심리적인 황폐화를 가져오나,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 여성의 에이즈 발병과 죽음은 그들의 특수한 역할과 책임으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에도 남성과 상이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이 남성과 차이가 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에 있어서 여성은 자원과 권력의 제한으로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재생산 건강의 영향은 아동과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에이즈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파트너의 협조가 필요하며, 에이즈 발병 이후의 사회적 낙인 또한 여성에게 심각하다는 점 때문에 보건의로 분야의 젠더 통합성이 요구된다.

다) 보건의로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 नेपाल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 받지 않기: नेपाल의 기초의료서비스 확대” [EU/UNFPA]

아시아 청년을 위한 EU/UNFPA 재생산건강 이니셔티브(RHIYA-EU/UNFPA Reproductive Health Initiative for youth in Asia)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6시간 동안 좁고 가파른 길을 운전하여 도착하여야 하는 Dolakha 지역. 이 지역에는 병원이 한 곳 뿐인데, 220,000명의 인구가 이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 지역은 강한 종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신부 거래비용, 조혼제도, 일부다처제, 아들 선호, 남성의 재산 소유 등 여러 요소들이 여성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하는 곳이다.

더욱이 이 지역의 성폭력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다. 1997년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의 조사에 의하면 95%의 여성이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중 77%는 가족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58%의 여성들은 매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진술했다. 이곳에서 여성은 무임금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있고, 폭력을 당해도 다시 친정집으로 갈 수도 없다. 결혼한 딸이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곳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폭력을 경험하지만 인권의식이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알리지 못하고, 사회적 금기와 가족의 위협은 폭력에 대해 더욱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만약 여성이 폭력 문제를 지역의 변호사와 경찰에 알린다고 해도 대부분 화해를 강조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성들은 경제적 자원 역시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정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이러한 여성상황이 존재하는 곳에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한 여성 NGO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1991년 공공의료단체<The Public Health Concern Trust-NEPAL or PHECT>가 창립되었는데 이 단체는 NGO, 비영리 기구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 종사자들에 의해 세워졌다. 이 기구의 원칙은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의 주인의식, 자립, 사람들의 역량강화였다. 이 기구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단체가 여성폭력을 처음 다룬 것은 2000년이다.

이탈리아의 NGO인 AIDS에 의한 기술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의료지원을 시작하였지만 곧 의료진들은 공동체에 기반한 교육과 남녀성별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여아들과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훈련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3년 유엔인구기금의 RHIYA 기금의 지원으로 Dolakha 지역에 작은 시설을 만들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녀와 여성들에게 재생산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운영취지와 계획을 밝히자 마을 지도자들은 “말, 말, 말만 하는 이런 곳은 필요 없다. 수도시설이나 학교 건물, 숲 프로그램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초기의 이용자는 매우 적었고, 스태프들은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학교, 사무실, 마을 회의장 등으로 나갔다. 5개월의 노력 끝에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707의 사건이 다루어졌으며, 심리상담 444건, 법적 지원 98건, 기술교육 71건, 약물상담 31건 등이었다. 그 중에 678명의 성폭력 사건이 스크린 되었다. 성폭력 중 65%는 가정폭력, 63건의 성희롱, 12건의 배우자 강간 등이었다. 또한 캠페인과 교육의 결과, 2004년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인지도가 76%에서 2006년 89%로 올라갔다.

<자료: RHIYA-EU/UNFPA Reproductive Health Initiative for youth in Asia – Good Practices>
http://www.unfpa.org/eu_partnership/rhiya/index.html

□ 남아프리카 “세 가지 연관된 위협을 깨다 – 가정폭력, HIV/AIDS, 빈곤” [영국]

영국의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남아프리카에서 소규모 대출과 젠더, HIV 교육을 통합하는 IMAGE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였다. 그 결과 빈곤한 남아프리카 여성에게 HIV 감염의 주요 경로였던 파트너에 의한 여성폭력은 55%가 감소하였다.

남아프리카의 HIV 감염률은 매우 높고 이 중 22%가 성적으로 활발한 시기의 성인 감염이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만연한 강간 역시 국가차원의 가장 심각한 과제로 2008년 한 해 5만5천여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 여성의 경우 HIV 감염 위험이 더욱 높은데, 이는 그들의 기회와 선택을 제한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때문이다.

IMAGE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은 소규모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대출 프로그램과 함께 경제적인 자급자립 강화, 젠더(성별 역할)와 HIV감염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여성들이 성적 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이고, 공동체에서 지속되고 있는 여성에게 부정적인 태도들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

IMAGE 프로그램은 발전의 세 가지 위협으로 불리우는 빈곤, 폭력, HIV/AIDS를 연관시킨 최초의 시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파트너 폭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여성에게 빈곤, 가정폭력, HIV/AIDS가 긴밀히 연관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 DFID (2007c).

□ 아시아 “우리의 문은 열려있다 : 아시아 청소년 재생산 건강 프로그램“ [EU/UNFPA]

아시아 청년을 위한 EU/UNFPA 재생산건강 이니셔티브(RHIYA-EU/UNFPA Reproductive Health Initiative for youth in Asia)

EU와 유엔인구기금은 아시아의 젊은 층을 위한 재생산 보건 관련 카운셀링과 의료 시설 제공 프로젝트인 RHIYA를 진행하였다. RHIYA는 모든 의료기관이 진보적인 청년 친화적 재생산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공공의료기관과 사적의료기관의 협력, 의료진들을 위한 훈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의식향상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EU/UNFPA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에서 협력할 지역기반을 잘 가지고 있는 NGO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네팔의 PHECT 프로그램은 여성폭력을 의료서비스에 포함시켜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의료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다.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의료시설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했다. 한 예로 2003년에 베트남의 농촌지역인 Ky Son 지구에서 기존에 의료 활동을 하던 의사 Mai의 의료 시설에 <젊은이를 위한 코너(Youth-Friendly Corner)>를 만들었다. 이곳은 세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방은 그룹미팅을 하고 관련 자료와 팜플렛을 읽을 수 있는 곳이고, 두 번째 방은 개인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곳, 세 번째 방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이후로 매일 평균 10명~15명의 젊은 층이 이곳을 이용하고 콘돔이 배포되었다.

베트남 유스 센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월~금 오전 9시- 오후 5시에서 화~토 오전 9시-오후 7시로 변경하고 라디오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처음 센터를 열었을 때는 이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04년도에는 900명의 젊은 층이 이곳을 이용하였으며, 2005년에는 이용자가 1,500명으로 늘어났다. 이용자 수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였다. 진료를 받기 위한 비용은 아주 적다.

센터는 지속적인 광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철저히 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용자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 등 다양했다. 센터 의료진은 특히 남성들에게 콘돔을 사용할 것을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함께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의 경우 거의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은 동료집단, 관습 등에 의해 남성다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파트너를 위한 HIV/AIDS 등 성병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센터 의료진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보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RHIYA 프로그램은 상담원과 의료진을 위한 훈련도 진행하였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영국의 <Save the Children>에서 방글라데시 언어로 발간한 교육책자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식과 관점 등 서비스 제공자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정부의 보건의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국가차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자료: RHIYA-EU/UNFPA Reproductive Health Initiative for youth in Asia – Good Practices>
http://www.unfpa.org/eu_partnership/rhiya/index.html

라) 보건의료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45] 보건의료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성별 분리 자료	○ 남성과 여성의 보건수준에 대한 성 구분된 자료가 수집되었는가?
	○ 여성과 남성의 보건 욕구에 대한 자료 및 분석이 있는가?
사업 목표	○ 남성과 여성 보건 인력의 선호도에 대한 성별 구분된 자료가 수집되었는가?
	○ 남성과 여성의 보건의 사업 목적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가?
	○ 사업은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보건 필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누구의 보건 욕구인지가 언급되어야 함)
	○ 사업은 여성의 전통적인 지식과 보건 기술을 인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 목표 대상 집단은 그들 자신의 보건 필요를 구체화했는가?
	○ 사업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여성의 건강 전반을 다루고 있는가?
	○ 사업은 장기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한다고 예측되는가?
보건의료 서비스	○ 사업 대상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은 무엇인가? 특정 질병의 발생에 관한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가?
	○ 가족과 공동체의 의료비용 지출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및 가족계획의 필요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 여성은 자신들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또 법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을 통해 얻은 보건 교육과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지 고려하는가?
	○ 여성의 보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 구분된 훈련과 보건 교육, 시설과 서비스 등이 필요한가?
	○ 여성이 자문 받을 수 있는 여성 보건 인력이 있는가?
	○ 보건 서비스는 비밀리에 행해질 수 있는가?
	○ 공동체에서 보건과 관련된 행위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사업의 목표가 의료기관 시설 확충일 때 여성과 남성의 접근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진료소와 병원에 여성 보건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 시설들에서 성병에 대한 진료와 예방,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해로운 전통적 관행들에 대해 의료진은 알고 있으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
	○ 여성과 남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 보건 인력은 성 인지적인 보건 교육을 받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가?

모자보건	○ 해당 지역의 모성 사망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가장 큰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연령대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가?
	○ 출산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가? 집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것이 관행인가?
	○ 조산사들은 훈련을 받는가? 어떠한 훈련을 받는가? 임산부는 어떻게 조산사와 연결되어 조산사의 도움을 받는가?
	○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금기가 있는가? 이는 어떤 영양적 효과를 가져 오는가?
	○ 여성의 임신, 출산 과정에서 여성이 여성을 돌보는 구조가 있는가?
	○ 여성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가? 여성은 이혼, 결혼, 재산권, 아동 양육, 피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여성의 피임, 출산, 낙태를 결정하는가?
	○ 피임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 낙태는 해당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나이, 결혼 여부, 아이의 수에 상관없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가?
	○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누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여성의 문맹률을 감안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가족계획 교육과 정책은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가?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 물 이용료 보조 정책이 있는가? 유산상속에 토지와 물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가?
	○ 해당 지역의 카스트, 나이, 인종, 성별, 거주 지역 등에 따른 경제 사회적 지위는 물 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 물 사용과 제공에 관한 주요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구조(지역 정부/NGO/사적 기업)는 어떠한가?
	○ 물 이용은 24시간 가능한가? 계절에 따라 물의 사용량, 필요량, 공급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는 성별과 연령, 인종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 물을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이는 성별과 연령, 인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누가 물을 운반하는가? 물 사용에 관한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 농업을 위한 물 사용과 가정 내의 물 사용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 공동체에서 물을 관리하고 물 사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개인, 집단이 있는가? 성별, 경제적 지위, 인종, 카스트에 의한 것인가?
	○ 물에 관한 사업이 여성과 남성, 노인과 아이들, 농업인과 비농업인 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공동체는 물과 관련한 사업에 비용이나 노동을 기여할 의사가 있는가?
	○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가?
HIV/AIDS와 전염병	○ 대상 지역에서 성적 접촉에 의한 질병(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TDs)이 남성과 여성 중 누구에게 보다 문제인가?
	○ HIV/AIDS는 이성애 관계를 통해 주로 전파되는가? 아니면 다른 전파 경로가 있는가?
	○ 대상 지역에서 여성의 빈곤과 여성의 성매매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매매 여성의 자기 보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나 제도가 있는가? 정부, 의료기관, NGO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 HIV/AIDS를 인지하고 보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 지역 내의 특정한 사회적 태도가 있는가?
	○ STDs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제약하는 문화적 규범이 있는가?

	○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이 지역에 퍼져 있다면, 누가 그들을 돌보는가?
수원기관의 역량	○ 수원국 정부나 수원기관은 여아와 여성 보건의 향상시키는 국가 정책이나 다른 선언문을 갖고 있는가?
	○ 수원기관의 성인지적 보건 정보와 서비스 및 훈련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가?
사업자원	○ 사업 수행 시 자원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가?
	○ 성 인지적 전문지식이 사업 전반에 걸쳐 이용 가능한가?

2) 교육 분야

가) KOICA의 교육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 교육 분야 원조사업은 기초교육기회 확대, 직업훈련기반 구축, 고등교육환경 개선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두고 있다.

[표-46] KOICA 교육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기초교육기회 확대	① 기초교육시설 확충
	②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
	③ 교육정책·제도 수립
2. 직업훈련기반 구축	① 기능인력양성
	② 양질의 직업훈련 제공
	③ 자격검정제도 수립
3. 고등교육환경 개선	① 교육시설 확충
	② 고등교육기술 전수

교육 분야는 2008년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자료에 의하면 보건의료(19.8%), 행정제도(14.3%)에 이어 교육(14.1%)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사업분야임을 알 수 있다. 분야별 지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기초교육기회 확대 분야의 지원비중이 낮은 편이며 직업훈련분야의 비중이 높고, 직업훈련 이외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분야 비중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0~2007년까지 원조액 점유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아(40.1%), 중동(21.3%), 아프리카(14.5%), 동구 및 CIS(12.9%), 중남미(5.1%)의 순으로 아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OICA 교육 분야는 기초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학교를 건립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화 지원, 교과서 보급 등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반 구축을 위해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역량강화사업, 제도구축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대 건립 및 교육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교육 분야 지원전략에 따라 분류해 보면 시설확충, 질(quality) 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시설확충은 기초교육 및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개발도상국내 부족한 교육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다. 주로 초·중등학교와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거나 개보수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실험, 실습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질(quality) 개선은 교사 및 운영책임자 등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교육 및 훈련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 프로젝트 내 초청 연수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교수 및 관리법을 전수하고 있으며, 교과과정 설계 자문 및 교과서 보급을 통해 원활한 교육내용 전달을 지원하고 있다. 관리시스템 구축은 개발도상국의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효과적인 교육재정 운용, 기술인력 검정제도 등 교육 및 직업훈련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나) 교육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교육은 여성의 지위를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이다. 교육은 인권이며 평등, 개발 그리고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 도구이다. 비차별적인 교육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혜택을 주며 궁극적으로 양성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한다.

변화를 위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 여성은 반드시 교육기회에 평등한 접근을 해야 한다. 여성의 문자해독은 건강, 영양, 교육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이며 그 사회의 의사결정에 완전히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이다. 여자성인 문해률이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세계 성인 문맹의 2/3 는 여성이다. 초등 및 중등교육의 기회가 없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여아들이다. 안전한 교통수단에서의 제한된 접근과 의복비, 수업료와 학교 준비물은 여성과 여아들의 교육과 훈련의 참여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제한된 자원에 직면해서 가족은 여아보다 남아의 교육에 더 높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기

초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낮은 문자 해독률은 여성이 그들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의 기회를 차단해 버린다.

문화, 종교, 사회적 요인은 여아의 교육 참여율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종종 여성교육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아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과목들을 강조하고, 수학, 과학 또는 상업 교육과 같은 과목 교육은 덜 강조되고 있다. 모든 교육 수준에서 교과 과정에 대한 성적 편견은 여아와 남아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 조혼, 임신 및 가사부담과 같은 문화·사회적 요인은 여아들이 학교에 남아있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가장 최고의 수단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교육과 다른 핵심적인 서비스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없다면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그 아이들은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교육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 예맨 “여성 연구 훈련 포럼(Women’s Forum for Research and Training)” [독일]

BMZ 재정지원 프로그램(BMZ-funded sector programme)의 도움으로 여성 연구 훈련 포럼(WFRT)은 “이슬람에서 여성권리 인식 증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법적 지위 향상 뿐 아니라,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WFRT는 세 가지 단계를 채택하였다. 코란과 하디스의 반가부장적 해석을 위한 해설자로 여성을 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 훈련을 통해 그들에게 이슬람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들이 법조인, 미디어, 대학 학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공적 토론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지역사회에 여성들에게 알려주었다. 훈련에 참여하였던 여성들은 다양한 전문 배경에서 왔으며, 코란과 하디스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훈련을 해 여성은 다른 이슬람 해석을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단어의 의미와 여성친화적 해석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여성은 대중 토론에서 성공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자신감을 가졌으며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세 번째는 WFRT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훈련시켜 그들이 지역 훈련가(TOT) 인력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몇몇 여성은 그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여성들은 그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발표 능력을 배웠다. 이런 사례는 “예맨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연구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훈련 기간 동안 배운 교훈을 적용해서, WFRT는 이슬람에서 여성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남성 정책결정자, 변호사, 판사, 대학 교수, 언론 대표인들과 함께 원탁회의, 대중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자료 : GTZ (2009).

라) 교육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47] 교육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성별분리 자료	o 교육참여율, 문자해독율, 출석 및 지속률, 교육성과 수준 등 모든 자료에서 성별 분리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가?	
	o 성별 격차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o 교육기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경제적 요소는 무엇인가?	
시설 확충	o 시설 건립 시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보건실 등을 고려하고 있는가?	
	o 성분리가 문화적 규범인 나라에서 여학생을 위한 별도의 연구시설이 여성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가?	
	o 여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위치에 시설을 건립하는가? (예) 교통수단 및 통학거리	
질(quality) 개선	교사 및 운영자 역량개발	o 여교사/여교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o 여교사를 위한 연수과정이 있는가?
		o 교사 및 운영자를 위한 성 평등 증진 교육이 있는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o 교과서 내용과 이미지에 성 고정관념이 제거되었는가?
		o 커리큘럼 개발 시 여성개발 이슈를 접목하는가?
		o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남녀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있는가?
	교수법 및 관리법 전수	o 성별 격차를 고려하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있는가?
		o 의사결정자로서 여성교육직원이 지원받고 있는가?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기회제공	o 교육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남성과 여성의 교육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는가?
		o 입학 및 중퇴비율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있는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o 모집, 추천, 선발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가?
		o 여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참여 경비가 있는가? (예)입학금, 교복, 구두, 교육자료
		o 장학금이나 훈련의 기회에 남녀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o 여성이 다양한 학과에 분포되어 있는가?
		o 여성 및 저소득층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는가?

관리시스템 구축	제도지원	o 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보건의서비스가 필요한가?
		o 학교운영 및 교육관련 위원회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o 성별영향을 측정하는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이 있는가?
		o 직업기술교육은 교육참여자에 대한 후속조치와 지원을 제공하는가? (예) 교육 후 비전통적인 분야의 일 자리에 대한 상담, 신용지원

3) 행정제도 분야

가) KOICA의 행정제도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 행정제도 분야 원조사업은 수원국의 인력개발과 거버넌스 개선 속도가 미비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 행정능력 및 혁신역량 배양, 법 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지원, 민간경제 활성화 4가지 목표와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2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표-48] KOICA 행정제도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	①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
	② 시장경제 정착지원
	③ 산업개발정책 수립 및 이행능력 제고
2. 행정능력 및 혁신역량 배양	① 공공 행정역량 배양
	② 부패방지 및 효과적 행정제도 구축
	③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
3. 법 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지원	① 선진 법체계 마련
	②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③ 사회안정 및 균형발전 지원
4. 민간경제 활성화	① 중소기업 육성
	② 국제무역 활성화 기반 구축
	③ 수출진흥

행정제도 분야는 수원국의 거버넌스를 개선함으로써 수원국의 국가발전동력을 강화하려는 데 초점이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개발의 기본 전제로서 수원국의 국가역량과 역량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여타 분야에 비해 우선적으로 도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OECD/DAC은 ODA 지원 중 동 분야 지원 점유율이 2000년 5% 미만, 2004년 12.4%, 2005년 9.7%(약 100억불 수준)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KOICA의 경우에도 2008년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행정제도 분야(14.3%)는 보건의료(1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행정제도 분야 원조 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KOICA 행정제도 분야 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비사업, 사후관리, 사전조사 등을 제외하고 2009년 현재 행정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에 대한 원조 비중이 가장 높고 사회안정지원,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 민간경제 활성화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하면서 그동안의 개발 경험을 수원국에 전수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특히 비교우위 분야인 인적자원개발과 행정제도분야 사업 지원을 통해서 수원국의 국가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향은 수원국의 거시적 발전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역량개발, 그리고 정보사회에서의 국가발전 기반을 구축하며, 무엇보다 각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국별/지역별 중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행정제도 분야 내용을 보면,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가 높을 뿐 아니라 개도국의 수요가 많은 분야로 KOICA는 2009년 국가의 전략계획 수립능력 배양과 산업정책개발 자문, 증권시장 개설·운영 지원, 경제개발연구소 건립 및 전문가 파견 사업을 진행하였다. 행정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은 행정관리의 효과성과 공공부문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역량강화와 선정(Good Governance)을 바탕으로 효과적 빈곤 감소에 중요하며, 주요 사업으로 고위공무원 교육원과 지방행정 역량강화, 우체국 본부청사 건립 등을 진행하였다. 법 체제 정비 및 사회 안정은 국가발전과 문제 해결 기반조성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수원국의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관연수선진화사업과 마약통제 행정역량 강화, 청소년 정보센터 신축 및 사회참여 역량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경제 활성화는 국가경제발전을 통한 효과적인 빈곤감소를 위하여 정부의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전략수립과 경제특별구역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행정제도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성 평등은 경제사회발전의 핵심이며, 빈곤을 근절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핵심 요소이다. 굿 거버넌스는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시민사회와 개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세계 거버넌스 지표’에 따르면 개도국의 경우, 정부 효과성과 시민참여 수준이 낮고 정치가 불안정하며 제도 구축과 법의 지배가 미비하고 부패방지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패는 사회발전의 장애물이 되며, 모든 사회구성원을 빈곤에 빠지게 하는 위험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제도 구축을 통해 개도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다른 역할과 지위,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가 다르다. 그 결과 여성들은 지역사회와 비공식 영역에서 실질적이고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행정 분야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여성의 요구와 이해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의 정책결정참여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성별과 무관하다고 간주되지만, 사회의 가치관과 성별고정관념 등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정책에 반영되며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함께 모든 행정제도 분야에 성 평등을 주류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하며, 여성이 안전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와 행정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여성은 성별분업으로 인해 행정제도 분야 뿐 아니라 공식노동시장에서 채용, 승진, 교육 등의 기회 접근이 부족하다.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돌봄 노동을 전담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공식노동에서도 여성은 주변화된 위치에 머물게 된다. 예를 들어 개도국 여성은 생산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와 재산의 소유권이 없는 여성은 금융기관의 담보를 기본으로 하는 대출에 불리할 수 있다. UNDP가 주관하는 다자 은행의 대출 중 단지 5%만이 여성에게 주어진다고 추정하고 있다(UNDP, 1995:39, AusAID 85에서 재인용). 소득중대 프로젝트는 주로 남성 가장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은 생계보조자로 간주되어 주된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탄자니아의 경우, 중

소기업의 43%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5%만이 은행 대출을 받았으며, 1% 미만의 여성가구주가 신용접근을 할 수 있었다. 토지 담보 때문에 어려운 것 외에도 어떤 국가에서는 법으로 여성의 신용 접근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우간다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민간은행은 여성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남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과 문해능력은 공식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은 정책결정, 재정 시스템과 제도로부터 배제된다.

여성이 생산자원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한 결과, 빈곤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개도국의 빈곤 문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또 여성의 빈곤이 가속화된 현상을 지칭한다. 즉, 경제활동에서 주변화된 여성의 위치는 여성의 빈곤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개발국가들은 경제사회 발전을 목표로 정하고 그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으나 실제 여성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혜택이 여성에게 돌아가지 못했음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났다. 따라서 경제발전과정에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혜택이 여성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야 한다. 사회발전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여국의 법과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 행정제도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성 주류화 프로젝트” [독일]

독일의 원조기관인 대외기술협력단 GTZ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성 주류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GTZ는 아프간 정부가 그들 정책, 전략, 사업에서 각 부서들이 젠더를 다루도록 지원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아프간 정부 업무의 성 인지 예산 과정을 이행하고, 여성 공무원 교육과 행정 개혁을 위한 능력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즉, 남성과 여성 공무원들에게 성 인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아프간 정부가 예산서에 성 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젠더 부서(여성정책 기구)가 재정부나 무역기구처럼 독립된 부서로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국가 및 각 분야 수준에서 성 인지 예산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프리카의 재정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은 재정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해 아프리카 재정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2008년 6월에 가나에서 열린 아프리카 범 파트너십 포럼에서, GTZ는 “아프리카 여성을 위한 재정 발전”이라는 세션을 마련하였다. 세션의 목적은 파트너십을 위해 성 인지적인 활동 요소들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션은 MFW4A The Partnership for Making Finance Work for Africa를 위한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이끌어내었다.

1.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조사를 더 수행하고, 여성과 관련한 재정 문제와 실천에 대한 자료 축적과 접근
2. 두개의 시범 국가에서 그들 조직을 통해 50,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재정 이슈에 대한 능력 향상 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programme) 조직
3.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적 제도에 의해 고려되도록 toolkit/database를 발전

자료 : GTZ (2009).

□ 니카라과 “경찰 지원”[스웨덴]

니카라과 경찰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성 평등 통합 : 니카라과 경찰 서비스에 대한 스웨덴의 제도적 지원은 성 주류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모범 사례임.

니카라과 경찰과 스웨덴 협력은 1995년 경찰 아카데미에 인권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스웨덴 경찰은 니카라과 경찰에 자문을 제공하고, 2006년 이후 확대받은 여성을 지원하는 기구인 Comisarias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였다. 스웨덴은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니카라과의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원을 했으며, 이것은 1993년 첫번째 Comisarias 설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니카라과 경찰 서비스는 성 평등과 관련해서 현재 니카라과 국가에서 다른 제도들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니카라과 경찰의 내부 정책은 성 평등에 제도적 우선순위를 두고, 경찰 서비스는 모든 활동과 업무에 성 인지적 관점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6년 경찰국은 성 평등 위원회를 설립하고, 성 평등은 “경찰 원칙”에서 핵심 원칙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 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과 채용 기준, 경력 기획, 그리고 배치 방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93년 처음으로 확대받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인 “Comisarias”가 설립되었으며, 이것은 경찰서비스와 국가의 성 평등부, 시민사회의 밀접한 협력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오늘날, 니카라과에 34개의 Comisarias가 있으며, 2004년 이후 하나의 독립된 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니카라과 경찰의 30%가 여성이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관리자의 여성 비율도 같은 수준이다. 2007년 이후 여성경찰서장이 임명되어, 이들은 관리직 여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경찰 아카데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작업과 함께 차별을 해소하고 성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리직의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 평등은 기초 과정보다 더 상급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다. 2007년에는 모든 직원의 15%가 일반 능력 개발 과정의 일부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특별 프로그램은 자기 가족 구성원을 확대하는 경찰관들을 찾아내서 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 아카데미에서 여성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한 것과 같은 구조적 변화도 이루어졌다.

자료 : Sida (2009).

□ 이집트 “법률 감시 프로젝트”[독일]

이집트에서 2000년 가족법 제1항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여성이 지참금을 돌려주고 재정권을 갖지 않는데 동의한다면 피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여성에게 이혼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혼에 대한 이런 법적 절차는 khul이라고 불린다. 2004년 10월 모든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이혼 절차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가정법원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개혁은 여성에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주기 위한 일종의 도약이긴 하지만, 법 일부와 이행, 그리고 법에 대한 접근 문제가 남아있었다. 경제협력 및 개발부를 대신하여, GTZ 성 평등 및 여성권리 증진 프로그램은 2006년 개정된 법 이행의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 여성발전연합(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Women, ADEW)을 지원하였다. 법의 문제를 가시화하기 위해, khul로 이혼한 400명 이상의 여성 사례를 4개의 카이로 정부에 있는 법원으로부터 수집하였다. 개정된 법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판사의 인식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몇 가지 결과를 확인한 이후 다음 단계를 취하였다.

먼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전국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는데, 법의 문제점과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개정된 법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ADEW는 법의 내용과 올바른 이행,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 인지적인 법률 자문에 대하여 변호사와 판사를 훈련하는 것을 포함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이행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개정된 법에 따라 그들이 갖게 된 새로운 권리와 선택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높였다. 이런 목적을 위해 ADEW는 “쉼터 없는 여성”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이혼, 남편의 두 번째 결혼 혹은 죽음으로 갈 곳 없는 여성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이혼여성을 위한 물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Alimony 재단이 설립되었다.

또 이집트의 국적법은 여성이 자녀에게 시민권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이것은 여성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데, 외국인의 지위는 높은 교육비용,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투표하거나 여행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BMZ 재정지원 프로그램(BMZ-funded sector programme)은 ADEW가 이집트의 국적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범 국가적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전국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ADEW는 언론에 이를 알렸다. 이집트에서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문맹률이 높은 경우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시청각 미디어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집트의 저널리스트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차별적인 가족법을 설명해줄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할 때, ADEW는 미디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저널리스트를 초청해서, 그 주제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을 하였다. 또 여성과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국적법의 영향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아랍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되었으며, 몇몇 여성조직들은 이를 교육과 로비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성공적이어서 2004년 자녀는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국적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자료 : GTZ (2009).

□ 캄보디아 “여성 네트워크 : 의회선거 참여 증진 프로젝트”[독일]

캄보디아에서 여성의 의회 참여율은 매우 낮다. 정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변영을 위한 여성 조직(Women for Prosperity, WFP)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여성 그룹과 여성 개인을 지원함으로써 WFP는 여성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여성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들의 추천을 확대하였다. 여성의원, 민간단체 대표, 훈련가들은 현재 정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젠더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특별 워크숍과 심층 훈련을 통해 여성 이슈에 민감해지도록 했다. 게다가 전국 여성 네트워크 뿐 아니라 언론을 사용해서 ‘여성 이슈’를 주류화하고 널리 알렸다. 거의 500명의 예비 후보자들은 리더십과 선거 캠페인에서 훈련받았다. 지역 단위에서는 유권자들에게 - 주로 여성 - 몇 개의 캠페인과 대중매체를 통해 이들을 알리고, 전국 여성 네트워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 그리고 지방 토론회를 조직하였다. 게다가 여성과 남성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알릴 캠페인을 시작하고, 각 정당 명부에 여성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하였다.

자료 : GTZ (2009).

□ 브라질 “성 폭력 반대 네트워크 설립” [독일]

브라질에서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BMZ 재정지원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NGO Rede Mulher de Educação를 지원하였다. 1998년에 캄피나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예방 및 감소에서의 난관 극복”이라는 주제로 전국 세미나가 열렸다.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전략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출판물의 배포와 토론회는 브라질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체계적인 네트워크에 필요한 행위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세미나 결과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자 Rede Mulher de Educação와 접촉하였다. 2000년 10월 첫 번째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다. 다양한 지역과 영역에서 온 2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여성 희생자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협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동맹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발전시켰다. 세미나와 대중 토론회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경험을 책으로 엮고, 다른 지역에서도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국제적 협력은 네트워크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 GTZ (2009).

라) 행정제도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49] 행정제도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행정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	공직 내 동등한 참여 ○ 모든 과정이 성별로 분리된 자료로 수집되는가? ○ 공무원에 여성과 남성의 참여 비율이 동등한가? ○ 의회, 관리직 공무원, 국가 위원회나 주요 조직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 여성의 의사결정참여 증진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는가? ○ 여성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있는가? ○ 공직 내 채용, 배치, 교육기획, 승진, 임금 등이 여성과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직 내 성희롱 예방 및 성차별 금지를 위한 조치가 있는가? ○ 여성공직자의 특별한 요구(보육, 일가족 양립 등)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 성 평등을 위한 남성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 주류화 기반 강화 ○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계획에 성 평등/여성이 중요한 목표로 포함되었는가? ○ 여성/젠더/성 평등 이슈를 전담하는 전담기구(여성정책기구)가 있는가? ○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 ○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기회가 있는가? ○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 여성문제/성 평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자문을 구하고 충분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가? ○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노력이 있는가? ○ 성 주류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가?
	법 제도 및 이행 ○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모든 법은 성차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 여성이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판이나 법률 자문 등 법에 대해 접근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는가? ○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애물이 있는가? ○ 전반적인 법률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 여성 법조인 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여성 법조인 양성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 법조인, 경찰 등 관련자들의 성 인지 훈련 기회가 있는가? ○ 관습법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였는가? ○ 입법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가? ○ CEDAW에 가입,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경제활동 추진능력	여성의 정치 참여 ○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여성정치인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각 정당들이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는가? ○ 유권자들에게 여성정치인의 존재와 중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있는가? ○ 차세대 여성들에 대한 정치 교육과 정치인 양성,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여성들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여성들은 지역사회 활동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제약 요인을 분석하였는가?

경제활동 추진능력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 기회	○ 경제활동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성별로 분리된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가? ○ 성별직업, 직종분리를 강화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는가? ○ 노동시장의 고위관리직 또는 높은 직급의 여성과 남성비율은 동등한가? ○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직업 훈련 기회에 참여하는가? ○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는가? ○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직장문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여성과 남성의 임금 수준은 동등한가? ○ 노동관련 단체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 여성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법적, 제도적 기반	○ 국가 경제개발 정책이나 계획에서 여성/성 평등을 언급하고 있는가? ○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성차별을 구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과 교육 등 다양한 제도가 있는가?
	여성인적자원 개발	○ 여성을 위한 직업 교육기회, 장학금 등의 기회가 있는가? ○ 여성기업인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는가?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특수한 상황(보육, 노동시장의 성별직업분리, 폭력)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가? ○ 돌봄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유연한 노동시간, 파트타임, 직무공유와 같은 탄력적인 노동조치)이 있는가?
사회안정 지원	○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성폭력,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가? ○ 법률 지원에 대해 빈곤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 경찰, 법조인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교육 기회가 있는가? ○ 안전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통계가 성별로 분리되어 수집되는가?	

4) 정보통신 분야

가) KOICA의 정보통신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 정보통신 분야 원조사업은 ICT 분야 인력양성, 전자정부 구축, ICT 활용기술 확산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두고 있다.

[표-50] KOICA 정보통신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ICT 분야 인력양성	① ICT 교육제도 기반 구축
	② ICT 교육인프라 구축
	③ ICT 교육기회 확대

2. 전자정부 구축	① 제도적 기반 구축
	② 전자정부 인프라 지원
	③ 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
3. ICT 활용기술 확산	① 행정정보화
	② ICT 활용기술 역량 강화

2008년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자료에 의하면 보건의료(19.8%), 행정제도(14.3%), 교육(14.1%)에 이어 정보통신(12.4%)은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사업분야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네 번째 비중을 차지하지만, 프로젝트 사업 유형에서는 보건의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역별 지원현황을 2000~2007년까지 원조액 점유 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아시아(48.8%), 중남미(16.0%), 아프리카(15.3%), 중동(14.3%), 동구 및 CIS(5.5%)의 순으로 아시아에 대한 원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 아시아에 대한 원조 비중이 55.9%로 높았으나 2007년에는 33.2%로 감소해 아시아에 대한 원조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사업은 IT 인력을 양성하고, 전자정부 구축을 지원하고, ICT 활용기술을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각 국가별 ICT 인프라의 발전 단계를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차별화 하고 있다. ICT 초기 단계나 미수립 국가의 경우는 ICT 정책수립을 위주로 지원 하고, 정부 차원의 ICT가 있지만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는 네트워크 환경조성 위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ICT 기본정책 및 정보통신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는 정보화발전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한다. 먼저 아시아에는 전자정부 및 제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아프리카는 기초 ICT 인프라 구축에 그리고 중남미는 ICT 응용기술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세 번째로, ICT 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ICT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ICT 접근기회를 확대해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ICT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지식격차의 해소한다.

지원전략에 따라 분류해보면 인력양성, 전자정부 구축, ICT 활용기술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수원국의 ICT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과과정개발 및 기술을 이전하여 교육인프라를 구축한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은 물론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망 및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한다. ICT 활용기술 확산을 위해 행정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여 ICT 활용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나) 정보통신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남성과 여성이 빈곤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르며, 특히 빈곤과 성은 기반시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는 기반시설의 일부로서의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한 성의 불균등한 접근의 문제를 고려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개발 조직이나 프로그램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의 접근성, 이용, 역량강화, 기회, 고용 및 세력화를 위한 잠재력 측면에서 정보통신 분야는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세력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은 교육, 보건, 경제발전,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시민사회에서의 진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정보통신 산업이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 불평등은 정보통신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에도 반영되어 있다.

경험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기술과 관련해 다른 우선순위와 선호도를 가진다. 즉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과 책임과 특권과 소유권에 기반해 여성과 남성은 기술을 다르게 이용하고, 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통제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욕구에 따른 기술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 정보통신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 말라위 “복합적인 ICT 접근: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농사” [UN]

개 요

팜와이즈(Farmwise)는 말라위 줌바(Zomba) 지역의 므완다마(Mwandama) 농촌 마을에서 농촌여성의 농산물 생산 향상을 지원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는 웹에 기반 한 인터페이스와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런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여성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에서 어떤 농작물을 추수할지, 토양의 형태와 비옥도를 고려했을 때 무슨 작물을 농사지을 수 있을지, 언제 어떤 투입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농민들은 조언을 요구하는 이메일들을 농촌 확장 사무실(agricultural extension office)의 관들에게 보냈다. 이메일은 라디오 1과의 통신에도 사용되었는데, 라디오 1은 말라위 방송국이며 ‘농민 라디오’로 잘 알려져 있다. 마을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기 때문에 팜와이즈 프로젝트를 홍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었다.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요구되는 투입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농민들로부터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온라인 투입물 계산기를 사용했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여성들은 관련 라디오 방송과 방송시간에 대한 공지를 받았다. 브로셔도 이용했다. 프로젝트의 결과 지역의 생산성은 두 배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었다.

결과와 교훈

- 여성에게 접근이 용이한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으로 여성들의 생업인 농산물 생산이 두 배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ICT의 콘텐츠와 채널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세력화를 위해 모두 적절하게 활용된 사례이다.

자료 : United Nations (2005).

□ 유럽 12개국 “여성 시장 링크 : 지역 거버넌스와 ICT와 성의 연결” [UN]

개요

여성 시장의 링크(Women Mayors' Link)는 안정 조약 지역(Stability Pact Region)에 있는 12개 국가에서 개발되었다. 직접적인 수혜자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그리스, 헝가리, 코소보, 몰도바 공화국, 로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의 50여 명의 여성 시장들이다. 프로젝트는 지역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고, 선거구 내에서의 성 이슈를 촉진하기 위해 ICT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반 정도의 여성 시장들은 지역 정부 제도와 기관에서 ICT에 대한 전략을 개발했고, 64%는 인터넷과 이메일과 네트워크 이슈를 다루는 부처를 특화시켰다. 프로젝트의 90%가 이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신뢰도와 ICT 사용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여성 시장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업무를 위해 ICT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거의 절반 정도의 시장들이 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ICT를 사용하도록 돕는 역량강화 기회 부족의 문제를 갖는다. 언어는 네트워크에서 여성 대다수가 직면하는 또 다른 장애이다. 제한된 정도의 내용만이 자신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여성 시장들은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

결과와 교훈

- ICT가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여성정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ICT 기반의 구축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국가의 여성 시장들의 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여성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다루는데 긍정적인 시너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성 시장들이 여전히 언어나 ICT 사용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ICT의 일회적인 기반구축뿐 아니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자료 : United Nations (2005).

라) 정보통신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51] 정보통신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성별분리 자료	○ ICT 분야의 모든 자료에서 성별분리 자료를 생산하고 축적하고 있는가?
	○ 성별 격차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 ICT 분야의 성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요소는 무엇인가?
	○ ICT 분야에서 실시되는 사업의 성별영향을 측정하는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이 있는가?
ICT 인력양성	○ ICT 교육 및 인력양성 정책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성별 격차 요소를 고려했나?
	○ 현재 ICT 분야의 여성 인력 현황 분석을 실시했는가?
	○ ICT 분야에서 성차별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을 했는가?
	○ ICT 교육기관 건립 시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보건실 등을 고려하였나?
	○ 성분리가 문화적 규범인 나라에서 여성을 위한 별도의 ICT 교육시설 혹은 여성의 학업을 위한 별도의 교사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고려하였나?
	○ ICT 교육기관 건립과 관련해 여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위치에 시설을 건립할 것을 고려하였나?(예) 교통수단 및 통학거리
	○ ICT 분야에서 교육 커리큘럼 개발 시 여성의 교육과 훈련을 고려하였는가?
	○ ICT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여교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또한 여교사를 위한 연수과정도 별도로 있나?
	○ ICT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사 및 운영자를 위한 성 평등 증진 교육이 있나?
	○ ICT 교육기관을 건립하거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고려하였나?
	○ ICT 인력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지 고려하였나?
	○ ICT 교육을 실시할 경우 모집, 추천, 선발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고려하였나?
전자정부 구축	○ 시스템 구축 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고용기회 접근을 고려하였나?
	○ 시스템 구축 시 여성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ICT와 관련된 시설기반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 성차별적인 장애요소를 규명하고 제거하였나?
	○ 시스템 구축과 실행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고려하였나?
	○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지 고려하였나?

ICT 활용기술 확산	o ICT 활용기술의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 성별 격차 요소를 고려하였나?
	o ICT 활용기술의 확산 사업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고려하였나?
	o ICT 활용기술의 확산이 어떤 측면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려하였나?
	o ICT의 콘텐츠와 채널이 모두 여성을 위해 적절하게 고려되었나?
	o ICT 활용기술 확산을 위한 사업을 고려할 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고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나?
	o 성분리가 문화적 규범인 나라에서 여성을 위한 별도의 ICT 활용기술 확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지 고려하였나?

5) 농어촌개발 분야

가) KOICA의 농어촌개발 분야 중점내용

농어촌개발 분야 원조사업은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두고 있다.

[표-52] KOICA 농어촌개발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농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① 생산기반 정비 및 관리
	② 연구 및 기술 강화
	③ 농어업 정책역량 강화
2,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① 수확 후 관리 능력 개선
	② 농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
3.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① 농어촌 생활 인프라 지원
	② 농수산업 관련 조직 강화
	③ 농수산업 외 소득증대

2008년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개발 분야는 전체 대외무상원조액 중 8.8%를 차지해 7대 사업 분야 중 원조규모 대비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농어촌

개발 분야의 무상원조 총액은 269억 2400만원으로 국제기구에 무상원조액의 1.1%를, 지역별로 전체 원조액 중 아시아 지역 53.5%, 아프리카 지역 35.1%, 중남미 지역 9.0%, 중동지역 0.9%, 동구 및 CIS에 0.4%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유형별 농어촌개발 분야의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젝트(52.3%), 개발조사(12.8%), 연수생초청(12.6%), 봉사단파견(10.8%), NGO지원(9.7%), 물자지원(1.5%), 전문인력파견(0.3%)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KOICA의 농어촌개발 분야의 주요 지원방향을 보면 첫째, 관개시설 및 식수시설, 도로 등 농촌 인프라 구축, 농업기계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개도국 농촌의 빈곤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주민 기본생활 영위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연중 강우량의 불균형으로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농업용수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력 역량강화 및 기술 전수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민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농어촌개발 경험 및 농산물 가공 기술 등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 관련 공무원 역량 및 농촌 주민의 자조능력 강화, 농업 분야 발전,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나) 농어촌개발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OECD/DAC이 분류한 ODA 수원국 인구는 약 51억 명이며, 이중 농촌지역 거주 인구는 58.2%이다.⁸⁶⁾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는 약 10억~12억 명으로 7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개도국 농촌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다. 개도국 인구 중 54.5%가 농업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생산성은 농업 인프라 및 정책미비, 영농기술의 낙후, 낮은 농기계 보급 및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1인당 600불에 불과하다. MDGs 달성을 위해 빈곤 감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인구의 75%가 거주하는 농촌지역 개발에 대한 OECD/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은 농어촌개발을 MDGs 달성 중 핵심사항인 빈곤해소에 직결된 분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여성은 전 세계 식량의 2/3 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식량 생산의 50~60%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쌀 생산에 있어서는 80%의 노동력을 차지한다. 이런 현상은 많은 개도국에서 일어난다.

86) European Commission (2004).

여성은 농촌 빈민층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최대 70%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민, 불안정한 결혼, 남성의 사망, 남성들의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농촌지역에 여성 가장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 또 농업 생산에 있어 기능적으로 책임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 물론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들은 생존전략과 가족 생계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제대로 알려지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여성은 소득 제공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 필수품 공급 및 가정의 부족한 자원 관리에 관여한다. 이러한 일 외에도 여성은 그들의 재생산,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지역사회 운영과 정치적 역할도 분담하고 있다. 생산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는 여성의 노동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여성의 역할(의사결정을 포함해서)과 자원 및 소득에 대한 통제권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농사일에 있어 여성은 농업 생산의 모든 단계에 관여한다. 여성은 소득을 통제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환금작물 생산에서 노동의 중요한 근원이 되지만, 그들의 역할은 개발프로그램 입안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왔다. 또한, 여성은 유급의 농업노동에도 참여한다. 여성은 종종 그들의 집 주위에 있는 야채와 수목 경작, 사료 채집 그리고 크고 작은 가축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다. 여성은 신용대부, 기술 보급, 종자 제공 및 노동 절약 장치와 같은 효과적인 기술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여성은 신용대부 접근성과 생산능력을 증가하기 위한 토지 및 기타 다른 것들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생계유지 작물 생산은 환금작물 생산보다 제도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 여성 기술보급 관료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결과 여성은 농업 기술보급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여성과의 협의는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향상된 기술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몫이다.

여성에 의해 행해진 농사일은 비록 가족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 농업 분야에 대한 여성의 활동적인 참여는 농업 정책 및 농지 개혁의 발전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주요 곡물의 생산이 증가하였지만, 개도국에서의 빠른 인구증가와 산업화는 더 많은 농업 생산과 상업용 곡물을 수요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적절한 생산기술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여성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까지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효과적인 사업의 수행과 빈곤의 감소를 위한 중추적 세력임이 증명되었다. 여성의 자원에 대한 접근권, 수입에 대한 결정권, 교육의 향상, 농업생산 과정의 참여 등은 그들의 시간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복지 혜택을 증대시킨다. 농촌 빈민층의 경제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여성들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더욱 완전히 실현하고, 여성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 농어촌개발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 사례

□ 인도 "Aravalli Hills 숲살리기 성공 사례" [EC]

농촌 지역의 여성들이 인도의 가장 오래된 산맥인 Aravalli Hills의 초원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이 산맥은 Thar 사막과 Rajasthan 평원의 경계이다. 이 산맥은 점차 많은 사람들이 연료, 식량, 사료를 이곳에 의존하면서 황폐해졌다. 그 결과 토양은 침식되었고, 인근 마을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각 가정의 연료, 식량, 사료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먼 곳으로 다녀야 했다.

EC가 23백만 유로의 비용으로 이 산맥의 녹지를 복구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했을 때, 여성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였다. 여성들은 가정의 연료와 사료, 물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관리 방식과 산의 녹지 복구에 밀접한 관심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들은 294개의 마을 숲 위원회(Village Forest Committee)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남편이 아니라 여성 자신이 땅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성들은 묘목을 기르는 법을 배우고, 풀의 씨앗을 모으고, 나무 연료를 절약하는 기구들을 만들어 냈다. 또한 그 녀들은 가게 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만든 유제품과 손바느질 수공예품을 팔도록 장려되었다.

9년의 시간 동안 두 번의 환경 산림복구 상이 주어졌고, 38,050헥타르(약 여의도 면적의 5배)의 공유지에 나무, 풀이 심어지고, 야채의 경작지가 되어 졌다. 또한 이 사업은 82만 5천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해 그 녀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또한 Aravalli 산맥의 사막화가 지속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본 사례는 공동체의 실제 주요 행위자인 여성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성과 연대하여 이들의 참여를 통해 소득 증진 및 환경보호를 일구어 낸 사례이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04)에서 재인용

라) 농어촌개발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의 점검 사항은 지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며, 모든 농어촌개발 사업에 적용될 수는 없다. 각 국가별 섹터의 상황과 지원전략에 따라 점검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표-53] 농어촌개발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성별 분리 자료	○ 생산, 가구, 사회적 책임에 있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 농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책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예) 구분된 작물·활동, 생산주기의 각 단계, 사업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또는 종족 집단
	○ 여성이 생계유지 및 현금 작물 분야에 활동적인가?
	○ 여성과 남성의 농업 활동이 생산 및 재생산, 지역사회 활동과 지역사회 운영 업무에 적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 농어촌개발 지원 투입요소가 여성의 생산 활동에 적합한가? (예) 종자 공급, 백신 등
	○ 지원 전략이 여성의 시간과 이동 제약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여성과 남성의 사업 참여가 다른 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예) 식량과 현금작물 생산, 가족 건강과 영양섭취, 지역사회 활동 등
	○ 여성과 남성의 다른 역할과 책무로 인해 사업 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 사업은 농업 관련 활동에 대한 여성 또는 남성의 이용시간을 증가시키는가?
	○ 남성을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 여성의 노동 일정 또는 노동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이 도입되는가?
	○ 유산 상속, 재산권, 신용대출과 저축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성별 불평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가구 내, 공동체에서 성별분리노동은 어떠한가?
	○ 여성과 남성이 각각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시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누가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가?
	○ 가족 내에 식량 배분의 패턴은 어떠한가? (각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가? 양과 질의 측면에서는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는가?)
농수산물 생산성 향상	○ 농어촌개발 지원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농업 생산 물품에 목표로 두고 있는가?
	○ 여성은 토지 소유권 또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충분한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는가?

농수산물 생산성 향상	○ 사업 활동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 혜택을 주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가?
	○ 여성과 남성은 신용대부, 기술보급 관료, 사업에 의해 도입된 농업 기술에 대한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있는가?
	○ 여성 기술보급 관료 및 집단 지도자들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 훈련과 기술이 여성의 생산적 역할에 적합한가? 훈련관들은 농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 여성과 남성은 사업의 모든 훈련형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가?
	○ 신기술의 도입 또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특정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교체되는가?
	○ 농업 생산을 위해 혹은 가정 내 사용을 위한 물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가?
	○ 사업이 여성 또는 남성(또는 여성과 남성의 특정집단)의 생산 활동과 자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상쇄시키는가?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 곡물의 재배, 판매, 소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가?
	○ 여성 또는 남성의 전통적 시장이나 거래 활동이 사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예) 여성은 그들의 전통적 작물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는가?
	○ 수확 후 관리 능력 개선 사업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훈련받는가?
	○ 농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수출관련 법, 마케팅 등)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 생활인프라(도로, 공동시설 등) 지원이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했는가?
	○ 농어촌 조직 지원 사업에서 어떤 사회·문화적 요인이 여성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방해하는가?
	○ 소규모 융자금이 여성과 남성의 요구에 맞추어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 마을 지도자 및 농어민 교육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 농수산업 이외의 사업에 여성이 참여하여 소득증대를 꾀할 기회가 있는가? 만약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농어촌개발 경험전수 프로그램	○ 한국의 농어촌개발 전수 경험사례가 성 인지적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 한국의 농어촌개발 전수 경험사례가 개발뿐 아니라 여성 및 남성의 성별 격차를 감안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 선정된 농어촌개발사례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이루어진 개발은 아닌가? 그렇다면 젠더 관계를 어떻게 변형하여 보다 나은 개발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수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가?
	○ 한국의 농어촌개발 사례가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파악한 상태에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훈이 될 수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가?

6) 산업에너지 분야

가) KOICA의 산업에너지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 산업에너지 분야 원조사업은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개선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두고 있다.

[표-54] KOICA 산업에너지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① 도로 인프라 구축지원
	② 철도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③ 공항 인프라 구축지원
	④ 항만 인프라 구축지원
	⑤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지원
2.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	① 국토종합개발 제도 및 체제구축 지원
	② 국토관리 능력 강화 및 자립가능성 제고
	③ 종합 수자원 개발
3.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개선	① 전력공급 확대
	②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확충
	③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④ 산업별 인프라 구축 및 개선지원

산업에너지 분야는 2008년 기준, 전체 사업 분야 지원 실적의 10.3%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사업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프로젝트(29.9%), 개발조사(23.3%), 봉사단 파견(16.6%), 연수생초청(15.6%), 물자지원(13.5%), 전문인력파견(0.8%) 순으로,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 봉사단 파견이나 연수생초청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유형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체 개발조사 유형 사업 중 54.2%가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기준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53.2%), 아프리카(19.7%), 중동 동구 및 CIS(10.9%), 중남미(7.83%) 순으로 아시아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OICA 산업에너지 분야는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분야, 국토관리 기반조성 분야,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개선 분야의 비중이 고른 편이다. 국가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로 등을 건설하고 수원국의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관리 매뉴얼과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국토관리 기반 조성 및 종합개발을 위해 국토개발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수자원 운영역량 강화, 관개수로, 수원 및 수도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지원 확보 및 3차 산업을 포함한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산업에너지 분야는 지원전략에 따라 인프라 컨설팅, 건설 및 개량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프라 컨설팅은 수원국별 경제발전 단계 및 산업 특성, 자원 환경에 부합한 인프라 구축 전략을 지원하여 수원국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 제고와 효과성을 증대시킨다. 주로 철도, 공항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거나 인프라 구축 사업 및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건설 및 개량 사업은 교통 인프라 시설 및 국토 투자기반을 형성하고 에너지원과 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수원국의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 및 물류의 원활한 이동과 각종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국토의 효과적 관리와 투자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관리 시스템 구축은 관리 매뉴얼, 운영지침,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을 통해 인프라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시스템을 지원하여 수원국의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나) 산업에너지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산업에너지 분야는 주로 수원국의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자 중요한 핵심 사업이다. 산업에너지 분야는 그 사회의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기본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사회의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원과 에너지를 소유하는 부분에서 소외되어왔던 여성들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사업의 수혜자로서 여성의 위치와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 시 여성을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자 및 의사결정권자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주로 수원국의 공공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산업에너지 분야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은 첫째, 의료/교육 등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기회를 확대시킨다.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주요 도시 간, 지역 간 대중교통의 질과 양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건강이나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아이들의 접근성을 증가시켜 여성의 교육, 보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물리적 기반이 된다.

둘째,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노동 시장과 농촌-도시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하여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농업 및 해양수산물 가공센터, 산업 생산시설 등의 건설과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그리고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 지원 사업은 농수산업 및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KOICA가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형태의 하나는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와 관계된 것인데, 이것은 여성의 안전 및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에 관한 지원은 용수량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건강한 인구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과 보건, 위생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전력사업으로 인한 조명 구축은 대부분의 폭력과 성폭행에 대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 라오스 “동서 회랑(corridor) 프로젝트(1999)” [호주]

호주(AusAID)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도로 및 교통 인프라가 사회적/경제적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전제 조건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히 성병, 에이즈 등의 전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HIV 전염과 인신매매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프로젝트 초기부터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지역에서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점유율 분석을 하였고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그동안 개발원조사업 중 도로 인프라 확충은 그로 인해 여행 조건이 보다 편안해지면서 연료를 수집하거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포장도로로 인한 먼지 오염 감소 등은 청소 및 빨래에 투입되는 여성의 노동을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건강과 교육,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여성과 어린이의 보건과 교육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도로 확충으로 인해 (국경) 이동이 쉬워짐에 따라 도로망이 확충된 지역을 중심으로 섹스 산업이 확대되고, HIV/AIDS 전염이 증가하며, 여성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도 증가하였다.

여성에 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건설 단계에서부터 수원국 정부와 함께 성별 및 에이즈 문제/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시행하게 된다. 도로 건설을 담당하는 계약자에게 개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전략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따라 관련 게시물 설치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NGO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자료 : Sida (2009)

라) 산업에너지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55] 산업에너지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성별분리 자료	o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고려, 교통수요예측, 접근성 및 개발가능성, 기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가능성 등의 자료를 검토할 때 성별분리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가?
	o 인프라 구축 유무와 정도에 따른 성별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o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우선 선정되는 사회적/경제적 요소는 무엇인가?
인프라 컨설팅	o 개발 타당성 조사 시 여성개발 이슈를 접목하는가?
	o 운영 컨설팅과 기술자문을 할 때, 국내 자료와 기술은 성별 격차를 고려한 것인가?
	o 인프라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력들은 성별에 따른 산업에너지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건설 및 개량 사업	o 노후 교량 및 재난지역 주요 시설물 개보수 추진 시 여성들의 안전과 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건립하는가?
	o 상하수도 서비스 개발 시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가?
	o 건설한 시설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이 용이한가?

관리 시스템 구축	o 교통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시 여성개발 이슈를 접목하는가?
	o 에너지 및 수자원 활용과 관련한 교육 내용에 여성 역량강화도 포함되어 있는가?

7) 환경 및 기타 분야

가) KOICA의 환경 및 기타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 환경 및 기타 분야는 환경오염관리 능력강화, 지구환경보전 역량강화, 여성발전 및 문화역량 강화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두고 있다.

[표-56] KOICA 환경 및 기타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환경오염관리 능력강화	① 폐기물 관리개선
	② 대기오염 관리개선
	③ 상하수 관리개선
	④ 토양오염 관리개선
2. 지구환경보전 역량강화	① 산림보전 역량강화
	② 해양보호 역량강화
3. 여성발전 및 문화역량 강화	① 여성개발환경 개선

2008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자료에 따르면, 환경 및 기타 분야는 KOICA ODA 총 사업비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KOICA의 Green ODA 사업의 원조액⁸⁷⁾은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기준 KOICA 총 사업비의 약 8.6%를 차지하였다⁸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총 원조액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분야 프로젝트안을 살펴보면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원조 목적에 맞지 않

87) 환경부문과 산림(조림, 황사, 사막화), 에너지(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물(상하수도), 농업, 기타 부문이 포함되었으며, 동 분류 기준은 녹색성장위원회의 분류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박명지 (2009).

88) Ibid.

는 일회성 프로젝트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다. KOICA ODA 사업에서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성 주류화와 함께 환경주류화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체 KOICA 사업에서 환경 및 기타 분야 원조사업의 비중 또한 점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KOICA 환경 및 기타 분야를 살펴보면, 지구환경보전 역량강화 분야의 지원비중이 환경오염관리 능력강화의 비중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성발전 및 문화역량 강화 분야는 다른 환경 관련 분야 사업에 비해 그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 및 기타 분야는 환경오염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오염 처리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관리 정책 및 모니터링 제도 구축과 환경인식 강화함으로써 수원국의 환경 관련 인력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를 실행하며 모니터링 시설을 지원하고 기술을 전수하여,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로 연수생 초청 사업을 통해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환경 분야를 지원 전략에 따라 분류해 보면 관리 시설 및 시스템 구축, 관리 역량 강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리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은 환경 오염 저감 시설과 처리 시스템, 산림 복원 등을 지원하여 수원국의 산업환경오염과 생활환경 오염을 줄여 삶의 질을 증대시킨다. 관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운영기술을 전수하고 인력들의 관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체적인 환경보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 관리정책 및 모니터링 제도를 공동연구하고 환경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수행능력을 강화하여 공공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나) 환경 및 기타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고 음식물과 약재 마련을 위한 물, 식물(열매), 동물(물고기) 등의 자원 수집과 주거 및 의복, 난방 등의 생활을 위한 에너지(나무 등) 자원 수집은 여성들의 가사노동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자연 자원의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여성들은 삶을 위한 자연 자원 수집을 매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에 따른 노동의 차이는 환경의 변화와 자연자원의 침식 등에 대한 성별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연 환경의 침식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인구의 대부분은 여성과 그들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자연/환경 자원에 대한 여성의 법적 권리나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적 체제와 사회적/문화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개발 이익과 참여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산림, 해양 등 자연자원에 대한 환경 관리와 경영, 전략을 세울 때 환경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받는 여성들의 자연자원 접근성에 대한 민주적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은 여성의 경제적 자원(토지, 산림, 해양 등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켜 여성의 경제적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여성은 지역공동체의 자연 자원 소비와 수집 등에 대한 보존,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의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의 1차적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여성들은 대부분 지역적 환경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 관리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필요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자연 자원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직도 여성들의 의견들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여성들이 자연 자원 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이 부족한 것이라면 이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에 대한 여성들의 구체적 경험과 전문적 훈련이 만났을 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관리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 인도 “카르나타카(Karnataka) 도시 개발과 해안 환경 관리 프로젝트(1999)” [ADB]

카르나타카 주의 도시와 산업 발달은 북쪽 카르와르(Karwar)에서 남쪽 망갈루루(Mangalore)까지 약 300km의 좁은 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해안 지구에서의 도시 성장은 기존의 인프라와 서비스 용량을 초과한 상태로, 지하수의 급속한 고갈, 부적절한 하수도 및 위생시설, 고체 폐기물 관리, 산업공해, 벌목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성장과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도시 빈민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은 이와 같은 도시/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카르나타카 도시 개발과 해안 환경 관리 프로젝트는 물 공급, 폐기물 관리, 배수, 토지 사용 및 슬럼지구 개선 그리고 지역 사회 빈곤 감소, 고용 증가 등의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별과 빈곤의 복잡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접근/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 5인 가구의 연간 수입이 도시 빈곤선 아래에 있는 30%의 가난한 사람들을 기본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조사를 한 결과, 여성 세대주 가구 수가 모든 가구 수의 3분의 1을 구성하고 있었고 이들 여성 세대주 가구들의 위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설계 및 여성의 빈곤 퇴치 프로젝트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하여 여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NGO와 사회 조직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 인식, 구성요소, 인식 고취 방안 및 피드백 메커니즘 등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여성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의사 결정 및 지역 사회 수준에서 전략을 공유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30%가 상업 공간의 여성 벤처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권장하였고 개선된 위생은 여성의 건강, 안전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자료 : ADB (2006).

□ 베트남, 에콰도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성별 격차와 성 불평등”

폐기물 수집과 재활용 노동의 성별 분업

한 조사에 따르면, 호치민 시에는 명확한 노동의 성별 분업으로 이루어진 폐기물 수집과 거래, 재활용에 대한 조직화된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 그 시스템은 ;

- 가정에서 나온 고형 폐기물을 집집마다 다니며 사는 구매자들은 주로 여성이다.
- 이들 구매자들로부터 폐기물을 구매하는 (폐기물) 소매상들은 남성이다.
- 폐기물 소매상들과 재활용업자들을 이어주는 중개인이 있다.
-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한 재활용 생상품 과정은 주로 남성에게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관료들과 각 섹터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자료 : R. Mehra(et al.) (1996).

성 차이 : 태도, 지식과 수행

에콰도르 카탈라에서는 고형 폐기물에 관한 도시 가정들의 태도와 지식, 수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고형 폐기물의 상대적 중요성(지역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가격 회복 문제, 정책대상 지지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성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면 ;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구비용에 대부분 기여하고 전기 비용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남성들은 전기비용에 의해 과중된, 폐기물 수집 서비스에 더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 비용을 내는 여성들의 비율은 하층(6%)보다 중산층(13%)에서 높다.
- 대부분의 가구(88%)에서 여성이 폐기물을 분리하는 일을 한다.
- 여성과 남성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동해야만 하는 거리와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여성보다 남성들이 폐기물 처리에 소비되는 시간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한다.
- 여성보다 남성들이 만족스런 서비스를 위해 준비 시스템의 낮은 비용과 일관성을 언급한다.
- 남성보다 여성들이 사립보다 지방 자치의 폐기물 수집 시스템이 좀 더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비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폐기물 처리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수행하는데, 누구를 정책 대상으로 할 것인지, 누가 수반되는지 등을 고려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자료 : Grieser, M. & B. Rawlins (1996).

라) 환경 및 기타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57]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프로젝트 성별분리 자료	o 프로젝트의 목표는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o 자연자원(사용, 관리, 보존)이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지식과 기술, 필요의 차이가 프로젝트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어떻게/얼마나 반영되어있는가?
	o 자연 자원 생산과 쓰레기 처리 과정의 각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성별로 분리되어있는가?
	o 프로젝트 대상인 자연 자원의 소유에 대한 성별 분리 자료가 있는가?
	o 환경 관리와 관련된 활동들을 파악하는데 성별에 따른 노동분업이 고려되었는가?
관리 시설 및 시스템 구축	o 물과 음식을 모으고 상업적으로 그리고 생존을 위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주로 누구(여성/남성)인가?
	o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주로 누구(여성/남성)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o 자연 자원이나 폐기물/쓰레기 등은 주로 누구(여성/남성)에 의해 관리, 수행되고 있는가?
	o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은 여성에게 친화적인가? (여성이 접하거나 다루기 쉬운가?)
	o 새로운 시스템의 적용으로 환경이나 자연 자원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노동의 양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증감되는가?
	o 새로운 관리 시설과 시스템은 여성 또는 남성, 특정한 성에게 불리한가?
	o 관리시스템이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 중 계획과 의사 결정 단계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가?

관리 역량 강화	o 자연 자원 사용에 대한 제도 변화나 보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o 자연 자원을 사용하고 관리 조정하는데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o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성별에 따라 떨어지는가?
	o 여성은 자연과 환경의 관리나 유지, 보존에 대해 어떠한 전통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o 여성은 환경 조사를 위한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거나 환경 이슈를 조사하고 보고 하도록 교육받거나 장려되는가?
	o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성별에 따라 떨어지는가?
	o 정책대상 지역에서 환경 교육이나 보존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성 그룹이나 다른 NGO가 있는가?

다. 사업 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KOICA의 사업유형은 크게 연수생초청, 인력파견(봉사단, 전문가, 의료단 등), 민간단체지원, 프로젝트로 분류될 수 있다. 각 사업유형에 따라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각 사업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8] 사업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점검 포인트

연수생 초청	↔	· 연수생 선정 시 여성 연수생 비율 · 연수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접목한 커리큘럼 · 연수 전문가 풀 형성
인력파견	↔	· 현장에 파견될 인력의 성 인지적 관점 확보방안 · 교육과정에 성 인지 감수성 관련 과목 개설 · 파견인력의 성별비율
민간단체지원	↔	· 성 인지적인 사업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 사업심사 시 가산점 부여 ·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성 인지 교육
프로젝트	↔	· 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 사업수행방식의 성별 관련성 파악 · 사업 수혜의 결과 개선사항 점검 · 정책개선 및 환류 시스템 구축

다음은 사업유형별로 사업목표와 현황을 정리하고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수생 초청

가) 현황

① 초청연수의 성 인지적 목표

국내초청연수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인력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참가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파트너국(56개국) 위주로 지원하고, 에너지 자원협력 관련 연수생 초청 규모 확대, 분야별 연수과정 다각화 추진, 연수형태별 효과성 제고 지속 추진, 연수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초청연수의 목표가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여성과 남성 연수자를 대상으로 사업목표에 성 인지적 관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초청연수생 남녀 비율

1992년 451명에 불과하던 초청연수생은 2008년에는 4,199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여성은 1,259명(30%), 남성은 2940명(70%)으로 여성연수생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연구과정 및 교과목

현재 우리나라는 7개 분야에서 국별 연수, 기본연수, 공동연수, 장기학위연수, 특별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 중 여성이 과정명에서 여성이 명시된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탄자니아 모자보건> 1과목, 환경여성분야에서 국별 과정으로 <콜롬비아 여성정책개발 역량 강화>, <아프가니스탄 성 평등 정책 및 여성 지도자 양성> 2과목, 기본과정으로 <성 평등 정책역량강화>, <여성인권과 여성발전>, <여성 고용 및 창업개발 능력 향상> 3과목, 공동과정으로

〈CP 농촌여성 경제력 증진〉 1과목이 개설되어 과목명에 여성이 명시된 것은 총 6과목에 불과하며 모자보건과목까지 합치면 7과목이 된다. 이는 전체 과목 242종 중 7개 과목으로 개설된 교과목 중 2.9%에 불과하다.

나) 개선방향

① 초청연수의 성 인지적 목표 수립

현재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초청연수생 사업을 상기한 바와 같이 검토한 결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초청연수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국내 초청연수의 목표는 연수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 연수자가 1) 다양한 분야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습득하고 2) 본국에서 성 인지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목표 하에 전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을 접목하여 연수의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의 기반이 된다.

② 여성연수생 증가

㉞ 연수생 여성할당제 도입과 점진적 증가

- 현재까지 초청 연수생의 30%를 달성하였으므로 다음 단계로서 여성이 40%가 되도록 목표를 잡고 노력한다.⁸⁹⁾ 이는 연수생 중 여성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각 특성별 연수과정(국별 연수, 기본연수, 공동연수, 장기학위연수, 특별연수 등)에 여성 할당제가 적용되도록 한다. 특성별 연수과정에 성별 연수생의 비율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특히 여성의 참여비율이 낮은 연수과정

89) 여성비율이나 할당에 대한 논의는 본 보고서 각주 85를 참고할 것. 사회조직 연구자 R. 칸터(Kanter)에 따르면, 조직의 성격은 관리자들과의 성비 구성에 따라 남성일색조직(uniform)에서 성비균형조직으로 단계적, 불연속적으로 도약한다. 즉 초기의 남성일색조직은 여성관리자의 비율 15%수준에서 남성지배조직(Skewed)으로, 35% 수준에서 남성다수조직(Tilted)으로, 그리고 45%수준에서 성비균형조직(Balanced)으로 도약한다(이에 대한 논의는 Kanter가 1977년도에 쓴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을 참조).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가시화되려면 여성관리자 비율이 적어도 30~35%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비율 30~35%는 국내외에서 조직뿐만 아니라 정치후보자 및 정치인 여성할당, 사회적 접근 및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성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 각 연수 분야별(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로도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연수분야별로 여성과 남성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가 다르긴 하겠지만 특히 여성이 낮은 참여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㉞ 수원국의 연수과정 여성참여 증진 방안

- 수원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연수생을 선발하지만 수원국의 시스템이 여성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공여국에서 수원국의 여성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 수원국에서 연수생 모집 또는 선발의 기준 및 홍보방안에 대한 성 인지적 점검을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수원국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연수생 모집기준이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가?
- 현재 모집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하여도 적절한 여성이 없을 경우 할당제 등을 통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연수생 모집의 홍보 방식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③ 연수과정의 성 주류화 및 성 주류화 교과목 확대

㉞ 연수과정의 성 주류화

- 성 주류화 교육을 특화시켜 실시하고 이에 덧붙여 분야별 교과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교육이 필요하다.
- 각 분야별 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각 분야의 연수과정은 젠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사업 분야별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참조)
- 연수시 성별 분리된 통계나 자료를 활용해 성 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있는가?
- 각 연수 과정의 내용이 젠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젠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 국내 사례를 소개할 때 정책의 성 분석을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가?
- 연수과정의 평가에 “본 과정을 통해 해당 과정과 젠더가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되었는가?” 항목이 포함되었는가?

㉔ 성 주류화 교과목의 확대

- 여성과 남성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성 주류화 과정을 확대시켜야 한다. 모든 과목에서 개도국의 정책 입안자 및 실무 공무원들이 연수과정을 통해서 성 인지적 관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적, 실습훈련이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수과정을 성 주류화하거나 성 주류화를 목적으로 한 교재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성 주류화 전문가이면서도 영어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성 주류화 교과목 개발을 해야 한다.
- 성 주류화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함께 고려하여 시리즈로 이어지는 장기 교육과 단기간 내 집중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태 지역에서는 호주와 필리핀이 이러한 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동안의 성 주류화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㉔ 연수과정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전문가 풀 형성

성 인지적인 관점이 도입된 연수과정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은 각 분야의 성 주류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에서 한국의 성 주류화의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도 전문가 강사풀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연수과정 전체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재편하고 구체적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유사 모임 구성
- 한국의 성 주류화 경험 및 사례, 성 주류화 이론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사풀 구성 및 상호교류 기반 구축

④ 연수생 초청 사업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연수 목표 설정	○ 연수생초청의 사업목표에 성 인지적 관점을 명기하고 있는가?
연수생 성별분리통계 작성	○ 총 연수생, 연수과정, 연수분야별 연수생의 성별분리통계작성

연수생 여성비율	○ 여성 연수생 비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있는가?
	○ 수원국 연수생 모집기준이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가?
	○ 현재 모집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하여도 적절한 여성이 없을 경우 할당제 등을 통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연수생 모집의 홍보 방식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수원국의 연수생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상기한 항목을 유념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였는가?
연수과정	○ 각 분야의 연수과정은 젠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되고 있는가?
	○ 연수 시 성별 분리된 통계나 자료를 활용해 성 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있는가?
	○ 국내 사례 소개할 때 정책의 성 분석을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가?
	○ 연수과정의 평가에 “본 과정을 통해 해당과정과 젠더가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되었는가” 항목이 포함되었는가?
연수 교과목	○ 여성과 남성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성 주류화 과목이 있는가?
	○ 각 연수 과정의 내용이 젠더의 차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가?
	○ 성 주류화 교육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 있는가?
전문가 풀 형성	○ 연수과정 전체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재편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유사 모임이 있는가?
	○ 한국의 성 주류화 경험과 이론·실습을 할 수 있는 강사풀 구성 및 상호교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

2) 인력파견

가) 현황

KOICA에서 파견하는 인력의 연간 사업규모는 약 1,600명~1,7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KOICA에서 파견하는 인력에는 일반봉사단과 국제협력요원, 국제협력의사, NGO 봉사단, 전문가가 포함된다. 인력파견사업의 목표는 1) 개도국 현지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유용한 지식, 기술,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2) 다양한 문화 교류 및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파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3) 봉사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사회의 국제문화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KOICA는 다음 7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1)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자원의 효과적 배분 2) 청년리더 양성 및 민관협력(PPP) 확대 3) 사업현장 지원체계 강화 4) 우수자원 확보 5)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6) 봉사단 사후관리 강화 7) 홍보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전략에 기반하여 2009년에는 개도국 정부 측의 개발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우리 측 가용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선발, 파견하는 분야별 배분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 중점수요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농어촌개발이며 국제적으로 관심이 증대되는 분야는 환경 및 여성개발, 글로벌 이슈지원확대이다. 이와 함께 정책적 지원증대 분야는 한국어교육, 재외동포 지원확대이다.⁹⁰⁾

[표-59] 분야별 배분계획(2009년)

분야	교육	정보통신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농어촌개발	환경및기타
비율	25%	20%	15%	15%	15%	10%
주요직종	한국어교육 유아교육 과학교육	컴퓨터 컴퓨터디자인	간호 의사 물리치료	기계 자동차 전자, 전기	지역개발 원예 축산	태권도 사회복지 환경

한국국제협력단 (2009b).

분야별 배분원칙과 함께 지역별 배분원칙을 가지고 2009년도 사업지역 및 국가를 선정하고 있다. 인력파견은 아시아를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MDGs 달성 지원을 위해 최빈국 다수 지역인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남미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하고 있다.

90) 한국국제협력단 (2009b).

[표-60] 2009년도 사업지역 및 국가

지역	총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CIS	중동
국가수	33개국	15개국	8개국	6개국	3개국	1개국
평균인원	1,450명	670명	334명	318명	105명	23명
비율	100%	46%	23%	22%	7%	2%

한국국제협력단 (2009b).

나) 개선방향

① 파견인력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

- 인력파견 인원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파견인력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요구된다. 성별에 따라서 봉사단원의 안전과 사업현장 지원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향후 KOICA 파견 봉사단원과 NGO 파견 봉사단원 모두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요구된다.

②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 개발원조 현장에 파견된 인력이 성 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사업을 성 주류화 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된다. 또한 이들은 현지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에게 유용한 지식, 기술,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평등한 파트너십을 향상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희롱예방 교육은 물론 문화적 차이와 성별 격차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분야별 자원활동과 젠더의 연결성 인식제고

- 현재 KOICA 인력파견 사업은 분야별로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다.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농어촌개발, 환경 및 기타 총 7개 분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젠더와 연결된 모범사례를 찾고 이를 통해 젠더 연관성을 이해하고 봉사 활동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 인력파견 사업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성별분리통계	○ 파견인력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있는가?
성 인지 감수성 교육	○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성 인지적 감수성 교육이 있는가?
	○ 성희롱 및 여성/젠더에 기반한 폭력 예방관련 교육이 있는가?
	○ 현지주민의 문화적 다양성과 젠더파트너십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가?
분야별 자원활동과 젠더의 연결성 인식제고	○ 활동분야에서 성 평등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있는가?
	○ 파견인력 대상 교육과정에 분야별 자원활동과 젠더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이 있는가?
	○ 봉사단원의 활동경험 중 성 평등 증진과 관련된 사례를 발굴하고 있는가?

3) 민간단체지원

가) 현황

개발원조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민간파트너십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KOICA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민간부문지원을 통한 국민참여형 원조를 구현하고 민간단체 비교우위 분야 사업 중점지원을 통한 개도국 서민층의 기본욕구 충족 및 M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9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1) 민간부문지원 효과제고 2) 민간단체 지원체계 다변화 3) 민간단체의 전문성 활용 및 비교우위분야 중점 지원 4) 민간단체 역량강화 지원 확대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전략에 기반하여 민간단체가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발굴한 우수 사업을 지원하며 민간단체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다년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에 직접지원 하는 것과 함께 민간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즉, 민간단체 지원 확대 및 사업증가에 다른 민간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ODA 교육, 분야별 전문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들의 사업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현장 방문 등 민간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강화 및 참여도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42단체가 26개국에서 66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나) 개선방향

① 성 인지적 목표 수립

- 민간단체지원 사업 목표는 1) 민간부문지원을 통한 국민참여형 원조 구현
2) 민간단체 비교우위분야 사업 중점지원을 통한 개도국 서민층의 기본육
구 충족 및 MDGs 달성에 기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서민층의 기본육구 충
족 및 M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에는 성 평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표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개발 NGO 협의체인 한
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행동규범에 따르면 국제협력 NGO들은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해 노력(2조8)’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단체지원 사업 역시 성 인
지적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성 인지적인 사업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작성

- 사업 공모 시 사업과 성 평등의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제안서에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채
택된 사업은 제안서의 계획에 의거하여 성 인지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
록 지원되어야 한다.

③ 사업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사업 심사 항목은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현지수요 적합성,
사업내용의 경제성, 효과적인 사업수행체제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
원국 참여도, 수원국 호응도, MDGs 달성 기여도, 파급효과 총 10개의 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과 함께 성 인지적인 제안서를
작성하는 민간단체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성 인지 교육 실시

- 민간단체들이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주요 NGO의 성 주류화 실천 사례를 이해하고 성별분리통계,
정책의 성 인지적 분석 등 성 주류화 도구를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민간단체지원 사업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목표 설정	○ 민간단체지원의 사업목표에 성 인지적 관점을 명기하고 있는가?
사업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 성 인지적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는가?
	○ 가이드라인은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사업 공모전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문이 이루어지는가?
가산점 부여	○ 사업심사 시 성 인지적 관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가?
	○ 가산점 부여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하였는가?
성 인지 교육	○ 민간단체들이 성 인지적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가?
	○ 각 분야별 젠더 이슈를 발굴하고 성 인지적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실습이 제공되는가?
	○ 민간단체 활동경험 중 성 평등 증진과 관련된 사례를 발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가?

4) 프로젝트

가) 현황

KOICA는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의 7대 분야별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유형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프로젝트사업이 42.2%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도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7개 분야 중 정보통신, 보건의료, 교육 순으로 예산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61] 프로젝트형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사업	예산	비중
보건의료	26국 33개 사업	총 30,855백만원	19.3%
교육	21국 26개 사업	총 23,877백만원	14.9%
행정제도	15국 22개 사업	총 20,842백만원	13.0%
정보통신	21국 25개 사업	총 33,631백만원	21.0%

농어촌개발	16국 29개 사업	총 20,662백만원	12.9%
산업에너지	14국 20개 사업	총 15,017백만원	9.4%
환경 및 기타	12국 18개 사업	총 15,176백만원	9.5%
합계	54국 173개 사업	총 160,060백만원	100%

한국국제협력단 (2009b).

나) 개선방향

① 성별분리통계 생산

- 프로젝트 사업이 수원국 여성과 남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성과 남성이 처한 현황과 지위와 관련된 상태가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 그리고 여성 또는 남성 내에서의 불평등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자원과 권력에 대한 불평등과 관련된 통계를 활용하고 생산해야 한다.

②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파악

- 각 사업마다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를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각 사회마다 여성과 남성은 성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며, 이로 인해 서비스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서 요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성별 현실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방식의 성별 관련성 파악

- 각 사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남녀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녀수혜 대상자가 각 사업에 대해 동등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특정 성이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야 한다.

④ 사업 수혜의 결과 개선사항 점검

- 사업의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갖추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각 사업은 특정 성(性)을 차별할 의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사회마다 성별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고 이로 인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수혜자 성비를 점검하고 차별적인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⑤ 정책개선 및 환류 시스템 구축

- 사업 평가 결과 개선사항들을 정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유사사업에 환류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프로젝트 사업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성별분리통계	o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사용하고 있는가?
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o 사업에 여성과 남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o 사업을 계획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를 반영하는가?
	o 사업담당자는 성별 요구의 차이가 어디에 기인하는지 분석하는가?
사업수행방식의 성별 관련성 파악	o 남녀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는지 혹은 특정 성이 접근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는가?
	o 남녀 수혜 대상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동등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사업 수혜의 결과 개선사항 점검	o 사업의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서 형평한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
	o 수혜의 결과 성별 격차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가?
정책개선 및 환류 시스템 구축	o 사업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였는가?
	o 개선을 위한 노력 사항들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가?
	o 환류를 통한 개선사례들이 수집되고 있는가?

4. 조직체계 및 교육훈련방안

가. 조직체계

조직체계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사업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업무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로스키팅 이슈로서 젠더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성 주류화는 여성의 특별한 이슈와 문제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사업에 있어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조직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성 주류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는 외국의 조직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KOICA 기구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의 주요 해외원조기구들은 일반적으로 젠더 이슈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 부서별로 젠더 담당관을 배치하는 경우, 그리고 젠더 전문가 집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이러한 조직체계를 혼용해서 구성한 경우가 많다.⁹¹⁾

독일과 미국의 원조관련 기구들은 젠더 이슈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독일의 준정부적 기구 성격을 갖는 GTZ는 성 주류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서가 있으며,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 역시 여성개발국을 두어 12명의 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한다.

캐나다의 국제개발청(CIDA)은 부서별로 젠더 담당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각 사무소별로 1인의 여성정책 담당관(gender specialist)을 두어 성 인지적 관점이 업무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 외에도 정책 사무소(Policy Branch) 내에 5명의 여성정책전문가로 이루어진 양성평등국을 두고 있어 독립 부서를 두는 방법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는 젠더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일종의 포컬 포인트로서 사회발전자문관(SDA) 제도를 운영하고, 이 가운데 젠더 전문가는 성 인지적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사회발전자문관은 통합 조정관 역할을 하며, 젠더 컨설턴트는 여성문제를,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와 여성정책자문관은 총괄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91) 광숙희 외 (2007).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통해 KOICA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다른 국가 사례에서처럼 동시에 제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젠더 전문가를 배치하는 성 인지 담당관 제도**이다. 현재 KOICA에서는 2009년 12월 31일부로 ‘성 인지 담당관’ 제도를 신설하였다. 아직 업무 내용과 범위에 대한 것은 규정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성 평등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 주류화는 1인의 젠더 전문가의 임무로만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 주류화는 전 부서에 걸쳐 기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각 실별로 성 인지 담당관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ICA에는 정책연구실, 사업평가실, 홍보실, 인사교육실이 있는데, 그 중 홍보실을 제외한 3개의 실에 성 인지 담당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젠더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여 각 실에 성 인지 담당관 1인을 배치한다. 이들 3인은 밀접한 KOICA의 focal point로서 정책연구실의 성 인지 담당관은 각 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사전 분석과 이행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사업평가실의 성 인지 담당관은 사업의 성 분석과 OECD/DAC의 가이드라인 이행, 평가체계 등을 담당하며, 인사교육실의 성 인지 담당관은 내·외부 참여자 대상 성 주류화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의 성 인지 담당관은 장기적으로 해외 공관에도 확대 파견되어 실제 사업이 개발되고 이행되는 과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실별로 성 인지 담당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성 인지 전문가 채용과 함께 각 실별로 젠더 업무를 담당할 gender focal person을 선정하여 성 주류화 추진 focal point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젠더 전문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방법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현 정부의 조직 축소화 정책을 비롯하여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성 주류화를 실현할 조직 구조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젠더 전담 부서는 성 평등 사업을 이행할 실질적인 조직시스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전에 ‘환경여성팀’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개발부에 가칭 ‘성 평등/여성’ 팀(가칭)을 독립적으로 두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개발원조 사업은 물론, 성 주류화를 위한 사업 기획, 평가 업무를 담당하여 다른 팀에서 성 인지적인 사업 이행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 주류화 팀에는 내부 직원 중 성 주류화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과 외부의 젠더 전문가를 채용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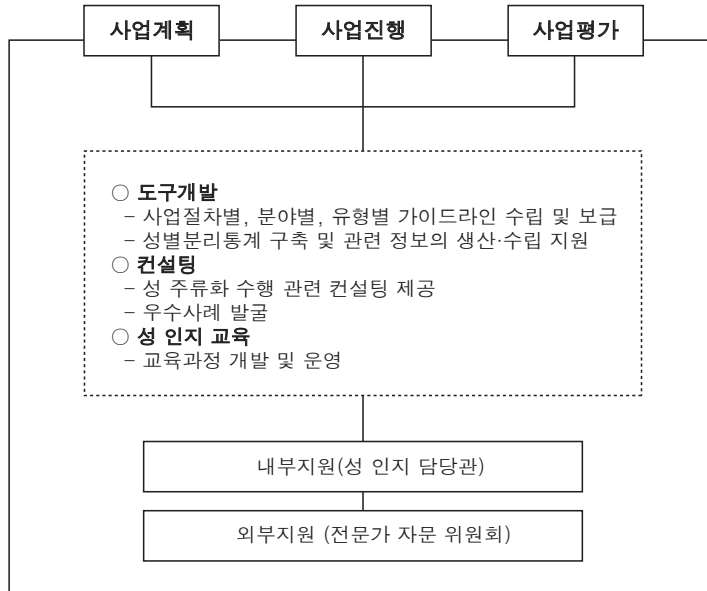
세 번째는 **전문가 자문 집단을 구성·운영**하는 방법이다.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등 각 분야별로 성 인지적 관점을 갖는 외부 전문가와 성 주류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위원회(focal point)를 구성하여 각 부서별로 자문을 제공한다. 향후 자문 위원회의 위상은 이사 밑에 특별 위원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62] 단계별 3가지 조직 유형 제안

유형	단기	중기
1. 젠더 담당관 배치	· 성 인지 담당관 신설 · gender focal person 선정 - 가이드라인 수립 및 자문체계를 수립	· 각 실별로 성 인지 담당관 배치 - 각 실별로 외부 전문가 혹은 내부 경험자 1인 배치
2. 젠더 전문 담당 기구 신설	-	· 젠더 전담 팀 신설 - 여성대상 사업 이행과 타 부서의 성 주류화 사업 지원
3. 전문가 자문 집단 구성·운영	· 전문가 자문 위원회 구성 - 7개 분야 젠더 관련 전문가와 성 주류화 전문가포함 - 10명 내외	· 이사 직속 하에 별도의 전문가 자문 위원회 구성

KOICA는 ODA 사업을 성 주류화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운영방안은 성 인지 담당관을 중심으로 성 평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1인의 성 인지 담당관이 성 평등 관련 모든 업무를 책임지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성 인지 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내부 지원과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외부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KOICA 전 사업수행 체계에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절차별, 분야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보급하는 일과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과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사업수행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역시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0] 성 주류화를 위한 KOICA 사업 수행 체계



성 주류화 추진에 KOICA 조직 전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캐나다의 CIDA는 매년 공무원 주간에 양성평등 사업에 가장 크게 공헌한 직원을 선정하여 “양성평등 직원상(CIDA Staff Gender Equality Award)”을 시상함으로써 직원들이 성 주류화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KOICA에서도 성 평등상을 제정하여 조직 전체가 성 주류화 추진에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성 인지 교육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모든 직원에게 성 인지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성 인지 교육을 교육점수로 인정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교육훈련방안

1) 교육 대상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성 주류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 인지 교육(gender training)은 국제기구나 원조기구에서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변화와 사업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미

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GTZ는 신입직원의 성 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직원들의 성 인지적 분석 도구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역별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같은 외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성 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접근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성 인지 교육은 KOICA 사업 내·외부 참여자 모두에게 필요하며, 각 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 내용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 대상과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대상은 KOICA의 개발원조 사업의 참여 형태에 따라 KOICA 기관에 속한 내부 집단과 협력 집단인 외부 집단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내부 집단은 KOICA 기관 소속으로 전체 사업의 비전과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집단(임원진)과 KOICA 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사업담당자가 있다. 그리고 외부 집단은 역할에 따라 사업을 직접 이행하는 사업관리자(PMC), 봉사단 또는 장기파견 전문가, NGO, 연구원 또는 연구기관이 있다([그림-11] 참조).

[그림-11] 교육 대상



첫째, 의사결정자는 KOICA 내부의 이사 이상의 임원진으로서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원조의 거시적인 사업방향과 틀을 결정해야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 OECD/DAC 가입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위상의 전환을 가져옴은 물론, 그동안 이루어졌던 개발원조의 양적인 성장 및 발전과 더불어 질적인 의미의 성장과 발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00년 MDGs의 목표 가운데 성 평등이 포함되어 있어, 의사결정자는 성 평등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포함하고 모든 사업에 젠더가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자의 의지는 모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성 평등에 대한 확신과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OECD/DAC 가입은 OECD/DAC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업무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논의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한국의 개발원조 사업이 국제적인 흐름과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OECD/DAC의 동향과 내용을 파악하고, OECD/DAC의 권고사항과 젠더 마커와 같은 평가체계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OECD/DAC의 가이드라인 평가체계 수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자에 대한 ‘성 인지적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업담당자는 KOICA 사업 전반을 기획, 관리하는 총체적인 실무자로 OECD/DAC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 이행, 평가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요구된다.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야 하며, 젠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gender analysis)이 필요하다. 사업담당자는 성 인지적 관점 뿐 아니라 각 분야, 예를 들어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에서의 젠더 이슈를 파악하고 성 인지적인 사업 기획, 이행, 평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무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담당자에 대한 젠더/성 주류화 교육은 부족하다. 따라서 성 분석과 같은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성 인지 업무 능력 향상’(예: 성 분석/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관리자(PMC) 또는 건설용역업체(CM)는 KOICA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 혹은 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나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사업관리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집단으로 사업 현장 또는 현지에서 사업 전반의 내용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이나 기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업 이행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은 충분하지만 젠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 인지적인 사업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관련 분야가 젠더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성 평등한 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현지 주민들에게 성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현지에서 주민들과 대면하여 사업을 집행하게 될 경우, 동등한 관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 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 인지 업무 능력 향상’과 ‘문화적 감수성/다양성’ 교육의 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에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사업을 이행하는 대상에게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교육 기회 등이 제공되어 젠더 이슈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 감수성 교육이란?

감수성(sensitivity)이란 말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말한다. 감수성 훈련에서는 마음과 감정을 나눈다. 이론적으로 공부하거나 생각이나 견해 차이를 토론하는 식이 아니라 실험실적 특수상황 속에서 경험적인 체험학습을 위주로 실습하는 특수 교육이다. 성 평등 교육이 성 인지 감수성 훈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 개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의 역사를 성찰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이 각 개인들을 여성으로 그리고 남성으로 고정화 시키는 방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의 행동방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체험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 성 인지 감수성 훈련이다.

넷째,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상에서 사업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현지에서 장기간 거주하기 때문에 성 인지적인 사업 수행 능력과 함께 젠더에 대한 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문화적 감수성이나 다양성/차이에 대한 인식은 이들이 지역 주민들과 평등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또한 봉사자들이 속한 분야가 어떤 젠더 연관성을 갖는지, 모범 사례나 성 인지적 사업 지식을 통해 봉사의 의미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봉사단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다. 봉사단 교육 대상 성 인지적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1시간 정도 이루어진 바 있는데, 앞으로 ‘성 인지적 감수성과 인권, 다양성’ 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육시간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현지 교육은 물론,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NGO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로 KOICA 사업의 참여 단체들은 현재 한국개발 NGO 협의체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이하 해원협)에 가입되어 있다. 2009년 10월 현재 62개 단체가 있는데, 이들 역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천해나가기 때문에 개발원조의 국제적인 규범과 성 주류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사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원협 회원단체 행동규범」에 따르면 국제협력 NGO들은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해 노력(2조8)’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들이 양성평등을 위해 어떻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 이행, 평가, 모니터링 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 공모 시 사업과 성 평등의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 인지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NGO 역량강화 사업 워크숍 등을 통해 성 인지적 감수성과 ‘성 인지적인 사업 능력 향상’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연구원/연구기관은 계약 관계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과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연구자/기관의 태도와 가치는 연구 주제 선정 뿐 아니라 연구 내용과 결과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제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젠터를 고려하지 않는 성 중립적(gender-neutral)인 태도는 여성과 주변화된 집단의 경험을 간과하거나 왜곡되어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이슈의 의미를 이해하고 젠더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결과는 KOICA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별과 무관해 보이는 영역에서 젠더 이슈를 찾아내고, 성 인지적인 분석과 통계 활용 등을 통해서 다양한 KOICA 사업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원/연구기관은 관련 분야의 젠더 전문가로서 KOICA 사업의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성 주류화 관련 및 도구 활용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고 다양한 사례 발굴과 연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63] 대상별 교육 내용

대상	특징	주요 내용	방법
① 의사결정자(임원)	직무 교육	· 성 인지 리더십 향상	· 특강, 전문가와의 만남 등
② 사업담당자	직무 교육	· 성 인지 업무 수행 능력 향상	· 워크숍
③사업관리자(PMC)/ 건설용역업체(CM)	통합 교육*	· 성 인지 업무 수행 능력 + 젠더·인권· 다양성 감수성 향상	· 워크숍 · 온라인 교육

④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감수성 교육	· 젠더·인권·다양성 감수성 향상	· 워크숍 · 온라인 교육
⑤ NGO	통합 교육	· 성 인지 업무 수행 능력 + 젠더·인권·다양성 감수성 향상	· 워크숍
⑥ 연구원/연구기관	직무 교육	· 성 인지 연구 및 자문 능력 향상	· 워크숍

* 통합 교육 : 업무능력과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 교육과 감수성 교육의 통합 교육을 의미함.

2) 대상별 교육 내용

가) 의사결정자

■ 교육 대상	o 의사결정자(KOICA의 이사 이상 임원진)
■ 교육 목적	o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인지적인 기관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성 인지적 리더십 향상
■ 프로그램(예)	a. 국제사회와 성 주류화 이해 b. OECD/DAC과 성 주류화 전략 c.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모범 사례 d. 한국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e. 성 인지적 리더십과 리더의 역할
■ 교육 내용	a. 국제사회와 성 주류화 이해 : UN,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 주류화 전략의 의미와 실천 사례, 성 주류화 배경 및 개념 이해 b. OECD/DAC과 성 주류화 전략 : OECD/DAC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평가 체계(젠더 마커 등 평가지표 적용방법), 동료평가 등 성 주류화 실천 전략 이해 c.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모범 사례 : 공적개발원조 실천방법에서의 성 주류화 모범 사례 d. 한국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 주류화 실천 방안 모색 e. 성 인지적 리더십과 리더의 역할 : 성 인지적 기관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리더(임원)의 역할, 성 인지적인 기관 운영 방안
■ 교육 방법	o 모범 사례 발표, 특강 : 사례 발표나 (젠더, 국제,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제고 o 연찬회 또는 비공식 모임을 활용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 활용방안	o OECD/DAC 사무국이나 선진원조기관 관련자 강연, 국내 성 주류화 관련 전문가 또는 주요 인사와의 만남의 장 활용 o 홈페이지에 성 주류화 실천 사례 카테고리 마련, 지속적인 정보 제공 o 정보 제공 : 이메일 등을 통해 국제 흐름이나 OECD/DAC 규범, 성 주류화 관련 정보나 지식, 모범 사례 등을 뉴스레터로 제공 o 실무장급 대상 성 인지 리더십 교육 가능

나) 사업담당자

■ 교육 대상	o 사업담당자(KOICA의 실부장 이하 직원)
■ 교육 목적	o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 이행, 평가, 모니터링함으로써 성 평등한 국제개발원조 사업을 이행해나갈 수 있는 업무 능력 향상
■ 프로그램(예)	a. 공적개발원조와 젠더 b. OECD/DAC과 성 주류화 c.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d. 분야별 젠더 이슈와 모범 사례 e. 성 인지 사업 기획
■ 교육 내용	a. 국제개발원조와 젠더 : 젠더 개념, 젠더와 발전의 의미, 차이와 차별, 성 주류화 배경 이해 b. OECD/DAC과 성 주류화 전략 : OECD/DAC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평가 체계(젠더 마커 등 평가지표 적용방법), 동료평가 등 성 주류화 실천 전략 이해 및 OECD/DAC 평가체계 적용 실습 c.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 성별분리통계, 정책의 성 분석/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분석 d. 분야별 젠더 이슈와 모범 사례 :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젠더 이슈와 모범 사례 이해를 통한 맞춤형 교육 e. 성 인지 사업 기획 : 수원국의 젠더 이슈 발굴 및 성 인지 사업 기획
■ 교육 방법	o 성 주류화 워크숍 : 성 주류화 관련 도구 이해 증진 o 주제별/분야별 맞춤형 워크숍 : 주제와 관련한 성 인지적인 사례 이해와 사업 기획
■ 활용방안	o KOICA 내부에서 (분야별) 젠더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 및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시행 o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주요 성 주류화 워크숍 참석 o 프로젝트 관리 실무과정에 성 주류화 관련 내용 포함 o 성 주류화 관련 내부 직원의 학습 동아리 지원 o 신입직원 교육 시 반드시 성 주류화 교육 포함 o 국외 단기 직무연수 과정 시 해외 성 주류화 모범사례 연구과정 신설 o 단기, 심화 교육 등 단계별 교육 운영

다) 사업관리(PMC) 및 건설용역업체(CM)

■ 교육 대상	o 사업관리(PMC) 또는 건설용역업체(CM)
■ 교육 목적	o 성 인지적 관점과 문화적/다양성 의식을 바탕으로 성 인지적 사업 이행과 현지 주민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업무 및 감수성 능력 향상
■ 프로그램(예)	a. 성 인지적 감수성 b. 성희롱 예방 및 젠더 파트너십 c. 다문화/다양성 의식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e. 분야별 젠더 이슈 발굴 및 사업 계획서 작성

■ 교육 내용	a. 성 인지적 감수성 : 차이와 차별에 이해, 젠더 개념, 젠더와 발전의 의미 등 젠더에 대한 감수성 향상 b. 성희롱 예방 및 젠더 파트너십 : 성희롱 및 여성/젠더에 기반한 폭력 예방, 현지 주민과 젠더 파트너십 향상 c. 다문화/다양성 의식 : 문화적 차이와 다양한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세계시민의식 향상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 성별분리통계, 정책의 성 분석/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분석 방법 이해 및 실습 e. 분야별 젠더 이슈 발굴 및 사업 계획서 작성 :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젠더 이슈 발굴 및 계획서 작성방법 실습
■ 교육 방법	o 워크숍 : 성 인지적 감수성과 성 주류화 관련 도구 이해 증진 o 주제별/전문가 연찬회 : 주제와 젠더의 연관성 이해를 위한 워크숍 형태의 연찬회 o 온라인 교육(현지 파견 시)
■ 활용방안	o 사업 이행 전에 참여자의 성 주류화 교육 의무화 o 사업 계획서 작성 전에 성 인지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 제공 o 사업 설명회 시 관련 교육 포함

라)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 교육 대상	o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 교육 목적	o 성 인지적 감수성과 문화적/다양성 의식을 바탕으로 현지 주민과 평등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감수성 능력 향상
■ 프로그램(예)	a. 성 인지적 감수성 b. 인권/글로벌 시민권 c. 다문화/다양성 의식과 현지 문화 이해 d. 성희롱 예방 및 젠더 파트너십 e. 자원 활동과 젠더
■ 교육 내용	a. 성 인지적 감수성 : 차이와 차별에 이해, 젠더 개념, 젠더와 발전의 의미 등 젠더에 대한 감수성 향상 b. 인권/글로벌 시민권 : 인권 개념의 의미,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교류 능력 향상 c. 다문화/다양성 의식 : 문화적 차이와 다양한 차이에 대한 감수성 향상,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 d. 성희롱 예방 및 젠더 파트너십 : 성희롱 및 여성/젠더에 기반한 폭력 예방, 현지 주민 또는 봉사단원들과 젠더 파트너십 향상, 봉사단원의 안전 의식 함양 e. 자원 활동과 젠더 : 해당하는 활동 분야에서 모범사례 등을 통해 젠더 연관성을 이해하고 봉사 활동의 의미 제고
■ 교육 방법	o 강의 및 특강 : 봉사단 공식 교육 내 정규 과목으로 포함 o 단기 워크숍 o 온라인 교육(현지 파견 시 파견국가 인프라 여건에 따라)
■ 활용방안	o 현지 파견 전에 공식 교육에 포함하고 교육 기간 동안에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여 반드시 시행 o 선배 봉사단과의 만남 등을 통해 젠더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 증진 o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지에서 온라인 교육 o 현지 출장 교육

마) NGO

■ 교육 대상	o 국제개발원조를 위한 NGO*
■ 교육 목적	o 성 인지적 감수성과 문화적/다양성 의식을 바탕으로 현지 주민과 평등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감수성 능력 향상
■ 프로그램(예)	a. 젠더/문화적 감수성 b. 국제사회 NGO와 성 주류화 c. 각 분야에서의 성 인지적 모범 사례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e. 분야별 젠더 이슈 발굴 및 사업 계획서 작성
■ 교육 내용	a. 젠더/문화적 감수성 :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해, 젠더 개념, 젠더와 발전의 의미,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파트너십 향상 b. 국제사회 NGO와 성 주류화 : 국제사회 주요 NGO의 성 주류화 실천 사례 이해 및 방안 모색 c. 활동 분야에서 모범사례 등을 통해 성 인지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NGO 활동의 의미 제고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 성별분리통계, 정책의 성 분석/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분석 방법 이해 및 실습 e. 성 인지적 사업 계획서 작성 :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젠더 이슈 발굴 및 계획서 작성방법 실습
■ 교육 방법	o NGO 역량강화를 위한 단기 성 주류화 워크숍 o 사업 공모 발표 시 주제별 특강
■ 활용방안	o NGO 역량강화 사업 워크숍 등을 활용 o 사업 계획서 작성 전에 성 인지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 제공 o 사업 설명회 시 관련 교육 실시 및 OECD/DAC의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가입단체를 중심으로 함

바) 연구원/연구기관

■ 교육 대상	o 연구원/연구기관
■ 교육 목적	o 성 주류화 개념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함은 물론, 성 인지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역할 수행 능력 향상
■ 프로그램(예)	a. 국제사회와 한국의 성 주류화 흐름 b. 국제개발원조와 젠더 c. OECD/DAC과 성 주류화 전략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컨설팅 e. 성 인지적 연구계획서 작성

■ 교육 내용	a. 국제사회와 한국의 성 주류화 흐름 : 성 주류화 개념의 이해,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성 주류화 실천 내용 파악 b. 국제개발원조와 젠더 : 젠더 개념, 젠더와 발전의 의미 등 c. OECD/DAC과 성 주류화 전략 : OECD/DAC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평가 체계(젠더 마커 등 평가지표 적용방법), 동료평가 등 성 주류화 실천 전략 이해 및 OECD/DAC 평가체계 적용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컨설팅 : 성별분리통계, 사업의 성 분석, 성 인지적 예산 분석 이해 및 컨설팅/자문 능력 향상 e. 성 인지적 연구계획서 작성 : 전문 분야에서 모범사례 이해, 젠더 이슈 발굴 및 성 인지적인 연구 계획서 작성
■ 교육 방법	o 연구진을 위한 성 주류화 전문가 워크숍 o OECD/DAC 사무국이나 선진원조기관 관련자, 주제와 연관된 국내 전문가 특강
■ 활용방안	o 연구계획서 심사 혹은 평가 시 '성 인지적 연구 수행 방법/결과 활용'을 위한 평가 항목 신설 적용 o 연구기관 선정 시 연구진 내 젠더 전문가 포함 방침

3)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방안

가) 성 인지 교육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① 교육 및 적용 모니터링을 위한 focal point 구성

KOICA의 교육 체계는 현재 인사교육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수행 관련 실무 교육은 해당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수행하고 있다.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과 같은 크로스커팅 이슈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focal point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성 인지 담당관을 중심으로 외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이나 실무적용방안 등은 정책과 사업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focal point를 중심으로 사업팀에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육 인센티브

중장기적으로는 인사교육실과 협의하여 KOICA 전 직원이 성 인지 교육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진급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성 인지 교육을 받으면 교육점수 및 인사사고과에 기록이 되는 것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의무적인 교육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성 인지 교육 전문가 풀 구성

① 분야별 전문강사 풀 구성

성 인지 교육은 단지 의식전환 교육이 아니라 직무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ODA 사업과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개발원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KOICA 교육의 전문강사 풀로 활용해야 한다.

②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및 모범사례 개발

ODA 사업 성 주류화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ODA 사업 성 주류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성 인지 교육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ODA 사업 성 주류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경험을 나누고 선진 해외원조기관에서 성 인지 교육을 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교육방법 및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① 임직원들을 위한 코칭제도 도입

KOICA 성 주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원들의 이해와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제안했던 연찬회 및 특강의 형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칭제도를 도입하여 1대1로 코칭을 통해서 성 주류화와 관련된 자료 및 국제 흐름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직급별, 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운영

성 인지 교육은 대상별 맞춤 교육으로 운영이 되어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직급별 그리고 업무별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전에 교육 대상별로 소규모 시범교육을 운영해보면서 한계들을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

① 시청각 교재 개발

애니메이션 및 시청각 교재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교구로 활용될 수 있다. ODA 사업 성 주류화와 관련된 모범사례들을 시청각 자료로 개발하는 것은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KOICA 자체적으로 모범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시청각 자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해외 모범사례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② 핸드북 발간

교육생들은 성 주류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낯선 용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젠더, 성 인지 관점, 성 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성 인지 감수성 등 이러한 용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핸드북을 만들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절차별, 분야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묶어서 소책자로 발간을 하게 되면 사업담당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현재 KOICA의 ODA 전략과 실행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성 주류화 접근에 기반한 ODA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고 KOICA의 ODA 기조를 분석하여, 현재의 KOICA 정책 기조에 통합되어야 할 성 평등 정책 기조를 제시함으로써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의 추세가 미시적 개발전략이 아닌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개발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국가지원전략(CAS)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국가지원전략의 각 단계에서 성 인지적 점검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크로스커팅 이슈인 젠더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성 인지적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 절차, 사업 분야,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각각 작성하여 향후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국가지원전략에 기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의 선정, 시행, 평가에 이르는 사업 절차에 대한 성 인지적 점검사항을 개발하였다. 사업 수행의 각 절차별로 성 주류화가 되어야 할 개입 지점을 밝히고, 사업 발굴 및 사업 선정 과정의 성 주류화 점검사항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사업이 실행될 때 사업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과 사업 종료 시의 평가에 대한 성 인지적 점검 항목도 함께 제시하였다. 사업 분야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은 ODA 7개 사업 분야 - 보건 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 를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성 주류화가 필요한 이유,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해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해당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성 주류화 된 해외 사례를 수록하여 사업 이행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한편 사업 유형의 체크리스트는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인력파견, 민간 단체 지원 등 4개 유형에 대해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였다. 또한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조직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KOICA의 조직체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대상자별 교육훈련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대상자는 의사결정자(임원), 사업담당자, 사업관리(PMC)/건설용역업체(CM),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NGO, 연구원/연구기관 등이 포함되며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장에서 서술된 성 인지적 정책기조, 국가지원전략, 사업절차, 사업분야, 사업유형은 향후 실제 적용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본 장에서 제시된 국가지원전략과 성 인지적 점검사항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개발원조의 성 인지적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조직의 개선 및 집중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개발원조 논의에서 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된 것은 성 평등 관점에서 원조가 계획되고 집행되지 않을 경우 여성 인구가 원조의 수혜자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투자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OECD/DAC은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 인지적 개발원조를 위한 정책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다(2장 참조). 성 평등 지침서를 통해서 개발원조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밝히고, 젠더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규정하며, 성 주류화와 여성중점 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전략을 도입할 것을 명백히 한 것도 이런 과정의 결과이다. 이제 성 주류화는 개발원조에 있어서 국제적 규범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국제적 흐름과 함께,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동력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연구는 KOICA의 개발원조정책에서의 성 주류화의 현황을 분석 점검하고(3장),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며, 성 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지식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4장). 이들 정책 수립 방향과 정책 가이드라인은 섹터로서의 젠더 정책과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이중전략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 이들 정책기조와 정책 도구들이 KOICA 사업 집행으로 연결될 때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성 주류화의 정책 도구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자 및 수행자들이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의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들을 실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2009년 12월 29일) 국회 통과된 ‘국제협력기본법’에 “국제개발협력에 여성 및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 평등 실현을 기본정신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과 지침에 부합하는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실현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발 원조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KOICA 조직 안에도 최근(2009년 12월 31일) 성 인지 담당관 직제가 신설되었다. 아직 성 인지 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조직 내에서 ODA 성 주류화 과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성 주류화의 핵심 목표인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KOICA ODA 사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된 성 인지 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화 시킬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국내외 국제 개발 원조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동 사업의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도구를 마련한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KOICA ODA 사업에 기여하리라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성 주류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집행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KOICA 사업 전반에서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가 중요한 아젠다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KOICA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상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 주류화를 위한 KOICA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그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이행, 평가, 환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소 포괄적인 정책 도구 개발에 연구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개별 사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등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 동향을 검토하고 공여국 차원의 연구 보고서를 반영하여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개별 수원국의 사정이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과 수원국의 필요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연구가 나와야 할 것으로, 이것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국외문헌

- ADB (2006), Gender Checklist, Asian Development Bank.
- AECID (2007), Spanish Strategy for 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AusAID (2007), Gender Equality in Australia's Aid Program – why and how, March 2007.
- BMZ (2001), Concept for the Promotion of Equal Participation by Women and Men in the Development Process, May 2001.
- Booth, Christine and Cinnamon Bennett (2002),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ropean Union: Towards a New Conception and Practice of Equal Opportunities?,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9, No.2:430–446.
- Boyd, Rosalind (2005), Gender and Human Security Issues: Building a Programme of Action–Research, Development in Practice, Volume 15, Number 1, February.
- Brambilla, Paola (2001), Gender and Monitoring: A Review of Practical Experiences, Paper prepared for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Browne, Stephen (ed.) (2002), Developing Capacity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Country Experiences, UNDP.
- Bunch, Charlotte (1999), Forward, Local Action, Global Change: Learning About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Julie Mertus, Nancy Flowers & Mallika Dutt, UNIFEM & The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 Campbell, Lisa and Arja Vainio–Mattila (2003),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Community–Based Conservation : Opportunities Missed for Lessons Learned?, Human Ecology, 31(3):417–437.
- CIDA (1997), Guide to Gender–Sensitive Indicators, Ministry of Public Works

-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 CIDA (1999), CIDA's Policy on Gender Equality,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 CIDA (2005), CIDA's Framework for Assessing Gender Equality Results, CIDA.
- CIDA (2007), Gender Equality Toolkit,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CIDA (2009), CIDA Programming Framework for Vietnam, 2004–2009,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vietnam/development-developpement/cida-acda.aspx?lang=eng>
- Commonwealth Secretariat (2001), Gender Mainstreaming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Compact Oxford English Dictionary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23/09/09.
- DAC (1998), Source Book on Concepts and Approaches linked to Gender Equality, <http://www1.oecd.org/dac/pdf/gensre.pdf>.
-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2008a), Gender Equality, Women's Empowerment an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ssue Brief 1, Making the Linkages, July.
-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2008b), Gender Equality, Women's Empowerment an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ssue Brief 2, Finding the Entry Points, July.
-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2008c), Gender Equality, Women's Empowerment an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ssue Brief 3 Innovative Funding for Women's Organizations, July.
-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2009), Gender Equality, Women's Empowerment an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ssue Brief 4 Managing for Gender Equality Results in Donor Agencies, May.
-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ANIDA) (2004), Gender Equality in D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DANID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Degraef, Veronique (2004), Mainstreaming and Monitoring Gender Equality

- in FP6: Who Does What?, ENWISE Valorisation Conference presentation (Tallinn, Sep 9–10, 2004).
- Department for Community Development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Office for Women's Policy (2005), Gender Analysis: Making Policies, Programs and Services Gender-Aware.
- Department of Gender and Women's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En-gender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on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 Derbyshire, Helen (2002), The Gender Manual: A Practical Guide for Development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DFID.
- DFID (2007a), DFID'S Gender Equality Action Plan (GEAP).
- DFID (2007b),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07–2009: Making Faster Progress to Gender Equality.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DFID (2007c), Gender Equality at the Heart of Development: Why the role of women is crucial to ending world poverty, www.dfid.gov.uk/Pubs/files/gender-equality.pdf.
-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Good Intentions alone won't do : Dutch Gender Policy in Afghanistan, Bangladesh, Bburkina Faso, Guatemala and Yemen.
- European Commission (1999), Evaluating Socio Economic Development, Sourcebook 2: Methods & Techniques Gender Impact Assessment,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gener/evaluation/evalsed/guide/introduction/eval_sed_en.htm
- European Commission (2004), Toolkit: on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in EC Development Cooperation, European Aid Cooperation Office.
- EU (2006), A Roadmap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march 2006.
- EU (2007),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May 2007.
- Grieser, M. & B. Rawlins (1996), Issues in Urban and Rural Environments : GreenCOM Gender Reports, Washington.
- Grown, Caren, & Gupta, Geeta Rao. & Kes, Aslihan (2008), Seven Priorities, Seven Years to Go: Progres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 GTZ (2003), Integrating Gender into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PRSPs): The Example of Ghana, Eschborn 2003.
- GTZ (2009), Steps for Action to Promote Gender Equality, Eschborn, Germany. 2009.
- Hambly–Odame, Helen (2000), Engendering the Logframe, ISNAP.
- Hobsbawm, Eric (2002), War and Peace in the 20th century, London Review of Books 21, February.
- ILO (2000), Gender! a partnership of equals, Briefing Kit: Gender Issues in the World of Work. Geneva, Bureau for Gender Equality.
- IMF (2000), Transition Economies: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 [http://www.imf.org/ external/np/exr/ib/2000/110300.htm#I](http://www.imf.org/external/np/exr/ib/2000/110300.htm#I).
- InterAction (2008),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November 2008.
- Japan Times (2004), Women tapped for ODA ideas, March 10.
- JICA (2007), Trends and Approaches on Gender and Development (GAD), www.jica.go.jp/english/operations/thematic_issues/gender/background/pdf/report4.pdf. p.2.
- Kanter, R. M. (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 Kishore, Sunanda and Priya Shyamsundar (2005), An Environmental Review of 2002–04 Country Assistance Strategies. Environmental Economic Series. The World Bank Environment Department.
- Malhotra, R. Pande and C. Grown (2003), Impact of Investments in Female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Washington.
- Mason, A. D. and King, E. M. (2001),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s, and voi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1(21776), January.

- Mehra, R., et al. (1996), Women in Waste Collection and Recycling in Hochiminh City, *Population and Environment: 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18(2) November.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ROCK & OECD (2008),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C Special Review, August 8.
- Moser, Caroline (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Theory, Practice and Training*,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Action Plan for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2007–2009.
- OECD (1995), 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http://www.oecd.org/document/29/0,2340,en_2649_34541_094621_1_1_1_1,00.html
- OECD (1999), 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http://www.oecd.org/dataoecd/56/46/28313843.pdf>.
- OECD (2000), Progress towards gender equality in the perspective of Beijing+5: Beijing and the DAC Statement on Gender Equality. <http://www.oecd.org/dataoecd/31/9/2755262.pdf>, p.1.
- OECD (2006), DAC in dates: the History of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http://www.oecd.org/dataoecd/3/38/1896808.pdf>.
- OECD (2007), What has chan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since 1999, OECD. <http://www.oecd.org/dataoecd/44/0/38773781.pdf>
- OECD (2008), DAC Guiding Principl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 OECD (2009), Better Aid Managing Aid :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OECD.
- RHIYA–EU/UNFPA Reproductive Health Initiative for youth in Asia – Good Practices, http://www.unfpa.org/eu_partnership/rhiya/index.html
- Sida (2005a), Gender Equality enriches the World.
- Sida (2005b),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10 October 2005.

- Sida (2009), Gender Equality in Practice: A Manual for Sida, Gender Equality Team, Sida.
- U.N. Millennium Project (2005), Taking Action: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Women, Task Force on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New York: Earthscan Publications.
- United Nations (2005),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through ICT,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21.
- UNDP (2006a),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Beyond Scarcity: Power, Poverty and the Global Water Crisis. New York; Palgrave MacMilan.
- UNDP (2006b), Institutional Reform And Change Management: Managing Change In Public Sector Organisations(A UNDP Capacity Development Resource).
- UNDP (2006c), Knowledge Services And Learning (A UNDP Capacity Development Resource).
- UNDP (2006d), Multi-Stakeholder Engagement Processes (A UNDP Capacity Development Resource).
- UNDP (2006e), Mutual Accountability Mechanisms: Accountability, Voice, And Responsibleness (A UNDP Capacity Development Resource).
- UNDP (2007), Capacity Assessment Methodology: User's Guide.
- UNDP (2008), Capacity Assessment Practice Note.
- UNIFEM (2006a), Issue brief on displacement <http://www.womenwarpeace.org/issues/displacement/displacement_pfv.pdf> .30 August.
- UNIFEM (2006b),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new aid modalities and partnerships UNIFEM Discussion Paper, New York.
- UNIFEM (2008),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HIV and AIDS Responses: Main Aid More Effective Through Tracking Results.
- UNIFEM (2009),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08/2009: Who Answers to Women?– Gender & Accountability.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on Women, Peace and Security.
- USAID Cooperative Agreement (2007), Catalyzing Equitable Development: An Initiative to Institutionalize a Gender Perspective in PVO and NGO Work in the Field, August 23, 2007.
- USAID (2006), Women Men and Development, MARCH 2006.
- World Bank (2001a),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s, and voice The World Bank and Oxford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1). pp. 94–96.
- World Bank (2001b), Integrating a gender dimension into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World Bank, worldbank.org/INTGENDER/Resources/metoolkit.pdf.
- World Bank (2002), Integrating gender into the World Bank's work: A strategy for action,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GENDER/Resources/strategypaper.pdf>.
- World Bank (2006), Gender Equality as Smart Economics: A World Bank Group Gender Action Plan(Fiscal years 2007–10), World Bank.
- World Bank (2009), Implementing the Bank's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FY08 Annual Monitoring Report, World Bank.
- World Bank (연도미상), Developing a Gender-aware Results-Based CAS. worldbank.org/INTLACREGTOPGENDER/.../2005GenderResultsBasedCASHCarlsson67.doc.
- World Bank Institute (2001), Governance: A Participatory, Action-Oriented program, <http://222.worldbank.org/wbi/governance>.

국내문헌

- 강선미 (2005),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곽숙희, 정혜선, 정미경 (2007),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선진국 사례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2008~2010),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4호, 2008. 2. 29, 타법개정]
- 김경희, 한정원, 김혜영, 장운선, 강선미 (2008),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여성부.
- 김영혜, 정혜선, 곽숙희, 김진영 (2008),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성 인지도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미, 김지영 (2009), 선진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현황과 KOICA의 대응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 Mulakala, Anthea (2009), 영국 국제개발부(DFID)의 국가지원전략 수립과정, 국제개발협력 No.2, p19- 25.
- 박명지 (2009), KOICA 사업의 녹색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외교부 (2005),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 외교통상부 (2009), OECD DAC 개황.
- 이금순, 김수암, 조한범, Lynn Lee (2008), 국제 개발이론 현황, 통일연구원.
- 이재경, 정진주, 이은아, 유정미 (2009), 대학(원)생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장필화 (2009),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여성 이슈, 2009년 6월 1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월례토크.
- 정유아 (2009),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국가지원전략(CAS)' 활용 현황과 과제, 국제개발협력. No.2. 한국국제협력단.
- 정혜선 (2009),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여성이슈,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들러리인가? 핵심인가?: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여성 이슈'의 자리매김, 2009년 6월 1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월례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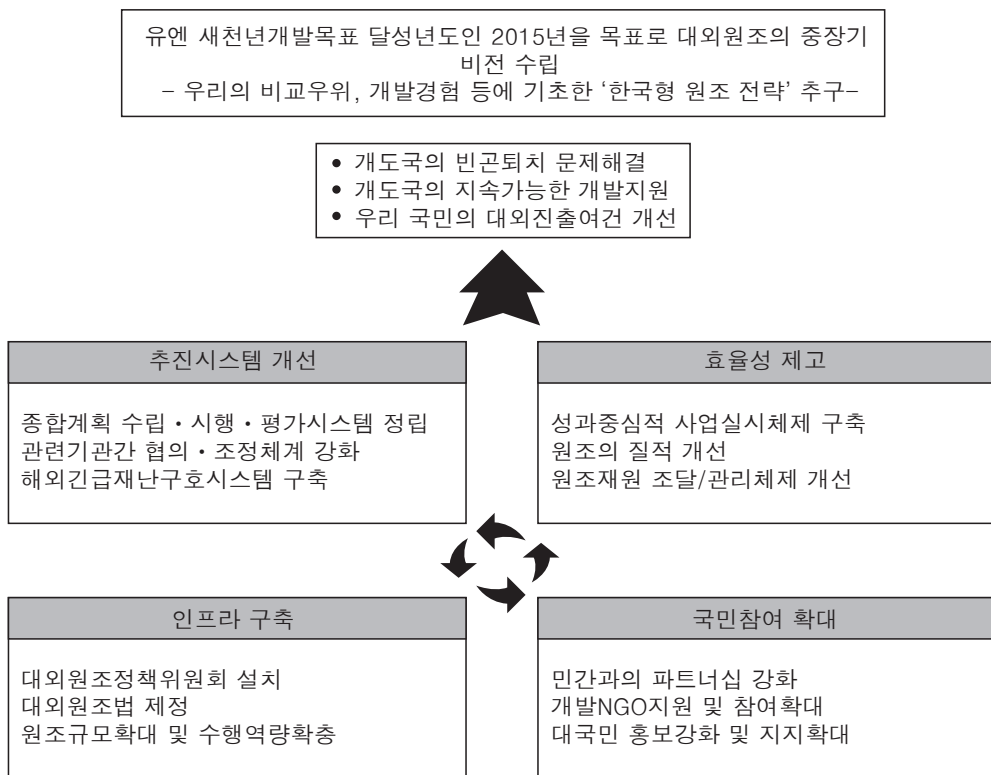
- Tanni Mukhopadhyay (2005), 지속가능한 인간개발과 성 주류화, 여성정책포럼 제 1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Tolentino, Bruce (2009), 해외원조, 국제금융위기와 국가지원전략, 국제개발협력 No.2:26-32.
- 한국국제협력단 (2007a),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국제개발협력 No.2.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7b),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8a),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8b),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8c), 분야별 평가 보고서-교육분야 지원사업,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8d),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8e),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
- 한국국제협력단 (2008f), OECD/DAC 특별동료검토를 위한 실사 결과보고,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9a), 한국 ODA의 국가지원전략 프로세스 발전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9b), 2009년도 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9c), '국가지원전략(CAS) 프로세스 발전' 세미나 주요 내용 및 정책시사점. 2009.1.19-20 세미나 자료집.
- 한국국제협력단 (2009d), 사업심사 및 선정절차 개선안, 한국국제협력단.
- 행정자치부(편) (2007), (함께하는) 지방행정혁신 컨설팅 길잡이: 지방행정혁신 컨설팅의 이해부터 혁신교육 및 학습프로그램까지, 서울: 행정자치부.
- 허라금 (2008), 여성주의 성 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 주류화, 여성학논집, 제25집, 2권.
- 홍승아 (2009), 젠더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6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부록 1. KOICA의 대외무상원조(ODA) 정책개요

□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 수립(2005)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의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개선대책의 목적은 향후 10년의 ‘대외원조의 중장기 비전수립’을 위한 것으로,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추진시스템 개선’, ‘원조의 효율성 제고’, ‘인프라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 크게 5대 부문의 정책개선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 문제해결’,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지원’, ‘우리 국민의 대외진출여건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그림-1]과 [표-1]참조).

[그림-1] 한국형 ODA 개선방향의 기본구도(안)⁹²⁾



외교부 (2005)

92) 외교부 (2005).

[표-1] 한국의 대외원조 종합개선정책(안)(2005~2015)

1.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우리의 비교우위, 개발경험 등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 전략’ - 전략적 지원 분야 - 원조 형태 - 중점지원 국가 및 지역
2. 추진시스템 개선	2.1 종합적인 원조계획 수립·시행시스템 정립 2.2 관련기관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2.3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 2.4 해외 긴급재난구호시스템 구축
3. 효율성 제고	3.1 성과중심적인 사업실시체계 구축 3.2 원조의 질적 개선 3.3 원조재원 조달·관리체제 개선 3.4 원조실시기관간 연계 강화
4. 인프라 구축	4.1 대외원조정책위원회 설치 4.2 대외원조법 제정 4.3 원조규모의 확대 4.4 원조수행 역량 확충 4.5 OECD/DAC 가입 검토
5. 국민참여 확대	5.1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5.2 개발NGO 참여 확대 5.3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보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2006)

지난 2006년 1월 정부는 그 동안의 분권화된 원조체계를 보완하고 부처 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2005년 11월 발표된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의 네 번째 개선대책인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외원조정책위원회 설치’정책(안)을 실현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설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⁹³⁾에 근거한 것이다.

[표-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설립목적	제1조 (목적)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국가의 빈곤퇴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에 의한 국제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	--

93) 연구자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서 동 규정의 법령연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06년 1월 26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대통령령 제20724호, 2008.2.29. 타법개정]은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것임. <http://www.law.go.kr/LSW/LsiJoInfoP.do?lsId=010124#>

기능	제2조 (기능)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 등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협력(이하 “국제개발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3.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추진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수산업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시행 2008.2.29]

□ 정부의 ODA 중기전략(2008~2010) 수립(2007.7.)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에는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2008~2010)>을 수립하고, 오는 2010년까지 ‘ODA의 기반 조성,’ 2015년까지 ‘원조의 선진화’를 달성하여 ‘선진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본방향과 6대 세부추진방향을 설정하고 5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표-3]참조).

[표-3] 정부의 ODA 중기전략(2008~2010)의 정책방향과 5대 추진계획

기본방향
□ 2015년 MDGs 달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전략 및 실행계획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1단계(2008~2010)는 우리나라 ‘ODA의 기반조성’ 단계 2단계(2011~2015)는 원조의 선진화’ 추진단계로 설정 □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개발목표 달성 및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 □ 대외원조 정책을 우리의 여타 정책과 조화·연계시킴으로써 정책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와 일치성 제고
세부추진방향
1. 원조규모의 확대 지속 추진 및 무상비율 제고 2. 원조의 안타이드화 확대 추진 3. 전략적 대외원조 사업 추진 4.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5. ODA 추진 인프라 확충 6. 국민참여확대
향후 추진계획

1. '중기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확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3. ODA 평가지침(안) 마련
4. ODA 규모의 확대 및 무상비율 제고
5. '2010년 OECD/DAC 가입' 추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 KOICA의 중장기 전략수립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과 연계하여, 외교통상부 산하의 무상원조 집행전담기관인 KOICA는 지난 2007년 10월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을 수립하였다. KOICA의 중기전략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등 4가지 목표와 8대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계획에는 지역별 추진전략(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동구), 분야별 추진전략(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및 여성 등 7대 분야), 사업분야별 추진전략(국내초청연수, 해외봉사단파견, 민간과의 파트너십), 해외재난구호 및 복구, 구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평가, ODA추진역량강화 등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동 전략은 분야별 추진전략에서 “여성”을 중점 지원 분야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여성을 직접적 수혜자로 두고 여성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표-4] KOICA의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의 주요정책방향

사업목표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 UN 새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노력에 적극 참여 ☐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ociety) 강화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주요정책방향
1. ODA 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확대 2.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ODA 규모 확대 3. '선택과 집중' 원칙 유지(지원국가 및 분야) 4. 소원국 Needs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 5.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발전 6. 민간참여확대 7. 비 구속성 원조(Untied) 확대 8. ODA 추진역량 강화

한국국제협력단 (2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과 '국제협력개발기본법'(대안) 제3조의 내용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 평 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파트너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파트너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파트너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록 2.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별 주요 현안

참고자료

U.N. Millennium Project 2005. Taking Action: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Women. Task Force on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New York: Earthscan Publications
Grown Caren, Geeta Rao Gupta, Aslihan Kes (2008), Seven Priorities, Seven Years to Go: PROGRES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UNIFEM(2009),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08/2009: Who Answers to Women?—Gender Accountability.

1. 보건과 교육에서의 지원 강화와 성 형평성 증진

▶ 보건: 안전한 성과 생식보건 및 인권 보장

주요지표:
15-19세 여성 출산율(1000명당 출생아수)
피임보급률

- 세계적으로 10대 여성들의 출산율은 지난 10년간 감소, 그러나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 평균 12.08명 보다 높게 나타남(14.32명~119.41명). 남아시아의 경우 10대 기혼여성들이 다수.
- 모든 저개발국과 중하위개도국의 피임보급율은 평균 0.85로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낮음.

▶ 교육: 초등 이상의 교육기회 강화

주요지표:
초·중·고등교육 취학률 성비
초·중·고등교육 졸업률 성비

- 세계적으로 여아들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1991년 80%에서 2005년 88%로 상승함. 그러나 중고등 교육의 경우 여학생 입학률의 상승속도 느림. CEE/CIS지역, 남아시

아 지역의 성별격차는 더욱 벌어짐.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은 출산율, 아동사망율, HIV/AIDS와 관련된 이슈로서,⁹⁴⁾ 중·고등교육은 여성들의 고용과 건강, 경제적 기회, 가족과 정치참여에서의 지위에 결정적이 영향을 미침⁹⁵⁾

- 7천 2백만의 초등학교연령대 미취학 아동 중 57%가 여성.
- 저개발국, 중하위 개도국의 취학률, 졸업률 수준은 낮음.
- 일부지역에서는 중학교 취학율에서 성비역전 현상(여성과다)- 남미 23개국, 동아시아 12개국, 중동과 북부아프리카 12개국.
- 사하라남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여대생 비율을 각각 0.6%, 0.7%.

2. 여성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경제적 역량강화

▶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강화

주요지표:
하루(혹은 연간) 평균 물기르기, 연료수집에 사용되는 시간 성비

- 충분한 자료의 부족으로 일반화는 곤란하지만, 생활연료와 물, 위생시설, 교통시스템의 결핍으로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는 여성들의 통학을 방해하고, 소득증대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임.
- 1995년~2003년 사이에 아프리카 9개국을 비롯하여 저개발국과 중하위권의 개도국의 총 42개국과 22개 선진국에서만 적어도 한번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짐.
- 아프리카에서 여성과 아동이 물을 기르는 데 보내는 시간은 약 400억 시간이며, 이

94) Malhotra, R. Pande and C. Grown (2003).

95) U.N.Millennium Project (2005).

는 전체 프랑스 노동자의 한 해 노동 시간과 같다⁹⁶⁾.

▶ 여성의 재산권과 상속권 보장

주요지표:
토지소유권 성비 (여성, 남성, 공동소유)
주택소유주 성비 (여성, 남성, 공동소유)

- 충분한 자료의 부족으로 일반화는 곤란하지만, 소유물과 재산은 경제적 안정과 수입 증대를 위한 주요 수단이며,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제고되고 있음.
- 개인별 재산소유 지표를 포함하는 생활표준척도조사(World Bank가 지원하는 LIVING STANDARD OF MEASUREMENT STUDY:LSMS)의 시행국가가 매우 적음. 남미의 경우, 7개 조사가 토지소유권 지표포함, 10개 조사가 주택소유주 지표 포함.

▶ 고용에서의 성 불평등 개선

주요지표:
산업별 여성취업률 성비
임금노동자, 자영업자들의 소득에서의 성별격차

- 여성들의 무급·유급노동은 빈곤가구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중요하고, 빈곤탈출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음. 특히 유임금의 취업은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함.
- 지난 10년간 비농업분야의 여성고용 증대(1990년 36%에서 2005년 39%), 그러나 중동지역,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여성비율은 남성의 1/4, 남아프리카는 1/3 수준임.

96) UNDP (2006).

- 세계적으로 1997년 이래 직업의 안정성이나 혜택,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의 고용(Vulnerable employment)은 3% 감소. 그러나 약 15억의 인구가 여전히 이 범주에 속하며 여성들은 이 중 51.7%를 차지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경우 여성근로자 10명 중 8명.
- 고용 면에서 세계는 60~80%의 남성들과 20~65%의 여성들의 생산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음. 아프리카와 중동, 북미지역의 경우 여성인구대비 여성 고용율은 34%에서 22%로 떨어짐.

3. 여성들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정치적 역량강화

▶ 정치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 증진

주요지표 여성국회의원 비율 여성행정직 공무원 비율

- 각 정부의 여성할당제와 국제적 압력 등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느린 속도로 개선됨. 2008년 6월 현재, 여성국회의원수는 18.4%로서 의원 5명 중 한명 꼴. 그러나 지역과 여성할당제의 유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16% 정도의 편차를 보임. 이는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 각 정부가 세운 여성 국회의원 비율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⁹⁷⁾
-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수도 증가추세로서, 코스타리카의 경우 여성의원이 73%. 남미의 5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1/4, 아프리카 7개국 1/3.

4. 여성인권 증진

▶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퇴치

주요지표: 가정폭력 발생율, 성폭력 발생율

97) U.N.Millennium Project (2005).

- 자료불충분으로 세계적 추세를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각 지역의 연구조사들을 취합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육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함. 이디오피아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비율은 26.6%, 말라위는 70.9%, 인도 37.2%, 방글라데시 57.5%, 태국 44.25%, 사모아 46.1% 등

▶ 취약국가와 갈등상황에 있는 여성인권과 성 평등 증진

주요지표:
가정폭력 발생율
전쟁으로 인한 성별 시민희생자수

- 9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년 국제적인 국경에 걸쳐 인신매매되고 그 중 다수가 여성들임.
- 세계에서 강제 추방된 사람(displaced people)의 약 80퍼센트가 여성과 동반 이동들임.⁹⁸⁾
-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무장갈등과 분쟁이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무장 갈등의 전술적 무기로서 사용하는 예가 속출하고 있음.⁹⁹⁾

98) UNIFEM (2006a).

99) Rosalind Boyd(2005)에 따르면, 많은 무장집단들이 고의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전술로 사용함에 따라 시민 희생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출처: Boyd, Rosalind (2005)). Eric Hobsbawm(2002)에 따르면, 전쟁으로 희생된 시민사상자는 1차 대전에서 전체 사상자의 5%, 2차 대전에서 66%, 21세기의 분쟁에서는 80~90%로 증가되었다. 미국의 해군분석센터(The Center for Naval Analyses)에 따르면, 2007년 현재 46개국의 270억 인구가 고도의 무장갈등 위험 속에 있으며, 56개국 120억 인구가 정치적 불안정 속에 있다. 그리고 2008년 중반 1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이 14건으로 2007년도의 15건보다 겨우 1건이 모자라는 수치로서, 전쟁이 증가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출처: Hobsbawm, Eric (2002))

부록 3. OECD/DAC 고위급 회담의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결의문과 내용

[표-1] OECD/DAC 고위급 회담의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결의문과 내용¹⁰⁰⁾

주요 정책 결의문과 내용	정책적 맥락
1995년: “성 평등: 지속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개발(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이라는 정책성명서 승인.	정책적 맥락: 같은 해에 채택된 주요 성명들을 보면, “새로운 글로벌 맥락에서의 개발파트너십”과 “참여적 발전과 거버넌스를 위한 방침들”이 있음. 이 문건들은 OECD/DAC의 정책들이 이미 1995년부터 개발도상국가들의 자국발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들을 해결하는 통합된 개발전략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된 개발전략의 주요 요소들로서 민주적인 책임, 인권보호와 법치를 강조해 왔다는 것을 보여줌.
1996년: 새로운 개발전략인 “21세기를 구상하며: 개발협력의 공헌(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승인.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향한 명백한 진보를 달성할 것”과 “2015년까지 영아사망율과 5세 미만의 유아사망율을 2/3로 감축하고 모성 사망율을 3/4로 감축할 것”을 주요 전략적 목표에 포함시킴.	정책적 맥락: 고위급회의는 일부 수원국들(말리가 그 처음으로 선정됨)을 선정하여 국제원조시스템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도입함. 이 전략은 그간의 개발경험과 일련의 국제대화들을 통해 도달한 결론들에 근거하여 ‘인간중심적 개발’, ‘지역(Local) 주도권’, ‘글로벌 통합과 국제적 파트너십’을 개발협력의 원칙으로서 강조. 이 전략은 “개발도상국들과의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의 토대제공과 글로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 전략적 목표들은 2000년 새천년 정상회담에서 8대 “새천년발전목표들”로 전환됨.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한 ‘파리선언’에서,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공여국간의 원조조화 노력이 요구됨을 명시함.	정책적 맥락: 2003년의 원조효과에 관한 제1차 로마 고위급 회의에 이어 2005.2.28-3.2(3일)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회의는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공여국간 원조조화, 협력대상국 정책과의 일치 등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5가지 원칙 및 동 원칙 이행 점검을 위한 12가지 지표,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목표 설정한 ‘파리선언’을 채택함.
2008년: 2008.9.2~9.4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에 관한 제3차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에서 빈곤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정책이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이슈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룰 것을 결의함.	정책적 맥락: 이러한 결의를 하게 된 세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세계 14억 극빈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간과하고는 달성될 수 없음. 2) 민주주의, 경제성장, 사회진보, 환경보호와 더불어 국가 내부와 국가 간의 수입과 기회의 불평등 해결이 세계의 진보에 무엇보다 중요함. 3) 성 평등, 인권존중,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빈곤 남녀와 아이들의 삶과 잠재력에 장구한 영향력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100) 이 도표는 OECD (2006)와 외교통상부 (2009), OECD(2008) 등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

[표-2] OECD/DAC의 성 평등 지침서들

명 칭	배 경
1.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¹⁰³⁾	이 지침서는 1983년 이후 OECD/DAC 회원국과 개별 원조기관들의 성취와 경험, 그리고 개발협력의 우선순위와 메커니즘에서의 변화를 반영함. 특히 1995년의 성 평등 정책결의와 1996년의 “21세기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1998년 OECD/DAC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되어 1999년에 간행됨. 이 지침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회원국들의 북경행동강령이행공약 실천지원. 1995년 OECD/DAC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성 평등 정책성명서의 이행 지원. - 개발협력에서의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국제적, 국가적 책무이행 공약과 일관되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 지원. - WID 접근 보다 확대 발전된 광범위한 젠더접근방식 반영.
2.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지침(DAC Guiding Principl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에 관한 제3차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아크라 행동강령 이후, 1998년의 지침서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2008년에 채택, 발간됨.

101) OECD (1999). 이 문서는 1998년 OECD/DAC의 GenderNET이 작성하여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OECD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pdf 파일의 제작 년도는 1999년으로 되어 있음.

부록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의안 번호	7135
----------	------

제안연월일 : 2009.12.29.

제안자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4일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개발원조기본법안」, 2008년 7월 10일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원조기본법안」, 2008년 10월 31일 배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2008년 11월 3일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법안」, 2009년 3월 20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 4. 1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5)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 11. 25)에서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공적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

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공적개발원조업무가 합의된 기본이념이나 원칙 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 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은 인도주의 실현 및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등을 기본정신으로 함(안 제3조)

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하되,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

- 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개발협력(이하 “다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사회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분야별 연간 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에서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협력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9조에 따른 주관기관에 시달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설

치법」에 따른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제9조에 따른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3. 소관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간 사업 중복 등으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가의 선정)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국제개발협력통계) ① 시행기관은 매년 전년도에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소관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작성, 분석,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간 통계를 작성하고 위원회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자 약력 〉

허라금

- 현)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여성학과 교수
- 서강대학교 철학 박사
- 대표 저서 및 논문: “성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주류화”, “한국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I, II” 등

강선미

- 현)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문연구위원
- 이화여대 여성학 박사
- 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교육훈련실장
- 대표 저서 및 논문: “한국의 근대초기 페미니즘 연구”,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매뉴얼”, “성 인지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경기도 공무원 성 인지 예산교육 교안개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등.

정진주

- 현)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
-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표 저서 및 논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들다”, “여성의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여성노동자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젠더와 건강: 성 인지 보건정책을 위한 시론”, “보건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인지성 향상을 위한 외국정책 고찰: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등

정미숙

- 현)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문연구위원
- 이화여대 여성학 박사
- 전) 여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 대표 저서 및 논문: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시론”, “성별화된 빈곤과 사회적 배제” 등

이은주

- 현)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위원
-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

연구자료 정책연구 2010-06-031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발 행 2010년 3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정책연구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우: 461-833)
전 화 031) 740-0303
팩 스 031) 740-0681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아테라커뮤니케이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6469-003-1 13320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